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293호 2018년 9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김원영

남가주 동창회 가족 캠핑 행사, 대자연속 친목 도모



【기사: 홍선례 (음대 70) 편집위원, LA】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Labor Day 연휴 를 맞이하여 남가주 동창회(회장 강신용, 사 대 73) 가족 캠핑 행사가 LA에서 동남쪽으 로 80 마일 떨어진 Temecula지역 Elim 유황 온천에서 개최되었다.

170여 명의 동문들과 친지, 가족 여러분들 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첫 날 저녁은 New Shady Rest Park에서 사대 동 창회(회장 이상호, 사대 80) 주관으로, 둘째 날 저녁은 미대 동창회(회장 한귀희, 미대 68) 주관으로 바베큐 파티가 있었다. 동문들 은 도시의 소음과 공해를 떠나 대자연의 경 관을 즐기며 우애를 다졌다.

9월 1일 (토)

강신용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여 름이 가을로 바뀌는 시기에 갖게 되는 동문 가족 캠핑은 이제 서울대 동문들이 꼭 참석 해야 하는 연례 행사가 되었다. 캠핑은 수년 간 중가주 Bishop과 북가주 Mammoth 지 역에서 치러졌는데 올해는 LA와 가장 가까 운 Temecula지역까지 내려온 것이다. Temecula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해 참가할 수 있 는 이점이 있었고 인근 San Diego 지부 동문 도 초청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용준(수의대 81) 총무국장의 참가 동문 소개에 이 어 다음날 행사 안내와 Activity Group 담당 소개가 있었다.

저녁식사 후, 별 관측 행사를 최흥수(자연 대 87)동문이 주도하였다. 주위 조명을 모 두 자제시킨 후 천문 망원경으로 토성, 화 성, 안드로메다 은하 등을 관측했고 이어서 하늘에서 각종 별자리를 찾았다. 도심에 살 면서 천문 망원경을 접해볼 수 없었던 동문 들과 자녀들은 처음으로 금성, 화성을 육안 으로 보는 등 늦여름의 운치를 마음껏 즐 길 수 있었다.

9월 2일 (일)

1. 등산: 아침 8시, 26명의 동문이 Mountain center에 있는 Ramona Trail 에서 산을 올랐 다. 김동근(공대 60) 동문의 인도 하에 약 8 miles, 1,600ft를 등산했는데, 청명한 초가 을 하늘과 바람을 맞으며 해맑은 산의 정 기를 마시며 등산하기에 충분히 좋은 날씨

였다. 특히 San Diego에 거주하는 염두호(공대 57) 부부, 김철희(공대 59) 동문 등이



- 2. 골프: 아침 10시, Murrieta에 있는 The golf club at Rancho California에서 골프 대회가 열렸다. 총 11명의 동문들이 참가하 여 골프를 즐겼는데, 남종우(공대 62) 부부, 강동원(수의대 75), 이사균(수의대 75) 부부, 이재현(수의대 76), 임춘택(상대 68), 김용진(수의대 92), 게스트 등이 참석하였다.
- **3. 산악자전거**: 양수진(간호대 80) 철벅지 회장의 인도로, 김상찬(문리대 65) 전 총동 창회장 부부, 서치원(공대 69) 전 총동창회 장, 유혜연(음대 79) 문화위원장, 박찬민(공 대 81) 사진반장 등 6명이 참가하였고, 3일 동안 계속 산악자전거를 즐겼다.





산악자전거팀

첫째 날 Santa Margarita River trail, 4 miles은 중간 중간 꽤 많은 Uphill과 큰 바 위들로 쉽지 않은 Trail이었다. Creek이 깊어 두 군데 넘어가는 곳을 피해 Riding했다. 둘 째 날 National Interscholastic Cycling Association Trail and Vail Lake trail, 11 miles은 곳 곳에 Uphill과 Downhill이 잘 조

>> P 6로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93호 | **2018년 9월 호** 293호 | **2018년 9월 호**



김영철 (상대 44)

내 나이 93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년들어 7월에 내 나이 93세의 고령이 되 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인생살이를 되돌아볼 때, 여러 번의 어려운 고비를 당했 지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어려움을 극 복하여 오늘에까지 이어온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행운아였음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오늘은 이제 90이 넘은 고령의 인생을 어떻 게 살고 있는가 말하고자 한다. 그동안 수십 년을 이어 온 공직생활을 다 끝마치고 84년 에 미국으로 와서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탓이었던지 특히 과학과 종교의 관 계와 관련하여 성서의 말씀이나 목사들의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내 나름대로 이 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의심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2003년에 일본말로『나는 불가지론자(Agnostic)다』라는 책을 써서 일본에서 발간하 였으며, 이어서 2006년 『신은 시계 제작공인 가, 2009년 『과학과 종교가 손 잡는 날,, 그 리고 2012년 『이 세상과 저세상』이라는 책 을 써서 한국에서 출판하여 그때마다 공부 하고 느낀 것을 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면 내가 내 나름의 공부를 통해 터득하 게 된 한 두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는 우 리가 사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창생에 관 한 것이다. 구약성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 이 하나님에 천지창조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시 낮과 밤을 그리고 동식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어 6일 만에 우주를 지어내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를 절대 진리로 믿고 있으며, 성경 말씀은 글자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해서는 안 되 는 것으로 받아드린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의 과학의 눈으로 볼 때, 무언가 석연치 않 고 납득이 되지 않아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

목차

다. 과학에서 보는 천지 창조는 지금으로부 터 약 137억 년 전에 어떤 초고밀도에 초고 온도인 초 극미한 특이점(Singularity)이 있어,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을 일으켜 그로 인해 우주가 생겨났으며 137억 년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랜기간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오늘의 우주가 생 겨났다고 한다. 이것이 과학에서 보는 우주 창조의 정설이다.

그런데, 수년 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천 문학자들이 대형

가속기를 가지고 실험한 바에 의하 면 공기를 완전한 진공 상태로 다시 말해서 완전한 무 의 상태로 만들었 는데, 자세히 보니 거기에 어떤 에너

지가 작용하고 있 어 이 에너지에 의

해서 어느 한순간에 초 극미한 입자와 반입 자가 생겨나더니, 다음 순간에 서로가 부딪 치며 소멸하여 없어지는 현상을 되풀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양자진 공 속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양자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초 극미한 입자의 생 성과 소멸의 자연 현상 속에서 어느 한순간 에 입자 하나가 소멸을 벗어나 떨어져 나옴 으로써 이것이 바로 특이점이 되었을 것이 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였지 만 거기에는 어떤 초우주 파워가 있어 그로 부터 에너지가 생겨나 작용을 함으로써 그 에너지에 의해 물체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 고 있다.

한편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인간 의 모습을 한 인격 신으로 보고 있는데, 신 약성서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라 고 하였으니, 영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에너지로서 파장과 의 지를 가추고 있는 것으로, 신약성서대로 하 나님을 '영'으로 본다면 이것은 바로 과학에 서 말하는 초우주 파워와 같은 개념이 됨으 로써 과학과 종교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것으로 우주의 탄 생 이야기는 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믿느냐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면 목사나 신부들이 하 는 말은 무엇이고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귀에 솔깃하게 가르친 다. 그래서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같이 세상 의 물욕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새로 거듭나지 않 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가 아니라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Born Again'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예수님도 현실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광 야에서 40일간 고행과 수련으로 마귀의 물

"가는 날까지 마음의 정화를 불교의 석가모니 도 마찬가지다. 그 위해 심신의 수련을 는 한 나라의 왕자 로 계셨지만 큰 뜻 이어나갈 생각..." 을 가지고 집을 나

질적 유혹을 완전

와 산속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히 물리치셨다.

동안 고행과 수련 을 쌓음으로써 완전히 세상의 번뇌를 해탈 하고 깨달음을 이루어, 살아서 부처가 되는 즉, 신성불의 몸으로 다시 현실 세계에 나 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 석가모니를 본으로 삼아 새사람으로 새 로 'Bom Again' 하기 위해 그 길을 열심히 달 려가야 만 하는 것이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참된 믿음 이지, 나는 변하는 것 없이 그저 세상의 물 욕 만을 채우기 위해 매달리는 것은 참된 믿 음이 아니다.

이 진리를 나는 뒤늦게 90에 들어서야 비로 소 깨달았다. 그로부터 나는 평소에 내 생각 내 의식 속에는 세상의 욕망이라고는 다 털 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의 기도는 세상 적인 욕망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감 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뿐이다.

하물며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교회에서 보면 일단 예배가 끝나 고 휴식시간에 들어가면 180도 달라져, 안 믿 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저 세상의 것으로 화제의 꽃을 피우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하고 있어, 저들이 과연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마음이 들며 그 들의 대화에 일절 끼어들지 않고 있다.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하는 자기 우월의 잠 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과연 진실 로 자기 자신이 비방하는 상대방보다 잘나 고 옳은 사람이라고 자신 할 수 있겠는가 깊 이 생각해 볼 일이다. 공자는 남을 비방하기 에 앞서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였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 도 남을 헐뜯기에 앞서 나 자신을 반성하도 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나는 중앙 일보의 오피니언 란에 가끔 그때그때 일어 나는 세상일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의견 을 써서 기고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기고 의 내용이 부지불식간에 남은 틀렸고 내생 각이 옳다는 잠재의식이 작용하여 내 의견 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최근에 와서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되돌아 보자는 자성의 마음에서 기고하는 것도 중 단하고 말았다.

끝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명상'이다. 매일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 가기에 앞서 1시간 정도 깊은 '명상'을 한다. 반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복식호흡으로 1분 에 한 번 정도 숨을 길게 마셨다 내쉬기를 되 풀이하는데, 약 30분이 지날 무렵이 되면 손 과 발을 비롯한 몸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 라지고 생각하는 의식 만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 의식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로 되고, 다시 한 걸음 더 깊 이 들어가면 눈 속 깊은 곳에 밝은 빛이 나타 나 보인다. 이것으로 명상이 어느 정도 깊은 상태로 들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명상은 예로부터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도 교에서 심신의 수련을 위해 실행해 왔는데, 명상이 고도의 단계에 이르러 성인의 경지 에 도달한 분들이 쓴 책을 보면 명상을 하루 에 몇 시간 씩 그것도 한 두 해가 아니라 몇 년을 꾸준히 계속하면 종국에는 어떤 밝은 큰 빛이 자신을 감싸고 자신의 영이 몸을 빠 져나와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는 신비의 경 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예수 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는 경지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상태 에 이르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초능력을 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1. 남가주 동창회 가족 캠핑 행사, 대자연속 친목 도모
- 2. 기고: 내 나이 93세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영철
- 3. 미국경제와 뜨는 경제의 불안정, 백순 / 메케인 상원의원에게 감사한다, 김은한
- 4. 기고: 미국 사법부의 중요성, 이항렬
- 5. 한국에 국제 학술교류센터 짓자, 정상욱
- 6. 지부소식: 남가주 동창회, 남가주 동문 합창단, 민병곤 동문 환영회
- 7. 지부소식: 뉴잉글랜드 동창회 / 동문동정: 박찬욱, 주한수
- 8. 지부소식: 뉴욕지역 동창회, 워싱턴 DC 동창회, 워싱턴주 동창회
- 9. 지부소식: 북가주 동창회 / 동문동정: 이병준
- 10. 기고: 인생(人生)은 윷놀이인가?, 오순문 / 그대 앞에 만 서면, 이태상
- 11. 동문문단: 구두닦이, 김영애 / 호수, 어떤장미, 박윤수
- 12. 기고: 여생을 행복하게, 곽승용 / 가족 상봉(시), 오봉완
- 13. 기고: 외국어 실력, 송상용 / 죄책감, 넌 누구니?, 한정민
- 14. 동문인터뷰: 오광동 동문
- 15. 기고: 명품인생(수필), 김수영 16. Mentoring Network Program SNUAA in USA & SNU Students in Korea, 강신용

- 17. 기고: Travelling into Tanzania, 김수지 / Brief Timeline of Architecture Eras in the Western World, 정도현
- 18. 기고: 불로장생(不老長生)이 가능한가?, 전무식
- 19. 기고: '예멘 난민' 시험지 받아든 한국, 이종호
- 20. 기고: 홍산문화(紅山文化)와 요하문명(遼河文明), 한수웅
- 22. 기고: 임진왜란사 요약, 이성무
- 23. 기고: 임진왜란사 요약, 이성무
- 24. 광고
- 25. 광고
- 26. 회비 후원금 내역
- 27. 회비 후원금 내역
- 28. 미주동문 업소록 29. 미주 동문 업소록
-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31. 광고
- 32. 광고



미국경제와 뜨는 경제의

국민 경제의 성장은 투자와 소비의 증대가

그 주요 요소인데, 최근 터키 경제는 투자

증대를 위한 상업 융자와 소비 진작을 위

한 소비자 융자 등의 금융 신용이 근래 크

게 줄고 있는 현상이 터키 경제의 침체를 부

터키 경제의 총국내 금융 신용이 2007-2008

년에 35%, 2009년에 -15%, 2011-2017년에

10%-20% 증가하여 왔는데, 2018년에 겨우

4% 정도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주축

인 투자와 소비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를

둘째 위기는 터키 경제의 외환 위기가 터키

경제와 비슷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뜨는 경제들에 전염되어 번져 나가게 될 가

능성이다. 무역적자가 크고, 외환 부채가 많

고, 저축률이 적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뜨는

경제들(중진국들)은 1997-1998년 아시아 경

제들에 들이닥친 외환 위기의 확산과 같은

경제위기의 전염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인

도네시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중진국들

이 위기 전염의 가능성을 안고 있고, 고도성

장을 하는 중국과 인도도 위기 전염의 위험

셋째 위기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서

방 경제와 미국 경제에도 터키 경제를 위시

해서 뜨는 경제의 외환위기와 불안정으로

인하여 불안정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터키는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의 교

차로에 있기 때문에 터키 경제의 위기와 침

체는 다른 뜨는 경제들에의 감염과 더불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에 어느 정도 재정시장

의 호황을 가져오게 되겠지만 지나치면 거

품으로 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터키 경제는 서방 경제와의 유대를 떠나 러

시아와 중국 경제에 유착될 가능성도 있다.

이자율의 상승과 무역 전쟁과 거품 등으로

인하여 미국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터키 경

제의 외환 위기, 뜨는 경제의 전염 위기, 서

방 경제의 고통 위기 등이 단기적으로는 아

닐지라도 2-3년 내에 들이닥칠 위험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세계경제계에서 예측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

되고 있다. ◆

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창되고 있다.

불안정

추기고 있다.

보여 주고 있다.

백 순(법대 58) 논설 위원

미국 경제가 지난 2/4분기에 4.1% 성장하 고 실업률이 4.1%로 낮으며, 브라질과 러시 아를 빼놓고 중국, 인도 등 중진국 소득의 뜨는 경제가 비교적 중도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미국경제와 뜨는 경 제에 불안정의 움직임이 있음을 전망하고

미국 경제의 불안정은 세 분야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의 상황으로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앞으 로 계속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미국의 금융 자본 시장에 긴축이 오게 된다는 전망이다. 금융 자본의 긴축은 투자와 소비 등 경제 활 동의 활성화를 축소하게 되어 경제의 저성 장을 초래한다.

둘째 분야는 국제무역 분야로 트럼프 행정 부는 여러 교역 국가들, 특히 중국과 무역 관세를 올리는 등 무역전쟁을 감행하고 있 다. 무역전쟁은 국내산업을 증진하는 국민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 장에 한계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경제 성장론의 주장이다.

셋째 분야는 경기순환론이 제창하는 상황 이다. 미국 경제의 경제 대침체는 2009년으 로 그 이후 경기회복이 10년으로 장기에 이 르고, 투자 및 소비 등 경제 여러 분야에 거 품 현상이 예견되어서 경제계에 2020년 경 제 침체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불 안정보다 최근 경제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터키 경제의 혼돈에서 부터 비롯된 뜨는 경 제의 불안정이 세계경제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터키 경제는 최근 외환위기의 혼란에 빠지어 터키의 리라 화폐가 달러 당 4에서 6으로 그 가치가 무려 34%나 급락하는 위 기에 처하게 된 현황이다. 터키 경제의 외환 위기는 단순히 터키 경제에 끝나지 않고 3 가지 상황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위기는 터키 경제 자체가 심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위기이다. 터키 경제는 얼마 동안 고도성장을 하기 위하여 기업이 외환 을 많이 빌려 썻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외환 부채가 2009년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상태 이다. 이에 더하여 터키의 국가 부채가 2018 년 1천2백억 달러이고 2019년 2천억 달러 로 경제 규모 GDP 8천5백억 달러의 4분의 1 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다만 나는 감히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오로지 내 마음을 정화해 인생의 마지막을 깨끗이 끝냈으면 하는 마 음으로 명상을 실천하고 있다. 세상의 욕망 을 털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전이고 무욕무 심의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으며,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 려움이나 공포심도 전혀 없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다 되 어 있다. 이것도 명상의 은덕으로 생각한다. 가는 날까지 마음의 정화를 위해 심신의 수 련을 이어나갈 생각이며, 하루하루를 마음을 비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지금의 심경이다. ◆



김은한 (의대 60) 회보 고문

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들 에게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계속 나타 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얘기된다. 지난 8월 25일에 사망한 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과 9년 전인 2009년 8월 25일에 사망한 Edward Kennedy 민주당 상원의원 에 대한 이야기이다.

메케인 의원과 케네디 의원은 모두 8월 25일에 사망하였다. 메케인 의원은 82세 생일 4일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마치 매 케인 의원이 에드워드의원과 운명하는 시간을 서로 약속하고 있었던 것처럼 25 일에 운명하였다.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된 병명은 Glioblas-

toma라는 악성 뇌 종양이었다. 그렇 게 자주 볼 수 있 었던 뇌암은 아니 었다. 치료방법은 방사선 치료가 있 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왔다. 암이 발

생하고 14개월이면 사망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케네디 상원의원 사망 당시 그를 위하여 조사는 Obama 대통령과 John McCain 상 원의원이 하였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케 네디를 위한 조사에서 "케네디는 내가 더 좋은 상원의원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 다"라고 회상하며 "The place won't be same without him"이라고 하면서 두 개 의 정당이 미국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ed Kennedy의 부인 Victoria Reggie Kennedy는 메케인을 회상하면서 테드와 메 케인은 처음에는 서로 싫어했다고 실토 하였다. 두 사람은 우리 모두가 미국을 사 랑하는데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점차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찾게 되었다. 특 히 이민법에 대해 공동의 길을 추구하게

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가 더욱 위 대한 것은 최선을 위해 적응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를 좋아하는 민주 당 인사들이 아주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하 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을 예로 들 수 있다. 평 소에 조 바이든 부통령과 메케인 상원의 원은 전쟁이야기를 많이 하고 친하게 지 냈다고 한다.

메케인이 위대한 것은 그가 당보다 국가

메케인 상원의원에게 감사한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실 | 3년 전에 조 바이든의 아들 Beau가 똑같 은 Glioblastoma 악성암으로 사망하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의 친구 메케인을 위 해 "그가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 라는 조사를 남겨주고 있다" "His impact on America hasn't ended"

>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 중 앙 정보국은 테러용의자를 상대로 물고 문을 가한 것이 논란되었던 것은 이미 여 러 번 드러난 사건이었다. 고문을 직접 경 험한 메케인 의원은 테러 용의자 조사 방 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물고 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해스켈 CIA 국장이 인준을 받았을 때 메케인 의 원이 앞장서서 이를 반대하였다. 물론 케 네디 상원의원도 합세했지만, 표결에서 인준이 되었다.



지난해 트럼프 대 통령과 공화당에 서 추진한 오바마 케어 법안, 즉 건 강보험 개혁안이 상정되었다. 트럼 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이었다. 공화당이 50:48 근소한 차이로 폐기하는 쪽이 우세 했는데 메케인 등 공화당 소속의원 3명 이 반대표를 던져 오바마케어가 살아나 게 되었다.

이처럼 메케인은 정당보다는 국가 이익 에 우선했다는 사실은 모든 미국 국민들 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메케인의 할아버 지와 아버지는 모두 해군 제독으로 미국 해군 사상 최초의 4성 장군 부자가 되었 다. 메케인 상원의원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월남 전 때 스카이호크를 타고 출격했다가 지 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었다. 양다리 가 골절되고 팔을 올릴 수도 없었다고 한 다. 당시 메케인의 아버지는 태평양 해군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북베 트남 측은 메케인 의원을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자신보다 먼저 붙잡힌 사 람이 먼저 나가야 한다며 거부했다는 일 화가 있다.

메케인의 일화는 수없이 많이 알려졌지 만 일일이 열거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메 케인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실을 확신 하는 것이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이미 생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이미 조사를 부탁해 놓았다 고 한다.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93호 | **2018년 9월 호** 293호 | **2018년 9월 호**



미국 사법부의 중요성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지난 호에 미국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문 제를 논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법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사회든지 문명사회가 되고자 하면 사법부가 필요한데 이유는 어 떤 분쟁을 분쟁 당사자에게 맡기게 되면 인 간의 복수심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발전 하기 때문이다. 문명이 결여된 중세 이전에 는 소위 탈리오 법칙 (lex talionis)에 의하여 어 떤 자가 다른 사람 손을 잘랐다면 피해받은 자도 가해자의 손을 자르도록 하는 법칙이 준수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칙하에서는 피해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손을 다쳤으면 다른 사람의 손 대신 눈을 해치려는 경향이 있어 공평한 법의 해결이 힘들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삼자가 문제를 중재 조정하던가, 범법자를 처벌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재판소와 사법부가 필요 하게 되었으며 미국도 사법을 중요하게 여 겨 정부의 삼부의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 을 강조하게 되었다. 법은 입법부가 제정하 나 이 법의 적용과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

만약 입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제정 하던가 또, 행정부가 법을 잘못 적용할 때는 사법부가 이런 위법이나 위법적인 행동을 제재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어서 삼권분립의 존엄성은 사법부가 과시하 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의 헌법을 준수하려 는 기능이 마비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잃어버리게 되며 모든 비민주국가의 사법부 들은 행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며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못 하는 것이 공통 점이다.

미국의 헌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 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법부나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월권하였을 때에는 가차 없이 판결을 내려 1973년에 닉슨 대통 령도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선거에 공 모, 결탁하였는지 미국의 선거법에 따른 법 적 조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는 조사팀 도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것 같으며, 현재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범죄를 사면할 수 있다'는 등 Muller 조사팀은 자기가 채용 하였고 법무부 장관과 FBI 국장을 자기가 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사들을 위 법이라고 천명하는 등, 해괴망측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Muller 조사팀은 대통령을 소환하여 Interview나 질문을 하려고 하나 대 통령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Rudy Giuliani) 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사들 은 대통령은 기소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 는데, 그 반대 주장은 전 대통령 클린턴도 특 별 검사팀에게 증언하도록 대법원이 판결하 였다고 주장한다.

미국 헌법 3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대법원과 그 밑의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 지방 법

원(District Court)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 므로 대법원은 가장 높은 법원이며 대법원 장이 사법부의 대표가 된다. 현재 대법원장 은 존 로봇(John Roberts)이며,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였다. 대법원장 이외에 8명의 대 법관이 헌법을 고수하는데,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 샌드라(Sandra Day O'connor)를 임명한 후, 현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소니 야 마리아 소토마요르(Sonia Maria Sotomay-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 사회에 서 문제가 되는 낙태(Abortism) 문제를 보수 파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여 1973년의 'Roe vs. Wade'판결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 다. 이런 이유로 보수파들은 낙태를 반대하 는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를 새 대법 관으로 임명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또 한 폴 카바너는 현재 임기의 대통령은 범법 을 하였어도 기소 소추(Indictment)를 할 수 없고 대통령직이 끝난 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가 대법관으 로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4명의 보 수파 대법관과 브렛 카바너 새 대법관 지지 로 기소 소추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 왜 공 화당 보수파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 보수파 재판관 브렛 카바너를 대법원 판사로 전폭 지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대법원도 정치 바람을 타 게 되며, 많은 대통령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 트, 닉슨, 레이건 대통령과 현재 러시아와 대 선 공모, 결탁 혐의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

럼프 대통령은 공석이 나오기 무섭게 자기 정치 철학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파나 자기 지인들을 임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미국은 3단계의 법원이 있기 때문에 삼심(三 審)을 할 수 있으며 항소 법원이나 대법원은 아래 법원으로부터 항소 되는 재판권을 기 각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 사건을 기각하며 실질적으로 헌법에 문 제가 되는 사건만 다루고 있다. 재판 과정에 서 대법원은 9명의 재판관이 배석하고 항소 법원은 3명의 재판관이 주심을 하고, 지방 법 원은 1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

미국법이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따 르고 있기 때문에 원례, 전례(Previous Cases) 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원칙을 'Stare decisis(rule of precedent)'라고 하며 이런 원칙 때문에 많은 결함이 없으면 과거의 판례를 쉽사리 번복 안 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통법 이라는 것은 과거의 판결을 미제(謎題) 같은 사건에 적용하며, 보통법을 만들어 낸 12세 기 영국의 재판관들은 당시의 관습(Custom) 에 따라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미국 재판관 들은 선례나 관습을 중요시하며, 미국 법률 사무소를 가 보면 도서실에 많은 전례(Previous Cases)의 판결문을 기록한 책들이 보관 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대륙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판결문보다는 현재 존 재하고 있는 제정법(Statutory law)에 의존하 여 재판을 진행한다. 또한 미국 재판은 배심 원(Jury System)들이 유죄, 무죄를 결정하며 한국에서는 재판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양 법원 제도가 장단점이 있으나 미국 법원

제도는 12명의 보통 사람의 배심원의 지혜 가 판사 한 사람의 판단보다 낫다는 신념 하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법 제 도는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 한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Guilty Verdict)이 더 힘들게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예를 들 면 12명의 배심원 중에서 한 명의 유죄 판 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재판장은 유죄 판결을 고수할 수 없다. 이번 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위원장 폴 마나포트(Paul Manafort)가 18개의 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소추되었는데, 10개의 범죄는 11명의 배심 원이 유죄로 결정하였으나 단 한 명의 배심 원의 반대로 8개의 조항에서만 유죄가 결정 되었다. 너무나도 많은 물적 증거에도 불구 하고 단 한 명의 반대로 10개의 기소는 취 소되었다. 미국 재판장은 유죄, 무죄는 배심 원의 결정에 따르나 형량은 자기가 결정한 다. 물론 재판관이 배심원들에게 법 해석과

임명하며, 임명된 자는 상원의 과반수 이상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판사들은 한 번 임 명이 되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탄핵소추(lmpeachment)를 받기 전에는 영구 종신직으로 몇십 년을 법원에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미 국 내 여론 가운데 법관의 임기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법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에 제기되는 소 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사 사건(Civil Case) 경우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며, 형사 사건 도 오랜 시일이 걸려야 재판을 받게 되는 것

많은 지시를 함으로써 판결 결정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사건의

제삼자적인 공정한 입장을 지켜야 하는 것

현재 미국 연방 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이 원칙이다.



최근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긴장

이 과학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

부가가치 산업의 우위로 유리함이 있어 보

인다. 하지만 이미 과학과 첨단 기술 분야

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

러 곳에서 느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

로 2008년부터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천인

계획(千人計劃)을 필두로 하는 이공계 지

원 계획이다. 이미 중국에서도 규모만 커

지는 경제의 한계를 깨닫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 규모를 연평균 10% 이상

씩 늘리면서 유럽을 제치고 미국을 추격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중국 이공계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인재다. 자국 출신 해

외 인재뿐 아니라 우수한 외국의 젊은 학

자들 또한 대거 불러 모으고 있다. 과거 미

국이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아 자국의

첨단 기술 자양분으로 삼으며 일으킨 현

상을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고 불렀는

데, 이제는 같은 현상이 중국을 향해서 일

어날 조짐을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

령 집권 이후 줄어든 과학 기술 자금과 까

다로워진 이민 절차 등과 맞물려 미국 내

에서도 두뇌유출의 우려가 주목받기 시작

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에는 두뇌유출에

관한 기사를 통해 예일대에서 박사를 마치

고 중국 칭화대에 새 연구소를 꾸린 스페

인 출신의 유전학자가 소개됐는데, 필자도

최근에 만났던 상해뉴욕대학의 문필경 박

사와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상해고압과학

하고 있다.

한국에 국제 학술교류센터 짓자

이나 유럽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젊은 한인 관계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의 추격으로부 학자들을 보며 과학계에서도 흐름이 바뀌 터 단 한 번도 패권국의 지위를 놓지 않 고 있음을 실감했다. 았던 미국도 이번에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많은 인구수와 풍부한 자원, 철저한 중앙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계에 다가올 변회 통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위협은 지금 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 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미국

연구소에서 일하는 김덕용 박사 등 미국

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두뇌유출의 양상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인재 블랙홀이 될 중국으로 수많은 유수의 학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인재를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중국으로 모여든 인재

들의 활용방법을 찾아낼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잠재적 인재 블랙홀인 중국 과학계와 여전

히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는 일본 사이에 끼인 한

국의 새로운 역할이란 무엇인가..."

이에서 한다는 것이 새로운 상황이다. 그 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중국은 한국의 옆에 있 는 나라라는 점이다. 긴 비행시간과 시차 및 문화적인 차이점까지 극복해야 하는 서 양국가로의 인재유출에서도 한국은 고전 해 왔는데 앞으로 쉽게 오갈 수 있고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는 매우 불리한 싸 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인재들이나 항공기 조종사 등의 이 직 현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데 여기에도 인접 국가라는 점이 크게 영 향을 미쳤다. 중국으로의 과학계 두뇌유출 이 앞으로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교를 중국과 한국 사

그런데 다가오는 변화를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변화에 대응하

는 적절한 대처에 달려있다. 우리가 시대

의 흐름을 읽어 냈다면 앞으로의 적절한

대처는 무엇일까. 인재 블랙홀이 될 중국

으로 수많은 유수의 학자들이 몰려드는 상

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인재를 지켜내는 것

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중국으로 모

여든 인재들의 활용방법을 찾아낼 때 우리

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잠재적 인

재 블랙홀인 중국 과학계와 여전히 우리

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는 일본 사이에 끼

인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란 무엇인가. 바

로 숙명과도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

회담에서 싱가포르가 중계자로서 역사적 인 회담의 장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많 은 언론인의 방문으로 인한 특수와 간접적 인 홍보 효과를 누렸던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의 위치가 학술대회를 유치하기에 점 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것 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미 오랜 과학의 역사를 가진 유럽이나

하면 과학계 허브의 역할이 새롭게 나타나

는 기회일 수 있다. 마치 얼마 전 북미 정상

미국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학술 교류센터들을 갖추어 학자들을 모으고 있 다. 독일 알프스의 성을 개조한 '성 링베르 크'라든가, 이탈리아의 자국 물리학자 이름 을 딴 '에토레 마요라나 센터',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아스펜 센터' 등은 이 미 학자들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허 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교류센터의 중요성은 단순한 방문자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 되는 학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뿌려지는 과학 발전의 자양분에 있다. 그동안 일본 이나 한국의 과학계는 그 규모의 한계로 인해 국제적인 학술대회 대부분을 유럽이 나 미국을 중심으로 참가해 왔고, 물리적 인 거리는 우리 학계의 적절한 네트워킹 과 주류로의 진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돼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중일 만으로도 규모 를 갖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더 나 아가 전 세계 학자들을 모을 수 있는 시대 가 올 것이다. 허브로서 나름의 역사를 쌓 아 나아가려면 수려한 경관만이 아니라 장 소 자체의 의미와 이야기를 가진 곳이라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할 것인데 창의적 인 시선으로 한반도를 재발견해야 하는 시 점이다.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이 있는 제 주도나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로 각인된 평 창이나 심지어는 포 발사장이 해안 관광 지로 변하고 있는 북한의 원산갈마 해안 같은 곳에 국제 학술교류센터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경제와 정치의 중계자 역할을 하듯이 한국이 학술 교류센터를 통하여 가장 적은 투자로 동방 의 과학 허브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

뉴저지 럿거스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John Roberts (Harvard) 대법원장





Ruth B. Ginsburg (Columbia)



(Harvard)



(Yale)



Brett Kavanaugh

Elena Kagan

or), 엘레나 케이건 (Elena Kagan) 세 대법관 이 여성이다. 현재 앤서니 맥로드 케네디 (Anthony McLeod Kennedy)가 사임한 후, 총 8명의 법관이 있으며 공석에는 브렛 캐버너 (Brett Kavanaugh, 공화당,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여 곧 상원에서 진보와 보수파들의 인준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워싱턴 DC의 대법원 정문 하얀 대리석 위에 는 "법 앞에는 공평한 정의만 있다(Equal Justice under the Law)"라는 좌우명이 있는데, 이 것이 곧 법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여 누구든 지 공평한 정의를 사법부에서 구할 수 있다 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10 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재판을 하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회가 제정한 법이 헌 법에 위반되나 또는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에 따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투표로 결정하며 5대 4로 결정되었어도 그 판결이 헌법의 적용에 중 요한 전례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에 관계되는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으며, 또한 항소 법원에서 항소 된 문제도 다룰 수 있 다. 대법원 판결이 다수결로 결정되므로 많 은 대통령이 대법원 자리에 공석이 있을 때, 자기의 사상,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을 임명 법원 판사에 임명하려고 애썼다. 루스벨트 대통령 경우에는 그의 많은 법안이 보수주 의적인 대법관들로부터 위헌이라고 판결되 자 대법원 판사의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 리려고 하다가 여론과 국회의 반발로 좌절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법관 에 공석이 생겨 4명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 졌었다. 트럼프는 1년 6개월 만에 두 공석 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었으며 작년에 보 수파 판사 닐 골서치(Neil Gorsuch)를 대법관 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대법원장을 비롯해 4 명의 대법관을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하였으 며 다른 4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 재판관이 상원 에서 인준되면 5명의 공화당 보수파 대법관 과 4명의 민주당 대법관이 대법원을 구성하 게 될 것이다. 관례에 의하면 대법관들은 서 로 판결 결정에 의논해서는 안되며 그들은 금요일에 본인들의 법 해석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

미국 연방 법원 구조는 하나의 대법원 밑에 12개의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이 있으며 맨 밑에는 91개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있다. 임기는 종신이기 때문에 법원 판사들 의 영향은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이나 행정 부 대표들보다 더 크며 그런 이유로 현재 트 | 이다. 어떤 의견에 의하면 미국은 변호사가 너무 많고, 하찮은 일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기 사재로 고용하거나 돈이 없 으면 법원이 정해주는 관선 변호인 변호를 받게 되며, 검사들은 행정부의 법무부에 속 하는 법률가들로 그들의 상관은 법무부 장 관 Attorney General로 공무원들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이외에도 각 주들이 그들만의 법원제도가 있으며, 군인 재판소, 다른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 특별 재판소가 있다는 것을 첨부하고 싶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이므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은 부자나 빈 자를 가리지 않고 보호해야 하며 법은 약자 의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지 배하므로 우리도 미국에 이민 온 소수 민족 이지만 법을 잘 이해해야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 였을 경우,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에게 증언할 필요가 없으며, 유도 심문에 빠지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만, 미국 원주민은 인디언이고 다른 모든 시 민은 이민자들의 후예로 모두 떳떳하고 동 등한 시민으로..., Every American is equal before the law regardless of color, race, gender and ethnic origin.

지로 나가서 수학했던 인재들이 다시 돌

아오지 않는 현상을 지칭했다. 2013년 미

국과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박사학위 취득자 중 60% 정도가 한국으

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조사됐다고 한

다. 스위스 경영개발 연구원이 발표한 두

뇌유출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에 3.98점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다.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미국의 연구환경과 경

제 규모에서 오는 이점이 타지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인데,

P.S.: 막 원고를 마치는데, T. V.에서 고 존 메케 인 상원의원의 영결식이 방영되고 있다. 미 국의 이상과 우리가 존경하는 원리(principle) 를 존중하던 한 애국자의 서거를 애도한다. 그는 이민자를 환영하였고 모든 인간은 평 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훌륭한 정치 지 도자였다. ◆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93호 | **2018년 9월 호** 293호 | **2018년 9월 호**



명하며, Winery들이 3,000 Acre에 그림 같이

펼쳐져 있다. Temecula 중심부에 위치한 Old

Town은 Temecula Valley 박물관과 유서 깊

은 건물, 정기적인 자동차 퍼레이드를 비롯

한 다양한 쇼나 공연 등도 볼거리다. 다음

Monte De Oro Winery로 이동하여 와인 시

음도 하고 야외 공연도 구경하는 등 여유로

아침에 해산하였는데, 동문들은 개인 별로

유황온천에 몸을 담그거나 Winery 등 관광

을 더 즐기기도 하고, 일부 동문들은 페창

가에서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최용준 총무국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동

창회 임원진들이 몇 차례나 준비모임을 갖

고 현지를 답사하기도 했다. 준비 과정, 실

제 행사 진행 등이 순조로워서 이민자 커

뮤니티인 한인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모범

행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호 행

사위원장(인문대 81)은 "단과대학별 동창회

나 총동창회의 정기 총회와 달리, 3일을 함

께 있다 보니 동문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진다.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2박3일의 짧은 여행

이었지만, 동문들은 푸르른 대자연 속에서

산의 맑은 정기를 마시며, 유황 온천욕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끝으로 정보와 사진을 제공해 준 오흥조(치

대56) 전 총동창회장님, 김동근, 양수진, 박

찬민(공대 81), 김양희(음대 77) 행사위원, 김

옥권(미대 76) 문화위원, 유혜연, 손영아 동

문과, 중앙일보에 게재한 글을 참고하게 해

준 장병희(인문대 86) 동문에게 감사의 뜻

Elim 유황 온천을 떠났다.

디저트를 서브하는 임원들

을 전한다.

운 시간을 보냈다.

9월 3일 (월)

도 했다.

삼삼오오 즐거운 식사시간

화된 Trail은 league 시합을 위한 좋은 Trail이 었다. 8 마일 정도 탔으나, 아쉬운 마음에 Vail Lake까지 또 갔다 왔다. 셋째 날은 Ramona trail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적당 한 곳에서 타기로 하고 Holy Fire 지역을 피 해, 91번에서 내려 Green River Golf 장에서 Chino Hills 무릉도원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Scully Ridge Trail로 올라가 Lower Aliso Trail로 내려 왔는데, Scully는 처음 1마일 정도 급경 사였고 그 다음 3마일도 계속 Ridge를 따라 Uphill이 계속되어 힘이 들었다. lower Aliso 는 완만한 경사였다. (9 miles)





임원진 소개

4. 관광: 아침 9시, 최용준(총무국장, 수의대 81) 동문의 인도로 47명의 관광팀은 단체 버 스로 1시간 후 Palomar 마운틴에 도착하였 다. 손영아(음대 85) 문화위원이 투어 리더 를 맡아 관광스케줄을 정하고 설명을 했다. 해발 5,600여 피트의 높은 산에 위치한 Palomar 천문대 피크닉 장소에서 San Diego에 서 온 최흥수 동문이 2개의 망원경을 준비, 천문대 망원경에 대해 강의했다. Palomar 천 문대는 San Diego County의 Palomar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Caltech이 운영하는 천문 학 연구의 중심지이고 200 인치 헤일 망원 경 등 세 가지 연구용 망원경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Caltech은 물론, 제트 추진 연구 소 Jet Propulsion Laboratory, JPL와 Cornell 대 학교를 포함한 협력 기관에 연구를 허용한 다. 이 산은 한때 스미스 산이라고 불렸으 나 1901년, 스페인어로 비둘기의 땅이란 뜻 인 본래의 이름 Palomar로 다시 바뀌었다 고 한다. 헤일 망원경이 있는 천문대와 작 은 Museum으로 나뉘어 있는 천문대를 관 람하고, 천문대 직원의 배려로 태양 관측도 했다. 자유 관람을 마친 후 단체 사진 촬영 이 있었다.

Temecula Old Town에 도착

Temecula 는 Championship 골프 코스로 유

남가주 동문 합창단 미주 유일 단체로 2018 한민족 합창 축제에 출연



【기사: 김옥경, LA】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 창단(단장 김옥경)이 국립합창단 초청으로 '2018 한민족 합창축제' 무대에 섰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후 올해 4회 째를 맞은 이 축제는 한국 국립 합창단 기획 공연으로 축제 기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 는 한인 합창단을 초청하여 국립합창단과 함께 한민족의 민족적 정서와 역사를 담은 작품의 연주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한민족 화합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해마다 열리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우리 합창단에게 경기도 연천 군에 새로 개설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서 지난 8월 14~16일 미국, 중국 연변과 북경, 독일에서 초청된 한민족합창단들과 합동 숙 식을 제공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전체 예비 연습을 하였다.

"27명의 단원과 장진영 지휘자, 김언정 반주 자 등 총 29명"을 거느린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국립합창 단과 여러나라에서 초청된 한민족 합창단들 과 함께 한민족 합창제에 앞선 준비 및 공연 에 만전을 기했다.

첫번 한민족합창제 공연은 8월 14일 연천군 민들 앞에서 했고 8월 15일과 16일 서울의 The K-Hotel에 묵게 하면서 예술의 전당 콘서



예술의 전당 앞에서 기념촬영

트홀에서 이틀간 걸쳐 코리아쿱 오케스트라 가 합류하여 공연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합창단은 별도로 선 무대에선 "추심(가을이 오는 소리)", "우리는" 과 "Shenandoah"를 불렀고, 연합합창단들과 선 무대에선 "약속", "아리랑", "한국환상곡"등 의미 깊은 곡들을 함께 노래했다.

우리 합창단은 미주의 유일한 단체로 한민 족합창축제에 초청되어 연주한 것을 영광스 럽게 생각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 미 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기회를 감사하며, 열정적인 지휘자, 반주자의 지도 하에 맹렬한 연습과 동문들의 성원으로 관 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은 것이 우리에 게 보배스러운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민병곤 동문 환영회



【기사: 홍선례, LA】 지난 7월 29일 LA의 Koreatown에 위치한 용수산 한식당에서 북가 주 동창회 이사장, 민병곤(공대 65) 박사 부부 의 환영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민병곤, 전혜경 박사(Mrs. 민, 문리 67), 한효동 (공대 회장, 58), 노명호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 대 61), 김병연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대 68), 위종민(공대 총무, 64) 동문이 부부 동반 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12월 14일로 예 정된 남가주 공대 동창회 50주년 기념 행사 와 50년사 책 발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



민병곤 동문 부부

었고, 앞으로 가주의 3개 총동창회 (남가주, 북가주, San Diego)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 고, 남가주 총동창회의 매년 행사의 하나인 Labor Day Weekend Outing(평균 250~300 명 동문과 가족 참여)을 세 동창회가 합동으 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 동창 회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5일 California 45 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Dave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의 법학 대학원 교수)의 부모인 민병곤 이사 장 부부는 전날 280여명의 남가주 동문 가족 과 함께 Hollywood Bowl 행사(Musical Annie) 에도 참가하였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산우회 창립 및 첫 산행



【기사: 정태영 (문리 71), 뉴잉글랜드】 지난 6월 박영철 회장의 회기를 마치면서 결 성된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윤은상, 상대 66) 산하 등산 동우회인 산우회는 지난 7월 4 일 첫 산행을 가졌다. 산우회장은 김정선(문 리 66) 동문이 맡았다. 미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오른 산은 뉴 햄프셔에 있는 Mt. Major.

일행은 뉴햄프셔 접경지역인 메사츠세츠 북 쪽 앤도버 Park & Ride 에서 만나 카풀을 한 다 음 1시간 30분 정도 운전을 해 화이트 마운틴 산 자락 중 하나인 Mt. Major 입구에 도착했다. 산 높이가 5,700 피트인데 주차장에서 올라가 는 고도는 대략 1,800 피트 정도였다.

기온은 며칠전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어 땀

마운틴 메이저 정상에서.



흘리기에 딱 알맞았다. 산행을 시작하자 바 로 땀이 배었다. 산행 도중 김정선 회장은 각 자 아호를 하나 만들어 부르자고 제안하여 즉석에서 몇 사람의 아호가 정해졌다.

마운틴 메이저는 예상보다 정상 부근에 가

뉴잉글랜드 동창회 임원회의 개최



2018년도 첫 임원회의 중 다같이 찍은 단체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영인 동문, 노동완 동문, 김제성 동문, 안혜 형 동문, 이제봉 동문, 이강원 동문, 김정선 동문, 윤은상 회장, 박순혜 (윤은상 회장 배우자), 신은경(노동완 동문 배우자)

【기사: 노동완 (공대 84),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지부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지난 7월 21일 (토) 에 Lawrence, MA 소재 Rega's Grill에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여 첫 임원 회 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첫 모임에도 불구하 고 임원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동문 및 가족 들이 참석하여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제봉 동문께서 준비한 점심과 다과를 나누며 다 음 회기 행사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 는 시간을 가졌다.

2018-2019 회기 회장을 맡아 수고하실 윤은 상 회장님의 개회로 임원 분들의 소개 시간 을 가졌으며, 회기 중 진행할 행사에 대한 활 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기에 봉사 하실 임원 분들은 회장 윤은상 ('66 상대), 차 기회장 이강원 ('66 공대), 총무 노동완 ('84 공 대), 재무 김제성 (87 공대), 섭외 김유경 (72 음대), 음악 안혜형 (87 음대), 회원 이제봉 (72 공대), 감사 김선혁 (59 약대), 장학위원 회 위원장 이영인 ('74 사대), 산우회 회장 김 정선 ('66 문리대), 부회장 정선주 ('68 간호) 등이다.

식사 후에는 함께하는 동문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문회에 대한 신임 윤은상 회 장의 인사말과 회기 중 진행할 행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중요 결정사항으로 다 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 가을 야유회 및 이사회: Sept 8 (Sat), 2018, Auburndale Park (Newton)
- 연례 총회: Dec. 8 (Sat), 2018, 장소는 다음 임 원 회의에서 확정 예정
- 이사진 보강에 대한 논의: 건설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취합하기로 함
- 이사 임원회 개최: April or May, 2019,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장학생 선발: 위원장 (이영인 동문) 주최로 개선 방향 및 선발 과정을 의논

박찬욱 (사회 72)

【기사: 박수진】 모교가 총장 후보 자진 사퇴 와 성낙인 전 총장의 퇴임으로 인한 총장 공 석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처를 내렸다. 모교는 성낙인 총장 퇴임 다음날인 지난 7 월 20일 박찬욱 교육부총장(사진)이 총장 직 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가동했다. 이어 지난 7월 27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박찬욱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교수협의 회와 평의원회, 학원장회로 구성된 3자협의 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성낙인 전 총장은 지난 7월 18일 인사위원회에서 7월 22일자 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박 부총장의 임 기를 연장하고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확정 했다. 이에 따라 박 부총장은 새로운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총장 후보 사퇴에 따른 사태 수습에 나선다.

박찬욱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맡아

이사회

"올해안에 총장 재선출"

까워지자 가파라졌다. 바위 타는데 미끄러지 지 않도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여 정 상에 도달. 김선혁(약대 59) 동문과 김문소(수 의 61) 동문이 노익장을 과시해 거뜬히 정상 까지 올라 튼튼한 체력을 과시했다.

정상에 오르니 라코니아 호수의 멋진 풍광 이 한 눈에 들어왔다. 산 밑으로 뉴 햄프셔의 수풀로 우거진 벌판이 시원스레 전개되었다. 정상에는 의외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올 라와 제법 붐볐다.

김정선 회장은 산우회 플랑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 일행은 이를 앞에 놓고 정상 기념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어 정상 언저리에 나 무 그늘과 앉기에 알맞는 바위를 찾아 자리 를 잡고 각자 준비해 온 점심을 먹으며 친 목의 시간을 가졌다. 박영철 전 회장은 이전 산행에서처럼 김과 넛트류의 스낵을 나누어 권하기도... 두런 두런 이야기와 식사를 마치 고 하산. 하산 후 화이트 마운틴 관광 지구이 기도 하고, 인근에 아름다운 라코니아 호수 가 있어 그곳에 가서 호수 구경도 하고 이곳 명물인 아이스크림도 맛보며 모처럼 여유로 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는 김선혁(약대 59)/김원옥 부부, 김문소(수의 61)/김계숙(간호 63) 동문 부부 박영철(농대 64)/정선주(간호 68) 동문 부부, 김정선(문리 66), 윤용훈(공대 67), 정태영(문 리 71)/이영인(사대 74) 동문 부부, 최진민(공 대 71), 홍도화(사대) 비지팅 방문 동문

주한수 (수의대 62) 동문 제28회 일가상 농업부문 수상

주한수 (수의 62)

【출처: christiantoday.com】 한국 일가재단(이사장 손봉호)이 7월 31일 제28회 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농업부 문에 미네소타 대학교 명예교수인 주한수 동문이 차지했다.

일가상 농업부문 수상자인 주한수 명예교 수는 수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미 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한 국에 선진 수의 교육과 최신 기술을 전수하 여 양돈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퇴임 후 엔 농장에 대한 직접적인 컨설팅과 정책 자

문 및 수의사 교육을 통한 후진 양성에힘쓰 며 한국 양돈 산업의 선진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일가상은 가나안농군학교 창설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故 일가 (一家) 김용기 선생(1909~1988)의 복민주의 (福民主義) 사상을 계승하고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 하는 국제상으로 1991년 제정되었으며, 청 년일가상은 일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젊은 실천가를 발굴하고자 2009년에 제정 되었다.

- 산우회 보고: 2018 회기 중 업무 계획 발표 (김정선 동문)
- 주소록 업데이트: 기존 데이터 베이스를 통 합하여 발간하기로 함
- 동문들의 원할한 동문회 활동 안내를 위 해 전자메일 및 메일을 함께 사용하기로 함

특히, 산우회의 김정선 동문이 참석하여 산 우회의 비전 및 2018 회기내 행사에 대한 설 명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며, 동문회 활동에 새로운 활 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다.

행사 후 윤은상 회장님 (\$1,000)과 이제봉 동 문 (\$200)의 기부금 전달 및 감사의 뜻을 전 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문회에서는 모든 동문들의 참석 및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자 세한 일정과 그 밖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 지 난 행사 사진들은 http://sites.google.com/ site/snuaane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소록 업데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욕지역 동창회 신응남 차기 회장 후원의 밤



【기사: 허유선 (가정 83) 편집위원, 뉴욕】 지난 8월 25일, 내년 7월 임기를 시작되는 서 울대 미주동창회 15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 응남 (농대 70) 동문 후원 초청 만찬이 45명 의 뉴욕의 원로 회장단과 동문들의 참석으 로 대나무가 병풍을 이루고 있는 신응남 회 장 자택 뒷마당에서 부인인 이희만 (간호 70) 동문이 준비한 정성 어린 가든파티 디너로 열렸다.

이준행 (공대 48), 김종률 (사대 51), 최수용 (상대 55), 오인석 (법대 58) 동문이 공동 후원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축사를 통하여 신 차기 회장을 통한 미주동창회의 뉴욕 유치 를 크게 환영하였다. 특별히 최한용 (농대 58) 동문의 와인과 샴페인의 후원은 많은 동문 들의 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손대홍 (미대 79) 뉴욕지부 회장의 후원을 위 한 축사와 골든 클럽 회장인 손경택(농대 57) 회장의 격려사, 이대영 (문리 64) 뉴욕지부 직 전 회장의 건배사가 있었고, 많은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신응남 차기 회장은 답례사를 통하여, 뉴욕 지부의 화합과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참석하신 원로 동문 선배님들의 깊은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의 원로시인 곽상희 (문리 53) 동문의 시 낭송이 있었고, 추재옥 (의대57) 장로 동문의 식사 기 도 후, 트럼펫과 색소폰으로 연주되는 추억 의 팝송을 들으며 만찬을 즐겼다.

오랜 시간 뉴욕지부의 원동력이 되어온 골 든 클럽의 원로 동문들은, 내년부터 시작될 2년간의 신응남 회장을 적극 후원하여 뉴욕 지부의 동문을 비롯한, 미 전역의 많은 동문 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뉴욕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살려서 부합된 여러 행사를 준비 할 수 있는 활기찬 덕담과 격려로 모임을 더 욱 의미 있게 하였다.

신응남 차기 회장은 2019년 6월 21일부터 3일간 포트리 더블츄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 28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 공동 준비와 6월 22일 카네기홀 음악 공연 준비 등 앞으로 2년간 뉴욕에서 진행될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워싱턴 주 동창회 9월 SNU 포럼 개최



【기사: 김재훈 (공대 72) 회장, 시에틀】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 이 주최하는 7월 'SNU 포럼'이 지난 14일 벨 뷰 뉴포트웨이 도서관에서 열렸다. 초청 강 사인 워싱턴대학(UW) 기계공학과 정재현 교수는 이날 '마이크로 나노 기술'을 소개 하며, 이 기술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 이 와있는지를 실감케 해줬다. 사람의 움 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휴지 개발로 큰 관 심을 끌었던 정 교수는 이날 "바이오 마이 크로 나노 테크닉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센 서 등이 10~20년 안에 우리 가정으로 들어 와 삶과 생활방식이 확 바뀌게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정재현 교수

1990년대 개발되기 시작한 나노(10억분의 1)기술은 최근 들어 에너지, 의료기기 및 스 마트 장비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마이크로 나노 기술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침투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대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 다.

9월 'SNU 포럼'은 8일, Newcastle Library에서 의사인 Dr. 이회백 동문이 '유대인의 역사' 에 대하여 강연을 한다. 독서광으로 소문이 나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Walking Dictionary)으로 잘 알려진 Dr. 이회백 동문은 유대 인의 역사와 그에 연관된 문제들을 중심으 로 강의를 한다.

워싱턴 DC 동창회 2000년대 학번 <샤로수> 모임



【기사: 한정민 (농대 87) 편집위원, 워싱턴

워싱턴 지부에서는 '더 많은 젊은 동문들 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동창회의 평균연령 을 낮추자'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 어 왔다. 지난 34대 (회장 안선미)에는 임원진 대부분이 80년대 학번이었고, 이번 35대 (회 장 정평희) 임원단에는 2000년대 학번 모임 인 <샤로수> 회장 류영준 (전기공학 02) 동 문을 Liaison으로 세웠다. 몇 년 전부터 시작 된 80~90년대 학번 모임 <아크로폴리스>와 함께 점점 젊어지는 워싱턴 지역 동창회 모 습이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지난 8월 14일 (화) 저녁 7시에 <샤로수> 모 임이 매릴랜드 College Park 근처에 위치한 < 가람>에서 있었다. 직장과 학교를 마치고 달 려온 12명의 후배들 중 미혼자는 3명이고, 대 부분 NIH 포닥이나 UMD 박사과정 학생들이 었다. <샤로수>의 뜻은 '관악캠퍼스 교문(서 울국립대의 첫 모음인 'ㅅㄱㄷ')이 '샤 '로 보 여서 학교 앞 가로수길을 일컫는 합성어라 고 한다. 역시 신세대다운 톡톡 튀는 이름에 서 생기가 느껴진다.

지금까지 총 5번의 모임을 가졌고 (버지니아 2번, 메릴랜드 2번, DC 1번), 앞으로도 계속 세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진행할 예 정이라고 한다. 류 동문은 '거리도 멀어서 참 여자가 저조할까 봐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매번 예상보다 참여자가 많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처음 미국 유학을 와서 동문이 란 울타리가 그리울 때가 많았다. 낯선 미국 땅에 처음 오면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데, 새로 정착하는 동문들뿐 아니라 동

김재훈 회장은 본 강연 소개에서 "2014년 에 추산한 CIA 세계 인구조사서에 의하면 전세계 유대인 수는 14.5 million, 미국에 있 는 유대인 수는 5.7 million 으로 나왔다. 이 렇게 유태인이 미국에 많은 이유는 이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많이 이민을 왔기 때 문이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기에 많이 왔는데, 이민초기에는 미국에서 도 차별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었으나 이들 은 이를 극복하고 지금은 금융, 언론, 연예 계, 학계, 정치계 등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유대인의 창의성에 대한 많은 연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천년동안 펼쳐진 반유태인 정서는 이들에 대한 미움, 멸시, 박해, 감금, 추방, 학 살로 이어졌었고, 1789 불란서 혁명 덕택으

선배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으니 '대부분 젊 은 세대들은 진로와 직장에 대한 비슷한 고 민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네트워킹이다. 각 분야 에서 자리 잡은 선배님들이 젊은 세대 후배

게 손을 내밀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모

임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돼주시면 감사하겠 다'라는 부탁을 전했다. 그날 모임에서 박계 명(물리 02) 동문은 'NIH의 학술대회에서 참 석했을 때 멀리서 임종식 (의대 51) 선배님을 뵈었지만 가까이 가서 말을 나눌 수 없을 만 큼 높은 군번이셔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 2시간 넘게 과학과 의학이 야기를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 였다. <샤로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는 '모임을 더 키워서 취미 활동을 같이하는 소모임이라던가 싱글 남녀 매칭 이벤트 등 의 다양한 이벤트들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 다'라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평희 회장과 매릴랜드 지 역에 사는 오인환 (문리 63), 최규영 (공대 72, UMD 교수) 선배 등 6명의 선배 동문들이 함 께 참석하여, 후배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줄 뿐 아니라 젊은 동문들 사이 사이에 앉아 전 공 분야, 미국 생활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멘 토의 역할을 감당해주었다. 한국에서 온 지 8 일 된 2011학번 백승하 (물리) 후배부터 57년 에 도미한 임종식 (의대 51) 대선배까지 '서울 대'란 거대한 지붕 아래 3세대의 선후배들이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이었디

로 1791년엔 유태인 동등권 부여를 받자 이 들도 차별없는 사회에서 살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894 년에 일어난 Dreyfus 사건은 유대인으로 하 여금 자기 나라가 없이는 결코 평등할 수 없 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다. 우여곡절끝 에 1948년에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 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착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고 유대인은 그 해결책을 높은 울타리에서 찾았다. 어떻게보면 전 보다 더 큰 프레임 (Virtual Ghetto)에 갇힌 격이어서 이를 극복할 지혜가 그들에게 있는지는 두 고 볼 일이지만, 지금으로선 전혀 보이지 않 는다는 견해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기에 그들을 이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LA】

Irvine에 우뚝 솟은 검은 유리의 멋진 빌딩 SeAH, 이병준(상대55) 미주동창회 제3대 회 장님의 회사를 방문했다. 맑은 공기와 야지 수 나무가 있는 주위의 Highlight 빌딩들이 저 절로 "와~"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많은 회사 속에 뒤지지 않게 자랑스럽게 SeAH 라는 마 크가 빌딩 맨 위에 붙어 있음을 볼 때 이병 준 회장님의 그 생애와 노고를 한눈에 느끼 게 했다.



회장님 실을 노크하고 들어갔을 때 두 내외 분께서 사진 정리를 하고 계셨다. 예전 사모 님은 현대무용, 고전무용의 대가이셨다. 한 복을 예쁘게 입은 모습의 사진이 눈에 띄었 다. 회사에서의 참 여유로운 포즈의 사진이 바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듯했다. 지난 서울대 미주동창회 보스턴 평의원 회 의 때 이병준 회장님께 본국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의 공로패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 공로패는 한쪽에 회장님의 얼굴이 Scratch 되어 참 특이했다. 만족해하시는 표정이 근 엄하시면서도 마음은 아이들이 상을 받으면 좋아하듯이 흐뭇해 하셨다.

그동안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끊임없이 물심 양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 동문 모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회사의 내력 및 발전과정, 앞으로 SeAH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SeAH가 무슨 뜻이냐고 여쭈어보았다.

SeAH가 하는 일은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나 |

해하기위해 유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2018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9월 Dr. 이회백: 유대인의 역사에 대하
- ▶ 10월 Jennifer Sohn 변호사 (Attorney at



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데 꼭 필요 한 일들인 만큼, 건실한 기반 위에 성장하여 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건강을 선사 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임과 상표이름에도 깊은 애국의 뜻이 담겨 있음에 참 마음에 들었다. 회사의 내역은 전우현 Manager 님의 회사 소개로 대신한다.

Seah Steel America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 관 전문기업 세아 제강의 미국법인으로 올 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아제강 의 창립 멤버이자 Seah Steel America 설립 자인 이병준 회장님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건전한 재무 구조와 철저한 품질 관리가 기 업의 기본이고, 이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것을 경영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세아의 수도용 강관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 급함으로 건강한 삶에 일조한 것과 주요 도 시건설 현장에 당사 제품이 필수 자재로 공 급되어 한국의 도시화 계획에 이바지한 것 을 크게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아제강 초창 기를 소회했는데, 당시 한국에 필요했던 생 산품질 매뉴얼과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한 것 도 바로 이 회장의 원칙을 지키는 신조의 결 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병준 회장이 설립한 Seah Steel America 는 본사 세아제강의 수도용 강관, 유정용 강 관, 기계용 강관 등을 수입, 유통하는 미국의 판매법인입니다. 세아 고유의 엄격한 품질

Law): 유산 상속에 관한 법적인 문제 ▶ 11월 – 최영옥 박사 (시애틀 통합 한국학 교): 한문학으로의 여행 – 박지원의 열하일

기를 중심으로 ▶ 11월 (종강 파티 장소) – 임헌민 총무댁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

북가주 동창회 하계 야유회



【기사: 곽준경 (법대 75), 회장】 북가주 동창회 하계 야유회가 8월 18일 토)에 Cupertino에 위치한 Stevens Creek County Park에서 많은 동문 및 가족(총 84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어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래만에 만난 동 문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북가주에 번지는 산불사태로 인하여 야유회 10일전에 No Charcoal Fire 금지령이 발효되 어 예년과 같은 BBQ를 하지 못하여, 참석하 신 많은 동문들이 아쉬워하였으나, 음식을 Donate하신 동문들이 손수 조리하고 정성껏

한 음식들을 참석한 동문분들이 Zip-lock에 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명절이나 잔칫집 분위기같은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프의 경우도 역시 이곳 California Rialto에

가졌다.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맛있게 즐겼다.

점심식사후, 박찬호 (자연대 81) 동창회 총무

의 사회로 동창회 임원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고, 참석하신 모든 동문분들의 각자 개

인 소개가 이어졌으며, 간단한 여흥 시간을

특히, 20여 동문분들이 음식과 음료를 do-

nate하셨고, 야유회를 마치고 정성껏 준비

매뉴얼과 경영 시스템을 통해 1960년대부 터 이미 양질의 제품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 에 한국 최초의 강관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본사의 고 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자 1974년에 미국에 진출해 44년 넘게 북미 시장 마케팅 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다양한 종 류의 강관 제품을 미 전역에 활발히 공급하 고 있습니다.



SeAH 를 해외에서 더욱 발전시킨 직원분들

그리고 수입, 유통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와 need에 최적화된 solution 제공을 하기 위하 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에 Texas에 위치한 연 2십만 톤 생산 규모 의 강관 공장을 인수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약 2천 만 배럴에 달하는 미국의 하루 석유 수요량 의 절반은 당시 Easy oil인 중동산 crude oil 수 입으로, 나머지 절반은 미국 내 자체 생산으 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부터 기술개발을 통해 Tight oil (Shale gas포 함)이라는 새로운 석유 자원을 확보, 석유 생 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 석 유수입량은 7백만 배럴 수준으로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호무역 기 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미국의 석유개발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 상 운송 시 채산성이 떨어지는 대구경 파이 서 생산하고, 시멘트라이닝 코팅 공장을 설 립하여 미국 상하수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

4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원칙 준수와 겸 허, 품 넓은 회사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회사의 기본 이념들 을 지켜나가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간 밀월관계를 지속 발전하는 데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이병준 회장님의 포부입니다.



멀리서 얼바인까지 회사를 방문해 준 필자 에게 두 내외분께서 이태리 레스토랑의 푸 짐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다. 한 층 더 건강하신 두 분께서 알콩달콩 지내시는 모 습이 참 아름답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aa.org www.snuaa.org

동문 문단

11



인생(人生)은 윷놀이인가?

오순문 (사대 68)

금년 봄 뉴욕에서 한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허드슨 강가의 Dia:Beacon 현대 미술 관 (사진 참조) 을 찾았다. 평소에 현대 미술 이라면 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왔던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옛날에 공장으로 쓰 이던 곳을 미술관으로 개조했다던데 넓은 공간에 빛을 주제로한 설치 미술품들이 전 시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정육점을 연상시 키는 붉은 형광등, 하얀 벽에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흰색 형광등, 괴기영화에서나 나오 는 푸른 형광등들로 가득차 있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다 차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는 나 는 내 나름대로 작품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품마다 "빛과 어두움, 그리고 그 중간지 대" "빛 속의 빛" "어두움 속의 어두움, 블 랙홀(Black hole)" 등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재미있게 관람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왜 많 은 사람들이 이곳을 추천했었는지 어렴풋 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었는지 모른다.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피라미드(Pyramid) 라던가 페르시아(Persia) 왕자나 허황후(許 皇后) 얘기만 봐도, 국경도 여권도 없던 천(千)여년 전(前) 시대(時代)에 이미 동서양간 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

사람이 산다는건 비슷한 패턴(Pattern)을 만 들어 가면서 사이클(Cycle)을 반복해 가는 과정인 거 같다.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가족친지, 건강, 돈, 직장 등과 음양오행 (陰陽五行), 흥망성쇠(興亡盛衰), 길흉화복(吉凶禍福) 등이 서로 변수(變數)로 작용하면 서 다양한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반복된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는데, 흑(黑)돌과 백(白)돌이 가로세로 19줄에서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無限 大)로 같은 바둑을 두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바둑에는 정석(定石)이라는 것



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두세 개의 홀(hall) 바 <u> 닥을 온통 붉은 형광등으로 채운 방을 만나</u> 게 되었는데, 형광등들은 6개씩을 한단위로 해서 긴 몽둥이 모양과 반토막 짜리로 되 어 있었다. 태극기에 나오는 8괘(卦)는 3개 의 작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6 개의 형광등들을 긴 토막과 짧은 두토막 짜 리로 배합해 모두 64괘(卦)를 만들어 방바닥 에 진열해 놓았다.

나는 문득 서양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 서 무엇을 생각할까? 궁금해졌다. 숫자 2, 4. 8, 16, 32, 64, 128... 등으로 이어지는 2진법 을 떠올렸을까? 아니면 64비트(bit)를 단위 로 한 컴퓨터 칩(chip)을 생각했을까? 세상 의 이치(理致)를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 로 밝혀보려했던 천년(千年) 전(前)의 주역(周易)과 64비트(bit) 칩(chip)으로 세상의 모 든 지식정보(知識情報)를 담아내려는 현대 과학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서양과 동양은 보통 생

이 있어서 수십개의 기본 패턴으로 이루어 진다. 주식에서도 주가(株價)에 영향을 미치 는 환율, 금리, 경기(景氣)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패턴(Pattern)으로 상승하 강(上昇下降) 곡선을 반복한다.

사람들은 매일 매달 매년 새로운 선택(選擇) 과 결정(決定)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보면 매일매일 윷놀이를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른다. 만약 누가 일생을 살면서 중 요한 일 대여섯 가지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다면 그는 평생 고통속에 살 것이고, 그 반 대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혹자(或 者)는 다른 표현으로 "인생은 내기 사다리 타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흑돌과 백돌 이 바둑판 위에서 만들어 내는 무한대의 경 우(境遇) 수(數). 그리고 작은 면적의 얼굴에 서 눈 코 입 귀만 조금 변했을 뿐인데 똑같 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걸 생각해 보 면 4개의 윷이 만들어 내는 16의 가짓수는 그런대로 삶의 패턴(Pattern)들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패턴을 반



그대 앞에 만 서면

이태상 (문리 55)

"그대 — 앞에만 서면 — 나는 — 왜 작아 지는가"

트로트 가수 김수희가 불러 히트한 노래 다. 이 가사를 노벨상을 비롯한 모든 상에 적용해보자.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 럼프 미대통령이 거론되고 노벨문학상 수 상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비보(?)에 수많은 작가와 출판사들이 비명(?)을 질렀 다는데 도대체 '상'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생각 좀 해본다.

를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 가 비로서 생기는 게 결코 아닌데 말이다.

비근한 예로 소위 일컬어 '예술 작품'이란 것도 굳이 말하자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 이라도 자연과 삶의 '모조품'에 불과하다 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실물'보다 그 '그림자'를 더 애지중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를 일이다.

그뿐만아니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설혹 있 다 해도, 어떤 분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비보(?)에 수많은 작가와 출판사들이 비명(?)을 질렀다는데 도대체 '상'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더 즐겁고 흐믓하며 행복하지 않던가. 그 래서 선물이고 상이고 언제나 남에게 준 다기보다 자신에게 주는 게 되지 않던가.

애인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손자손녀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면 다 늘 느끼는 일이리라. 궂은 일은 차라리 내 가 겪고 좋은 일만 네가 누리기를 빌면서 아무리 주고 또 줘도 부족해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던가.

그건 그렇다 하고 우리가 그 어느 누구의 ' 추천'이나 '상'을 받아 남의 '인정'과 '평가' 해 아무도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없 는데 그 누가 감히 너무도 주제넘게 이렇 다 저렇다 할 수 있으랴.

자신을 포함해 우주만물을 제대로 순간순 간 사랑하고 섬기지도 못하면서 '허깨비' 같은 독선 독단적인 존재를 모시고 경배한 다는 게 말이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어서 온갖 허깨비 굿 타령' 졸업하고 홍익인간의 인내천 '인생 학업'에 열중할 일이어라.

복적으로 경험(經驗)하게 되고 지혜(知慧)가 쌓인다. 앉아서도 천리(千里)를 내다보는 안 목(眼目)이 생기고, 작은 일에는 결코 흔들 리지 않는 내공(內攻)도 쌓인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저지른 뻔한 실수(失手)를 똑같이 저 지르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워 하고, 한 마디만 듣고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별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자괴감(自愧感)에 빠지기도 한다.

지금도 수천년 전 요셉(Joseph)의 얘기가 회 자(膾炙)되는걸 보면 인간 본성(本性)이나 살아가는 기본 패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모양이다. 큰 변화가 없던 농경사회에서는 기본 패턴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개략 적(概略的)으로는 앨빈 토플러(AlvinToffler) 의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4차 산업사회) 등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계속해서 변하게 마 련이고, 돌연변이와 변형(變形), 그리고 판 이 통채로 바뀌는 패러다임(Paradigm)의 변 화도 계속된다. 최근에는 자연과학 분야에 서 유전병과 DNA 서열(Sequence)과의 관계 를 규명하는 등 수퍼 컴퓨터를 많이 이용 하는데, 앞으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도 Big Data 기법을 활용해 유익한 패턴들 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때로는 폭포 같이,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 이, 사람들은 누구나 물흐르 듯이 인생을 살 아왔다. 각자(各自) 닮은듯 다르고, 다른듯 닮은 궤적(軌跡)들을 만들면서 이제 바다로 향하고 있다. 혹, 운(運)이 좋다면 수천만 년 의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산속 어느 시냇물 에서 다시 만나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들이 소중(所重)하다. 모든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누리고 사랑하고 나눌 때라는 생각이 든다,

따뜻한 봄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미술 관으로의 가족여행은 예술의 즐거움과 함 께 내 인생을 반추(反芻)해 보는 좋은 기회(機會)였던 거 같다.



293호 | **2018년 9월 호**

구두닦이

김영애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다. 남자들만 구두 를 닦고 있기 때문이다. 결심을 하고 높은 의자에 오른다. 구두 모양의 금속판 위에 발을 나란히 올려놓고 앞으로 내민다. 기 다렸다는 듯 구두닦이 노인이 검은 구두 위에 흰 구두약을 넓게 펼쳐 바른다. 구두 에 붙은 세상 먼지를 모두 닦아내려는 것 이다. 구두약이 몇 겹씩 덧발라지자 노인 이 양손으로 맞잡은 천을 가볍게 좌우로 문지른다. 구두 얼굴에 광택이 나기 시작 한다. 그것의 이마가 맑아지자, 움츠려진 세상이 쭈그려 앉는다. 온 세상을 거느릴 구두이기에 세상이 그 위에 내려앉은 것 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검정색과 하얀색 구두약은 무광택과 광 택으로 번갈아 가며, 광을 살리는가 하면 죽이고 다시 죽였다가는 살려낸다. 밤과 낮같은 삶의 어두움과 밝음을 오가며 변 화하는 구두. 삶을 뚜벅뚜벅 걸어야 할 구 두이기에 그곳에는 세상의 다양한 표정 들이 순간이나마 그려졌다 사라지는 것 일 터이다.

구두를 닦는 일은 그 표면을 빈 공간처럼 비운 뒤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내는 것일 게다. 하루의 삶도, 평생의 인 생도 세속적인 것을 쓸어내고 실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 반짝이게 하는 것 이 아닐까.

끈기 있고 성실한 소의 가죽이 만든 구두 에는 꾸준함과 부지런함이 담겨 있을 성 싶다. 그런가 하면 활기찬 초록 엽록소를 취하는 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이 를 되새김질한다. 생각해 보면 소의 분신 인 가죽 구두도 활기 찬 걸음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의 성찰을 잊지 말라는 의 미가 숨어 있는 듯도 싶다.

노인은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어서인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것 같다. 짧은 하루지만 두 생업을 뛰어야만 유지되는 삶이다. 아침나절은 공항에서 구두를 닦 고 오후에는 근처 매점에서 음료수를 판 매한다. 심한 당뇨로 몸이 불편한 그는 일 주일에 세 번씩이나 신장투석을 견뎌내 야만 한다. 낡을 대로 낡은 구두 같은 그의 삶을, 어쩌면 그는 성심을 다해 닦아내고 매만지며 광택을 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부츠는 어쩌면 춥고 질척한 비바람 같은 삶을 막아주는 갑옷일 듯도 싶다. 삶 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 는 부츠가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는 대신 조그만 발 하나를 감싸고 있다. 작은 발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 부츠는 그렇게 탄 탄하고도 긴 기둥을 세웠던가. 세상에 내 딛을 작은 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온 세상

을 단속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도 모르겠다. 작은 소중함을 지킬 줄 알아 야 넓은 세상도 평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 바람 잦은 인생길이지만 삶의 부츠를 신고 걸으면, 어떤 흔들림에도 소신껏 걸 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모난 성격의 나처럼, 부츠의 앞부분은 사각형이다. 둥글어서 모나지 않아야 숨 겨진 삶의 돌부리에 상처가 나지 않을 것 아닌가. 구두는 하늘을 보고 있지만 땅을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한다. 무겁게 누르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현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부츠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말발굽 같은 뒤축으로 당당하게 달려야 하고, 때로는 낫같이 생긴 그것으 로 먹이를 잘라내야 한다. 풀이나 곡식을 자르는 낫은 먹거리를 갈무리하는 또 하 나의 삶의 필수 도구가 아니던가. 탄탄한 것도 모자라 날카롭기 까지 해야 하는 내 가죽장화는 삶의 도구이자 버팀목인지도 모른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인지 위와 아래를 잇는 부츠의 목 부분에 심한 주름이 잡혔 다. 힘든 고비마다 부러지지 않으려 굽혀 야만 했던 주름들은 삶이 만든 것들이리 라. 어쩌면 그것은 세월이 만든 이력서일 지도 모른다. 싫어도 싫어 할 수 없고 두려 워도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야 했던 인생 이 만든 아픈 훈장 같은 것이다.

세월 속에 몸이 삭아갔는지 균형이 불안 해진 부츠는, 급하게 내딛으면 삐걱거리 다 못해 헐떡대기 시작한다. 그것은 영혼 에 맞춰진 구두가 아니라, 쫓기는 현실에 맞춰진 빡빡한 구두이기 때문일 것이다. 달콤한 비상을 꿈꾸는 가슴과 각박한 현 실이 만들어 낸 균형이 어긋난 구두는 희 한한 몸짓으로 넘어질 듯 세상을 달리는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은 발에 맞춘 구두를 신고 걷 는 것이 아니라, 숙명처럼 정해진 구두에 발을 맞추고 걷는 것일 듯도 싶다. 각자의 업이 만든 구두를 신고 때로는 비틀거리 다 넘어지기도 하며 삶이라는 녹록지 않 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일 것이다.

검은 빛이기에 무표정한 듯한 구두. 하지 만 영혼에 먼지가 조금만 끼어도, 작은 상 흔만 생겨도 그것은 감출 수 없이 그대 로 노출되는 것 같다. 어쩌면 낡은 구두 에는 삶에 찌든 나의 얼굴이 숨어 있는 지도 모른다.

주글거리는 구두만큼이나 힘든 구두닦이 노인이 나의 구두를 닦아주고 있다. 굴곡 진 삶의 주름으로 가득 찬 노인의 손이, 지



호수

박윤수 (문리 48)

눈을 뜨니 고요히 잠긴 호수는 큰 항아리에 담긴 물같이 잔잔하게 잠자고 있는데

오늘도 IS의 공포와 테러의 위협이 요동치고 있네. 밝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졌을까?

꿈속에 보이던 비명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아침 모든 비명과 공포가 호수와 같이 항아리 속에 담겨 있으면

어떤 장미

앞마당의 장미 가슴이 울렁거려 사랑하고 싶은 충동에 나는 몸을 떨었지.

가슴 조리며 기다렸던 사랑 사랑을 기다리던 그 때 그대의 발자국소리 멀리서 들려 올 때는 가슴이 울렁거렸지.



장미도 당신과 함께 즐기지 않는다면 장미의 향기도 모습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랑은 서로 주고 받아야지. 서로의 사랑을 장미와 같이 만나 주고받는

치고 힘든 나의 영혼을 정성스레 보듬어 주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초라하지만 동정 어린 그의 혼이 스트레스로 굳어진 나의 삶을 따뜻이 품어 주는 듯도 싶다.

삶은 흠집 많은 서로의 구두를 포근히 보 듬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었다. 멍들고 패인 서로의 주름을 쓰다듬 고 펴주며 각각의 영혼이 가장 밝은 빛으 로 반짝이게 하는 것이 인생인 듯싶기도 하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지치 고 힘없는 서로의 구두를 감싸 주고 의 지하며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삶 아닐까. 어쩌면 낡고 구겨진 영혼의 구두를 정성 껏 서로 챙겨주는 '구두닦이'야말로 진정 한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현, 미국 LA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 회장 미주 중앙일보 "이 아침에" 칼럼 집필 저서: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사각지대의 앵 무새><렌트 인생>

경희 해외 동포 문학상 한국 수필 해외문학상미주 펜 문학상 국제 펜 한국 본부 해외 작가상

의대 65학번 김성환 동문의 부인



곽승용 (의대 65)

우리가 70내지 80여년을 살아오면서 가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은 한 두 번쯤 해봤고 또 이 문제는 이제까지 살아

온 삶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이란 저서에서 '삶의 의미 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것에 두고, 영원한 삶을 살며 현실에 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활력 있게 산다' 고 했으며, 정신과 의사인 스캇 펙박사는 "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led)" 에서 "사랑은 자아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저주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습니 다. 연세대 철학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는 98 세의 나이에 "백년을 살아보니"란 수필집에 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 가는 것이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대답은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며 뒤늦게 기독교 에 귀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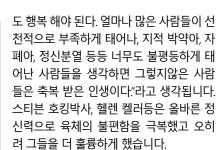
유명한 해학과 풍류시인 김삿갓, 김병언은 홍경래 난 때 조부 선천부사 김익순이 홍경 래에 항복한 죄로 집안이 멸족당하고, 김삿 갓은 노비 김성수의 도움으로 성장해서 과 거에 응시해 조부를 조롱하는 시제로 장원 급제했으나, 어머니로부터 집안얘기를 듣고 수치심과 스스로 자책하여 세상을 등지고 삿갓쓰고 세상을 유랑하며, 당시의 조선후 기 부패한 유교사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허 구와 메마른 세태를 조롱했습니다.

인도의 간디, 민권운동의 마틴 루터 킹목사, 안중근의사, 조만식선생 같은 위인들은 자 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높은 목적을 가지 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0여년 정신과의사로 살아오면서 바 쁜 가운데 한인회장, 선출직 교육위원, 한 글학교교장, 동창회장 등 사회봉사(?)도 했 는 데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한인들의 어려 움, 한인사회의 문제에 나름대로 적은 도움 이 되고자 동분서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 퇴생활에 저의 삶이, 별 것 아니고 사소한 일 로 분주하고 시력 청력 근력 정력 (?) 능력도 떨어지니 인생이 무의미해진 것 같고, 앞으 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가 끔씩 떠오릅니다. 98세의 김형석 교수가 은 퇴식에서 다시 교수를 한다면 학생들을 더 욱 사랑하고 더 큰 교육을 할 것 같다고 아 쉬워 했듯이, 저도 일생 의사 일을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환자를 더 사랑하고 배운게 아닌 깨달은 의술로, 찾아오는 환자 들에게 더 만족스런 치료를 할 것 같은 아쉬 움이 있습니다.

오랜 정신과 진료의 경험에서 결론은 "사람 이 '올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행복은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감정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늙는 것이 육체의 노쇠함이지 정신까지 노 쇠할 게 아닙니다. 즐거운 일은 아니나 불행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붉게 물든 저녁노 을이, 가을의 형형색색의 단풍이 더 아름다 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개숙인 벼이삭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난 7월 말 Poland Spring에 Golden Club 이 주관한 골프 여행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 진행을 맡으신 홍 부회장님 조 총무님 그리고 참 여회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식탁머 리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수학을 전공하 고 조용한 철학적인 조총무님과 대화 중 삶 에 bucket list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 니다. 그 생각의 여운이 이글을 쓰게 했습 니다. 골프를 치면서 왕초보인 저도 완벽한 티샷을 꿈꾸면서 마음 속의 응어리도 날려 버리는 욕심을 가져봤으나 실제론 긴 driver 를 들고 코앞에 떨어지는 찌리릭을 했을때 healing은 켜녕 자괴심만 드는게 아닐까, 저 녁 식사 후 나이롱뽕을 하면서 1, 2불을 안 타까워하며 원초적인 약점을 노출하지나 않았는지 등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 처음에 Golden Club이 필요했을까? 우리 가 노쇠하는 마음과 육체의 healing이 필요 해 시작하지 않았을까? Golden Club의 원래 목적이 무었이었던 간에 그 목적이 회원들 에개 활력을 주고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에 healing의 통로가 되어 치유가 될 것입니다. Golden Club 회원 여러분!! 제가 명색이 회 원이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하 다보니 참석을 잘 못하지만 "우리의 만남 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만 남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 마지막 공동의 광장이란 의미 등등, Golden Club의 회원 으로 만남은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Postmodernism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 니다. 서로 서로 다르고 다양함이 아름답다 는 시대입니다. 행복한 삶이 우리의 건강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하면 면역 력이 증대하여 무병하고 암도 이길 수 있 고, 반면에 갈등하고,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 고, 미워하면 얼굴에 표가나고 면역력이 떨 어져 병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귀



가족 상봉

오봉완 (법대 55)

갑자기, 나는 엄마한테 갈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줄이 그어졌다 아빠와 나는 북쪽에... 엄마는 남쪽에..

여섯살인 나는 밤낮으로 울었다 아빠가 달래고 맥이고 길러 주셨다

엄마는 안 오셨다. 아니, 못 오셨다

아빠는 엄마를 부르며 돌아가셨다 나는, 아빠의 사진을 늘 지니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상봉 등록하라는 통지가 왔다 겁이 났지만, 엄마 보고 싶은 열정으로 모험을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다듬으며 금강산 관광지로 갔다

남에서 88명, 북에서 83명의 노인이 모인다던데 어떻게 엄마를 알아보지?

멋지고 고운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더니 우리 눈이 마주친다. 틀림없다. 엄마다!

엄마-아-아—어린아이 처럼 소리치며 달려간다 엄마 아들 상철이에요, 상철이 . .

상철아, 상철아, 내 아들 상철아... 엄마는 나를 안아 주신다. 나도 엄마를 꼭 안는다 – 숨이 막힐정도로

아빠의 사진을 보여 드린다 엄마의 눈물이 폭우처럼 흘러 엄마의 저고리를 적신다.

엄마는 92세, 나는 71 엄마는 나보다 더 젊어 보이신다.

우리는 65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쳐다만 본다

상봉 기간 이틀이 지나,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엄마는 나와 같이 살 수 없고, 난 엄마와 같이 갈 수 없다

엄마, 오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같이 살아요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서 ...

*이 산문시는 뉴욕 타임스 최상훈 기자의 2018년 8월 21일 기사에 의존했고

Dr. Bonnie Oh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Ret.)

시카고 문인회 이사장

하게 여기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즐겁고 신나게 인생을 함께 살아봅시다! 우리는 행 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남은 │ 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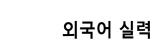
인생 최선을 다합시다! Golden Club회원 여 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며 가내 평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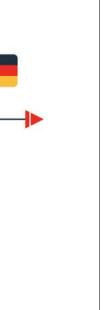
송상용 (화학 55)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베이징 칭화대 학 생들과 중국어로 대화했다는 소식이 화제 에 오르더니 함부르크 정상회담에 간 문재 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회 담할 때 독일어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경남고 다닐 때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택했 기 때문이리라. 6·25 때 한국에 파견된 의료 지원단을 찾아 방명록에 독일어로 쓴 "여러 분이 베푼 도움은 잊지 않고 있다"(Ihre Hilfe bleibt unvergessen)는 말은 인상 깊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이 터져 중 고등학교의 반 넘어를 시골에서 농사짓고 나무하며 보냈다. 1년 배우다 만 영어를 보 충하려고 학원에 다녔다. 대전에서 미국 공 보원 영어학원(박태화 원장, 장기선 대전공 고 강사)에서 영어 회화와 독본을 들었다. 환 도 후 서울에서는 서울고등학관(강태평)과 ELI(서울고 안현필 교사)를 다녔다. 서울 대 전종합고등학교에서 시작한 독어(허 혁 이 대 교수)는 아카데미(강세형 국회의원, 김정 진 모교 사대 교수)에서 회화와 독본을 택



은 보통이었다. 화학을 전공한 내가 독문과 | 베를렌느(Verlaine)의 시 '감상적 대화'(Col-여덟 강좌(허형근)를 신청해 32 학점을 땄고 영문과 열 강좌(교양 영어 포함, 권중휘, 박 충집, 정인섭, 전제옥, 여석기, 송 욱, 이종구, 황찬호)와 불문과 한 강좌(김붕구)를 청강했 다. 그때는 부전공 제도가 없었으나 생물학 까지 합쳐 세 과목을 부전공한 셈이다. 초급 불어는 CEF(이휘영, 방 곤)에서 배웠고 70년 대 교양과정부에서 강의하면서 김광남(김 현)의 '프랑스 문명' 강독을 청강했다. 러시 아 말은 80년대 고려대 여름학교에서 집중 러시아어(김진원, 석영중)를 딸과 함께 청강



화학55-59, 철학60-62 한림대 명예교수

못 읽으니 딱하다.



5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다. 그때 문리과 대학은 일본의 고등학교 비슷한 자유 분방 한 학풍이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 했다. 영어 이외에 외국어 두 과목을 듣는 것

했으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내 친구 임석훈은 화학과 시 낭독 모임에서

긴 자신을 비난하는 내면의 소리다.

부른다. 죄책감은 바로 이 양심이 규칙을 어

죄책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실제로 사 회의 규칙을 깨뜨렸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 는 잘못한 행동에 대한 진짜 죄책감이 있 다. 이러한 죄책감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을 피하고 타인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고치 려고 노력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피해를 입 힌 대상에게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생 산적인 면도 있기에 모든 죄책감이 나쁘다 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많은 내담자들과 지인

죄책감, 넌 누구니?

한정민 (농대 87)

심리상담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직업이 | 인간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여러 규 지만,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다나 지인의 넋 두리를 듣는 것과는 분명 차별성을 둔다. 훈 련된 상담사는 영화 같고 소설 같은 내담자 의 이야기를 마냥 빠져 듣는게 아니라, 내담 자의 이야기 저변에 깔린 감정들, 특히 부정 적인 감정을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바 라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감정은 "왜 그렇 게 느끼냐, 이렇게 느껴라"라고 머리나 이성 으로 명령할 수 없는 이미 내면에 배달된 메 시지다. 그것을 계속 외면하거나 억압하면 엉뚱한 곳에서 화나 분노가 폭팔되기에, 감 정을 세분화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건 강한 정신과 마음돌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상담 중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드러내는 두가지 큰 감정이 죄책감과 수치 심이다. 동물에게는 없고 문화를 지닌 인간 만이 느끼는 두 감정은 비슷하지만 본질적 인 작동방식이 다르다. 수치심은 외부의 시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죄책감은 양 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때 스스로 자기자신 을 비난하는 감정이다. 오늘은 죄책감을 다 루고 내달에 수치심을 비교 분석하려 한다.

칙과 법률 등을 만들어 개인의 욕망을 통제

"감정은 '왜 그렇게 느끼냐, 이렇게 느껴라'라고 머리나 이성으로 명령할 수 없는 이미 내면에 배달된 메시지다.

엉뚱한 곳에서 화나 분노가 폭팔되기에..."

그것을 계속 외면하거나 억압하면

해 왔다. 이런 사회적인 규약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에 내재되어 스스로를 제약하 는 굴레로 작용하였고, 이를 보통 '양심'이라

들은 실제로 잘못한 행동이 없는 데도 무거 운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가짜 죄책 감은 학습된 반응으로 외부의 기대를 채우

지 못했거나 스스로 만든 높은 기준에 미치 지 못할 때 생기는 자기 비난의 소리며 비 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때로는 사랑하 는 사람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거 나 충분히 돌보지 못한 미안함, 또는 사고나 전쟁에서 동료의 죽음 속에서 자신은 살아 난 것에 대한 생존자의 죄책감 등 자신이 통 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 기도 한다.

13

loque sentimental)를 읽었고 러시아말을 배우러 다녔지만 유학은 독일로 갔다. '맨발

의 철학도' 채현국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강독에서 서문 한 자락을 새겼고 야유회에

서는 이브 몽탕이 히트 한 '고엽'을 프랑스말

로 멋지게 불렀다. 그는 삼국지도 나관중의

원서로 읽었다. 내 제자 홍광엽(한림대 명예

교수)은 경복고 학생 때 뉴욕 헤럴드 트리뷴

세계청년포럼에 참석했고 사병으로 수도경

비사령부에서 복무할 때 전두환 대령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파리대에서 정치학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유학중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망명 때 고등학교에서 독일

나는 학생 때 독어 논문 두 편(화학, 철학)을

번역해 '문리대학보'에 실었고 니체의 시를

번역해 '새 세대'에 발표했다. 독어, 프랑스

말 책을 읽어 논문도 여러 편 썼다. 한국사

를 전공한 아내(김선곤·사학 57-61)는 한문,

일본말, 중국말을 새로 배워 쓴 졸업논문이 '

역사학보'에 실렸다. 일본말을 제대로 못 읽

는 나를 많이 도와 주고 여행 때는 통역도

해준다. 요즘 스위스에 사는 딸은 왜 그렇

게 독일말을 못하느냐고 괴테 학원에 등록

하라고 한다. 그러나 50 넘어 러시아말을 배

우려다 실패한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 아

내는 이탈리아에 사는 외손주와 한글과 이

탈리아 말을 카톡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다.

재미로 하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영어 회

화는 잘 하나 제 2외국어는 거의 안 해 책도

어를 가르쳤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죄책감을 어떻게 제거 할까? 먼저 모든 죄책감이 나쁜 것만은 아 님을 인식하고 스스로 만든 가짜 죄책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혹시 실수나 잘못 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죄책감이라면 사 과나 용서를 구하거나 처벌을 받음으로써 죄책감을 줄일 수 있다. 엄한 부모 밑에서 성 장해서 높은 도덕적 양심기준을 가졌거나, 종교적인 율법에 강한 지배를 받는 사람, 또 는 완벽주의자인 경우 더 큰 죄책감에 시달 린다. 본인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면 자신에 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스스로를 용서하 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죄책감이 생산적인 변화나 개선으로 이어 지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죄책감이 계속될 경우 자존감이 저하되고 무기력함과 통제 력을 상실한 느낌으로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다. 죄책감이 심한 경우 스스로 만든 왜곡 된 생각과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인지치료 나 상담을 통해 수정, 교정하는 작업이 죄책 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죄책감은 마음 속 안에 있는 하나의 생각과 감정일뿐,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님을... 기억하도록 하자.

심리상담사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매릴랜드 지역 한인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오광동 (공대 52) 동문

오랜 세월 병원에 근무하면서 한인 환자를 위해 2000년 은퇴까지 다양한 봉사를 했다. 은퇴 후,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시니어를 위 해, 벧엘 장로교회 부설 시니어 아카데미 봉 사로부터 현재까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공순옥 간호대 동문과 함 께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에서 봉사를 하 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시니어 센터 2017년 창립 15 주년을 기념하여 이 지역의 한인 시니어들의 발자취를 담은 150 Page의 역사 화보집 800 부를 편찬하여 각 미 주류기관과 지역사회에 무료로 배부하였다.

오 동문은 "어쩌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생각보 다 많고, 자식들이 있어도 생활과 시간에 쫏 겨서 도움을 못 받거나, 실제적 사회 보장의 내용을 몰라서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 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오게 된 동기

대학 졸업 후, 모두가 국가 체신 공무원이나 방송국으로 직장을 갖게 되었다. 어려운 시 절이었다. 당시 공무원은 일한 대가로 약간 의 돈과 쌀 배급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새로운 과학 기재들이 미국으로부 터 들어 왔고, 일본의 산업 발전과 더불어 들 어온 일본의 모방 상품과 미국의 과학 교재, 원조 등으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군 사혁명으로 인해 모든 행정 방식이 군 치하 에서 변모를 하게 되었다. 과학의 발전과 교 육의 혁신 등이 일어나면서 정부 기관과 새 로운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변모하는 시 대를 맞았으나, 한국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해외 방문 등이 제한받았고, 유학파들의 권 위주의가 사회와 학원가에 난무했다. 나도 공부를 지속하고, 자식들의 장래에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당시 내 형편 으로는 자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없었 다. 당시 누구나처럼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 등에 힘을 썼으나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고 단한 나날이었다. 성실하지만 재주 없고, 타 협 모르는 나는 환경 좋은 과학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못다 한 공부를 하고, 자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이민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어려웠던 일과 기억에 남는 추억

한국주재 미 대사관을 통해 모든 서류를 갖추어 None Case 이민 신청을 하였으나 Case 가 종료되어 서류가 되돌아 왔다. 직접 고용으로 추천하여 수속하라고 하여 지인을 통해어렵게 미국에 이민이 이루어졌으나, 다섯식구가 움직이는데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타지에서 도움 없이 정착하는 일생계 문제, 언어의 불편, 경험 없는 이국 생활과 문화 차이 등의 장애가 있었다. 도움 없이신문 광고를 이용하여 직장을 구하는 문제,아이들, 학교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민은 가시밭길이라고 하나 보다.



오광동 (공대 52)

오광동 (공대 52) 동문은 일제치하, 중국 만주국 철령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다.

내가 미국에 올 당시는 정부 환전에 한계기

있었다. 모든 자격증과 경력 등을 공증 서류

를 만들어 가지고 왔기에 큰 도움도 되었다.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운전면허, 직업 경력,

학력 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

고, 듣지도 못한 기계, 기구 등이 많아서 처음

노인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어려움을 대표하는 일과 실향민들의 모 무 친목 야외 행사 등 최소 년 1회 이상



엔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나는 숨은 노력을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노력 끝에 동료보다도 앞서가게 되었고 그들 보다 인정받아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우수 직원 표창장"도 받았다. 신용과 믿음 그리고 정직은 이 사회의 기본이었다. 아울러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함을 엿볼 수 있었다.

워싱턴 D.C.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일들 과 성취된 일들

은퇴 전, 사회봉사는 25년간 병원에 근무하면서 한인들을 위한 봉사를 했다. 은퇴 후, 실향민 모임 단체인 워싱턴 황해도민회에서 회장으로 봉사하며 실향민 단체를 활성화하고,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는 실향민 자제들을격려하고, 애향심 고취, 한국의 발전상 홍보, 장학금 제도 신설, 유지로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였다. 또한 이북5도민회 연합회 (함경남북도, 평안 남북도, 황해도) 회장을 역임하면서 실향민 단체의 화합과 한국 정부의 이북 5도민 위원회와 유대강화로 실향민들의

오 동문은 1956년 모교 공대 전자공학 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전자공학과 교수 로 재임하다 1974년 도미했다. 매릴랜 드주 볼티모어 유니언 메모리얼 병원 에서 23년간 플랜트 엔지니어로 근무 했다. 이후, 메릴랜드주 황해도민회 회

장, 이북5도민회 회장을 비롯해 하워드

해방을 맞아 고향인 황해도 연백군(38

선 20리 이북)으로 부모님 따라 귀향하

여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소련군 진

주와 북한의 통치를 피해 얼마 후, 부모

님 따라 월남해 서울에 정착했다.

어려움을 대표하는 일과 실향민들의 모국방 문, 친목 야외 행사 등 최소 년 1회 이상 행사 를 했다. 이들 행사는 대사관을 비롯해 지역 단체장님들이 함께 자리한다. 또한 2000년 이후에 제가 참석하는 지역 교회에 처음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아카데미가



발족한 후 교육계에 재직한 경험으로 학교체 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창기 6년 동안 교무역을 맡아 체제 운용과 개선하는 등 프 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서 안정화하는 데 노 력하고 그 직으로부터 이젠 은퇴하였다.

공교롭게도 교회의 시니어 아카데미 발족과 함께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에 한인 인구 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 게 되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주거 문제와 사회보장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 노 인들이 겪는 통신문의 이해도, 교통 문제, 통 역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족과 자 제들이 감당할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 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2001년 말, 이 지역 노인회가 준비 작업을 하여 현재까 지 다양한 노인 정보와 건강 활동, 교양 분 야, 각종 지원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시니어 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지 역 노인회가 2002년 발족 당시 창립 멤버로 서 2004~2005년과 2014~2015년에 회장으로 봉사하였고, 2008~2009년에 이사장, 그 후는 고문과 상임 이사로서 현재까지 직간접적으 로 간여하였지만, 현재는 몸이 노쇠하여 올 해를 끝으로 봉사와 모든 직책을 사임하려 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

한국을 떠날 때 기대와 성취감이 컸지만 그 런대로 만족한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지 만, 만족과 행복은 척도가 없고 스스로가 어 떻게 받아드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고생은 되었지만, 원래 계획의 65%가 달성 되었다면? 자식들의 성장 과정, 교육, 직업과 배우자 문제, 경제 문제 등 부모 속 안 썩이 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하여 주었고, 손자 손 녀들도 모든 점에 잘 적응, 성장하고 있다. 주 변에 함께 살며 서로 깊게 사랑으로 공조한 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대학 시절 이민 올 때처럼 온 가족이 1986년에 한국을 방문, 한 국의 발전된 곳, 서울, 제주, 설악산 등 여러 곳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05년 이후 전 가 족 15명이 함께 두 번에 걸쳐 Caribbean 크루 즈로 가족의 화목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서 로가 이해하며 어려움 극복하고 앞을 함께 기획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 다. 추억 속에 한 페이지이다. 누구나 이런 기 회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름다운 가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1년여 전에 있었다. 큰 며느 리가 악성 병으로 세상을 떠난 예상치 못한 일에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쓰리다. 우리는 고령인데!

나는 60대 나이에 은퇴 계획을 홀로 세워서 현재 정부의 보조 없이 생계를 유지한다. 여 행에 취미가 있어 젊어서 많은 해외여행을 다녔다. 미국 생활에 그런대로 만족한다. 이 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이젠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주고,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게 조용히 생의 마감 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어떤 일를 하시며 살아오셨는지

이민 와서 모든 계획이 한국에서와 달라져 처음에는 당황했다. 당시 모든 전자 기업체 는 불황을 겪는 중이었고, 시민권자나 특수 비밀 취급자만 큰 기업체에 채용 가능해 취 업에 애를 먹었다. 결국 Laid Off가 가장 적 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기업체보다 병원이라고 생각이 되어 메릴랜주 볼티모어 시의 오래된 병원에 취직했다. 전기와 전자 분야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State 자격증 을 취득하였다. 처음엔 병원내의 모든 전기 시설. 점검, 수리, 유지하고 그 후 Bio-Medical Engineer로 병원내 모든 전자 의료 기계의 설 치, 안전 점검, 수리 등 병원 내의 Dr's Office의 모든 기기의 수리 안전 점검의 의뢰, 병원 내 의 특수 통신 시설의 운용 등 다양한 유지, 설 치, 수리 등 전반 작업과 입원실을 비롯한 수 술실까지의 모든 정규 점검 등을 은퇴할 때 까지 하였다. 1994년에 우수직원 표창과 휴 장 뱃지도 함께 받았다. 근무 기간은 24년 6 개월로 2000년 12월에 은퇴했다.

가족 관계

오광동 (공대 52) 동문 인터뷰

남 홍성 지방의 의사 딸인 아내를 만나 1961 년 1월 초, 결혼했다. 연애란 단어도 모르고 살았다. 우리 집은 한 지붕 4세대 가족이었 다. 상투에 갓 쓰시고 두루마기 입으신 조부 님, 부모님, 우리와 자식들, 층층시하의 가족 이다. 아이들이 덕수국민학교 6년 졸업, 4 학년과 2학년 다닐 때, 미국으로 이주하였 고, 다섯 식구가 지금은 15명의 단란한 가정 이 되었다. 그러나 병으로 며느리를 하나님 께 보냈다. 큰딸은 Northwestern Univ. Dental School 졸업 후, Rockville, MD에서 DDS.PA로 개업 중이고, 큰아들은 Johns Hopkins Univ. 졸 업 후, 연방정부 국방성 Manager, 둘째 아들 은 Georgia Tech. 졸업 후, 연방정부 Homeland Security Chief Eng로 근무 중이다. 손주가 7명 이며, 모두 성장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293호 | **2018년 9월 호**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바라는 점

에 다닌다. 제일 막내 손주가 7학년이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듯하다. 오래전부터 회 보를 받아 보고 있다. 근래 더 많은 지역 지부 가 생겨 활동하고 있음을 회보를 통해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다양한 분야 에 동문께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문께서 지역 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시기를 기대한다. 본인도 여러 단체의 책 임을 맡아 운영하였지만, 동창회 운영이 쉬 운 일이 아니다. 미주동창회와 편집국에 경 하를 드린다. 특별히 저에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내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 이 미국 사회 실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 고급 전문지식은 으뜸이지만 하찮은 것(?) 같은 미국에 사는 데 필요한 정보도 동창회보에 가끔 다루었 으면 좋겠다.

후배 동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요즘은 IT. 정보화 시대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세상에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세상이 각박하여 인간미가 없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윤리적 도덕을 잃지 말아야겠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학술과 과학의 두뇌로 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상호 협조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인생의 낙을 주게 된다. 또한 나이든 우리는 젊

1960년 공무원 시절 집안 형님의 소개로 충 은 세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서로 남 홍성 지방의 의사 딸인 아내를 만나 1961 세대 차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현실로 노력 년 1월 초, 결혼했다. 연애란 단어도 모르고 을 해야 한다.

인생의 좌우명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나는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피부로 느끼지 않았지만, 일제 억 압, 해방의 혼란기, 625 한국 전쟁 외중에 살 아남아 공부하고 후원해 주신 부모님이 계 셔서 아름답고, 강하고, 경제력 있는 미국으 로 이주하여 자식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다. 지금은 노년에 정부의 복지 혜택 으로 여생을 즐기니 불평과 불만이 없지만, 부모님께 보답을 못 해 한이 된다. 그래서 나 는 항상 "정직, 근면, 욕심 없이"라는 부모님 이 말씀하여 주신 가훈을 자식들에게 주었고 실행하기를 바랄 뿐이다.

가훈(家訓)

평생토록 배우고 늙다하지 말라 노력의 전당은 성실에 있다 백곡 오붕제 (白谷吳鵬濟)

> 서로 사랑하며 우애 깊게 인화 친목하며 겸손하게 서주 오광동 (西州 吳鑛東)

바람직한 미주 한인사회의 미래성

지금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의 생명 을 연장하고 있어 장수 시대에 살아간다. 미 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은 모두 좋 은 환경 속에 고도의 문화, 고도의 기술 성장 에 Use To 되어 있다. 좋은 선조들의 두뇌로, 이 복잡한 사회에 적응하는 23세에는 문호 가 열려 있다고 본다. 이곳에 이민 온지 오래 된 분과 유학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 지만, 근래 이주한 일부 이민자와 일하지 않 는 한인들의 문제도 있다. 그래도 지금은 많 은 한인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 비하면 아직도 개 인적인 면이 엿보인다. 그러나 한인 동포 사 회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더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 아가면 앞으로 2세들 이후로는 모든 것이 활 짝 꽃이 필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영 동문 두번째 시집 '그리운 손편지' 출판기념회 개최





기스여 /나마 = 7\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더 명품 제품을 좋아 한다. 특히 핸드백은 명품제품을 갖기를 원 하는 여자들이 많다. 오죽하면 가짜 짝퉁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명품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약삭빠른 상인들이 그 심리를 노려서 물품을 식별이 어려울 정도 로 똑같이 만들어서 명품 제품으로 둔갑을 시켜 좀 싼 값에 팔면 날개 돋친 듯 팔린 다고 한다. 그런 약점을 노려서 가짜가 판 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당국에서 단 속을 해도 눈을 피해가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상인들 때문에 범죄자를 색출해 내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명품제품은 디자인이 특이하면서도 예쁘고 수공기술이 뛰어나 오래 쓸 수가 있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서 라도 서슴없이 명품을 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속보다 겉치레를 좋아해서 가 짜명품을 진짜 명품인 줄 착각하고 갖고 다니는 허영심 때문에 가짜 제품 생산을 부추기는 역활을 할 때가 있단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이 명품제품을 원하듯이 누구나 명품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만큼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돈만 있으면 명품제품은 얼마든지 구 매할 수 있지만 명품인생은 본인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은 실력과 인격도야에서 자연 히 풍기는 산물이기 때문에 명품인생을 사 는 사람은 참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온지도 30여 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거라지 세일을 해 본 적이 없었다. 비영리단체에다 모두 기증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루는 친구한테 쓰다남은 물건들이많아서 기증해야 될지 생각 중이라고 했더니 물건이 많으면 자기가 도와 줄테니한번 해보라고 적극 권유를 했다. 용기를얻고 며칠 동안 친구와 둘이서 물건을 정리를 하고 보니 쓸만한 물품들이 꽤 많이나왔다.

장사는 역시 장소가 중요한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교통이 번잡한 곳에서 거라지 세 일을 하면 금방 팔린다고 한다. 우리 집은 컬드섹에 코너 집이라 교통이 분비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어서 물건이 팔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싸인 판을 길 사 거리에다 붙이고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붙이고 했더니 심심치않게 사람들이 찾아 와서 물건들을 사서 갔다.

거라지 세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차고 여기저기 쓰지 않고 버려두었던 물건들을 깨끗이 닦고 손질하여 테이블 위에 진열해 놓으니 얼마나 물건들이 좋아 보이고쓸만해 보이는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해해 보였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라천대를 받으며 아무렇게나 차고에 방치되어 주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쓸쓸하고 외

명품 인생

롭게 눈길을 끌지 못한체 어두운 곳에서 허송 생활하던 물건들. 낯선집으로 시집가 는 날처럼 의기양양하게 멋있게 보였다. 먼 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때 빼고 광을 내었 더니 그야말로 인물이 달덩이처럼 훤했다.

고아들이 양부모를 만나 입양하는 것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 팔려갈 때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물건들로 거듭 태어나 애용 받을 것 생각하니 떠나 보내는 나까지 마음이 허믓했다. 물건을 사간 주인은 헐값에 그리고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갔으니 쓸 때 마다 기분 좋게 애용하겠구나 생각하니 한때 주인이었던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나도 얼마라도 돈을 받고 팔았으니 나에게 애용 받았던 값을 단단히 하고 가니 주인집을 떠나 새 주인을 맞이해도 위풍당당하게 떠나게 되어 자랑스럽게 보였다.

우리 인생도 평생을 살면서 청년 때 장년 때 명품인생을 살다가 늘그막에 중고품 인생이 되어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고품 인생이 되었어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다시 활기를 찾고 인생을 새 출발 하는 사람들처럼 노년을 값있게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다.

노년기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이주 선생님의 경우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는 도전정신으로 자전거 타고 미주 대륙횡단이란 엄청난 꿈을 펴보기로 날개짓을 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명품인생인가.꼭 성공하리라 믿는다. 세계적인 가수가 된 수잔 보일도 태어날 때 산소 부족으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가난과 싸우며 고난을 딛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결과 47세에 그 꿈이 이루어져 명품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흐믓한 인생 역전 드라마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명품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 한 체 중고품 인생으로 버림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개중에는 개과천선하여 명품인생으로거듭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특히 세계 명작중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박톨유고의 소설 '레 미제라불'의 주인공장발장은 쓸모없는 중고품 인생을 살다가멋진 명품인생으로 산 좋은 예가 되겠다.

석양에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 서 석양처럼 넘어가는 우리 노년기 인생이 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사람들 의 심금을 울리는 노년기의 멋진 삶을 살 고 싶다는 염원을 품어본다. 폭우 뒤에 활 짝 갠 봄 날씨의 파란 하늘이 마냥 푸러러 내 꿈이 그곳에 머문다.

강신용 (사대 73)

Mentoring Network Program SNUAA in USA & SNU Students in Korea

[본 내용은 지난 27차 평의원 회의 시 남가주 동창회 강신용 회장께서 기타 안건 시간에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시간 관계상 진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호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D. 언론 보도와 홍보

• 서울대학교 게시판

정보교환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SCHOOL-LIFE MENTORING PROGRAM: SMP LINK해서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내리사랑 멘토링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보: 전미주에 매월 발간

• acropolistimes.com | Facebook: 미주Internet 신문

• 미주 주요 일간지, 방송사, TV 방송국 편집국장 및 수많은 임

• 이 프로그램은 ON LINE Program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OFF

• 활동 기간, 대상, 신청은 항상 MENTORING POOL을 통해 열

• 특별 강연, 인재 추천, 미국 방문 및 인턴십 기회를 포함합

• 외국인 인턴 채용 선호 기업의 증가 및 해외 인턴십 희망 한

• 멘토: 재미 동문, 동문의 자녀, 재미 유학생 외 동포사회의

• 멘티: 모교의 학부, 대학원생, 동문 졸업생, 유학생 그리고

• 개별 활동의 경우 활동 일지를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

• 단체 활동을 통해 개별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멘토링 프로

• 모교 및 미주 동문지에 멘토링 프로그램 결과를 보도한다

메신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활동을

• 개별 활동(멘토-멘티)과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다

A. 사업 기간은 계속 지속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포함하여 멘토-멘티의 개별 멘토링 활동

'선순환 내리사랑'을 실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 정보

Center for Campus Life & Culture

•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회

• NEWS@SNUAA.ORG

원들의 홍보 및 인터뷰

E. 활동 및 모니터링

LINE도 가능합니다

이민온 동문

F. 활동 방법

그램 방향을 제시

B. 사업 내용

• 개별 멘토링 활동

• 단체 멘토링 활동

필요시 세부 활동계획서 보고

■ 사업 기간 및 사업 내용

• www.snuaa.org: Website 활용

린 마당의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국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증가

•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와 모교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 생 또는 졸업생 간에 공동의 관심 분야에 기존 서울대학교 내 리사랑 멘토링 시스템에 먼저 미주 서울대 동문, 동문 자녀, 그리고 동포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고국의 인재들과 네트웍 하여 글로벌 시대의 서울대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 목표

■ 목적

졸업 후 각 분야로 해외로 진출한 서울대 동문 그리고 그들 의 각계각층에 진출한 선배들을 멘토로 연결하여 해당 분야 에 대한 소개를 듣고 선배와의 오프라인 대화 시간을 가짐으 로써 멘티의 관심 분야 전공 학부생, 대학원, 박사과정 등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와 취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시로 멘토링 해외 네트웍을 목표로 만들고 있다. 현 재 미국 유학생이거나 이민 와서 진로와 취업문제를 겪는 동 문도 이 멘토링 네트웍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이 부수적인 목표이다

■ 멘토링 프로그램

A. 미주 서울대 동문회 멘토의 특성

-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소통 기회 마련
-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목적 의식 부여
- 새로운 환경에서 미션 수행을 통한 자신감 부여
- 다문화 환경에서의 조직 문화 습득
- 한단계 더 성장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우호적 관계증진 및 역량향상

B. 참여 가능 멘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할 만한 수많은 인제들이 미국 사회 각계 각층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와같은 멘토를 활용하여 모교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할 수 있는 멘티와 NETWORK 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 CEO, 석학,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사회 각분야의 리더들 을 멘토로 모시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대학생 멘티들과 공유하며,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한 미래 인재들을 양성 합니다. 의료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전문가, 재미동포들의 사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는 직장, 이사급의 공무원, 대학교수 등

C. 서울대학교 멘토링 네트웍 참가자 혜택

- 서울대학교와 미주 동문회의 MOU
- 학교에서 멘토 인증서 발급
- 온라인 게시판 및 정보 제공
- 해외 탐방, 문화 이벤트
- 멘토링 이벤트 성공 사례 발표회

• 제출: MENTORING POOL에 등록, 동문회 게시판, 동문회

293호 | 2018년 9월 호

기간	주 요 내 용	세부내용
2018	멘티 모집 및 선정	- 학교 재학생, 대상자 추천 - 멘티 개별 상담후 선정 - 멘티 또는 부모동의서 작성
	멘토 모집 및 선정	- 관련학과 모집 홍보, 의뢰 및 자발적 신청 - mentoring pool, mentee 요청 후 선정
2018. 9.	오리엔테이션(O.T)	- 2017학년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회 - 정보 공유 및 주의사항, 지침 알림 교육 실시 - 멘토링 참가자의 혜택과 해외 진출 홍보
2018. 9.	단체 활동	- 단체 미국 방문 진행(협약 및 Intern 체험 등) - 동호인 방문을 통한 나눔, 배움, 친목 도모
	개별 활동	- 멘토, 멘티 개별 활동
2019. 9.	연간 보고	- 멘티-멘토 종결 보고 진행 - 전체 프로그램 평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멘티 보고서

※ 상기 내용은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평가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평가도구	멘토링 계획표	멘토 일지	운영 일지	협의록
평가방법	멘토링 계획표 작성	개별 모임 멘토 일지 활동 내역 확인	멘토-멘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점검	연간 보고시 협의 내용 작성 확인

• 멘토링 계획표

멘토링 계획표 세우기

멘토명		활동방법					
멘티명		면담, 방문, 전화(문자), 메신저, 기타()					
목표							
	멘토링 목표 항목						
목표							
구체화하기	세부목표	세부목표	세부목표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일지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일지								
일시	년	월	일	멘토 성명				
활동 방법				멘티 성명				
장소				소요 시간	시	분~	시	분
멘티의 행동 광찰								
멘티의 현재 상태 (가족, 학교, 특이 사항)								
활동 내용								
멘토, 멘티 관계의 정도	12345			멘토, 부모 관계	ᅨ의 정도	123	45	
멘티의 변화								
활동 평가 및 향후 계획								
해결할 문제 및 supervision 필요 내용								
필요한 지원								

멘티-멘토의 만남 이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멘티의 행동관찰, 활동내용을 적음으로써 사례 회의때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 결방법을 찾아내고 정보공유와 원만한 관계형성을 촉진하 기 위한 도구이며, 매 회기 작성을 멘토&멘티의 관계 향상정 도를 체크할 수 있다.

남가주 동창회 회장, 강신용

Los Angeles, CA 90010 Phone: (213) 380-1600

■ 멘토지원서 제출기간 및 제출처

• 멘토링 프로그램 세부 활동계획

기간	주 요 내 용	세부내용
2018	멘티 모집 및 선정	- 학교 재학생, 대상자 추천 - 멘티 개별 상담후 선정 - 멘티 또는 부모동의서 작성
	멘토 모집 및 선정	- 관련학과 모집 홍보, 의뢰 및 자발적 신청 - mentoring pool, mentee 요청 후 선정
2018. 9.	오리엔테이션(O.T)	- 2017학년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회 - 정보 공유 및 주의사항, 지침 알림 교육 실시 - 멘토링 참가자의 혜택과 해외 진출 홍보
2018. 9.	단체 활동	- 단체 미국 방문 진행(협약 및 Intern 체험 등) - 동호인 방문을 통한 나눔, 배움, 친목 도모
	개별 활동	- 멘토, 멘티 개별 활동
2019. 9.	연간 보고	- 멘티-멘토 종결 보고 진행 - 전체 프로그램 평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멘티 보고서

■ 평가 방법

멘토명	활동방법					
멘티명	면담, 방문, 전화(문자), 메신저, 기타()					
목표						
	멘토링 목표 항목					
목표						
구체화하기	세부목표	세부목표	세부목표			

• 멘토 활동 일지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일지								
일시	년	월	일	멘토 성명				
활동 방법				멘티 성명				
장소				소요 시간	시	분~	시	분
멘티의 행동 광찰								
멘티의 현재 상태 (가족, 학교, 특이 사항)								
활동 내용								
멘토, 멘티 관계의 정도	12345			멘토, 부모 관계	ᅨ의 정도	123	345	
멘티의 변화								
활동 평가 및 향후 계획								
해결할 문제 및								
supervision								
필요 내용								
필요한 지원								

Address: 3850 Wilshire Blvd., Ste 201

Travelling into Tanzania

8 June to 21 July, 2018

김수지 (인문 00)

[김수지 동문은 지난 27차 평의원 회의 시 장학금 수혜 동문이며, 여름 방학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현재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중이다. (편집자 주)]

My interest in Africa stemmed during study of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during my undergraduate years - from need to understand how different African communities' power structures evolve with shifts in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I wanted to interact in an environment which had direct exchanges with rural communities, and was fortunate to be able to work in UNICEF Namibia and later Good Neighbors Tanzania (GNTZ) for a few years.

293호 | **2018년 9월 호**

My work during these years focussed on empowerment dynamics, human rights based approaches and participatory development models in African communities. I had been trained in project Monitoring and Evaluation (M&E) methods, but wanted to further

research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shaping the norms and practices of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Tanzania's history of Ujamaa and 'African socialism implemented

during Nyerere's presidency (1964 until 1985), and the intertwining of the ruling Chama cha Mapinduzi (CCM) party and Tanzania's relatively peaceful establishment as a country and a nation, appear to deeply impact rural communities' perceptions of democratic institutions, civil society activities and development. I started the PhD in Development Studies program in UW-Madison in 2017 to be able to address these questions in depth, and to study how particular civil society movements progress in rural African communities.

I'm currently doing coursework, but made a commitment to return to Tanzania this summer to learn which sites would be appropriate for my studies and my questions. I had worked closely with Suli, Fufu and Chiboli villages in Chamwino District near Dodoma during my term with Good Neighbors Tanzania, and had initially planned to carry out research in these communities as they were closer to my heart. I spent time with villagers, trying to

grasp how varying cultures understood multi-party politics, their rights as citizens and nationals, and how their history and culture structure current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I realised during this visit that the 3 Chamwino villages no longer understood me as an outsider or a student, but I had become in their memories a key stakeholder in village development and representative of an implementing agency managing Korean foreign aid. Their responses, reactions, sharing and discussions with me took on particular shades of political bargaining. My clos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with the chairpersons, government officials, religious leaders, school principles and various village organisations, such as the borehole

users' association, the village dispensary, agricultural cooperatives, etc., appear to relatively disadvantage my neutrality in these villages, especially in comparison

with other neighboring areas. Thus, I also spent the next few weeks visiting other Good Neighbors Tanzania (GNTZ) project sites in Bagamoyo and Zanzibar, and also the Mbola Millennium Villages Project (MVP) area near Tabora. I travelled by bus and boat to meet stakehol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orking in the project sites - to learn about different regions' varying dynamics, and discern which site would be best appropriate for my future studies.

Mafia Island

It was invigorating and exciting to be back in Tanzania, talking with villagers and learning about their customs and ideas for the future. I also managed to squeeze in several M&E trainings for GNTZ staff members in Dodoma and Dar es Salaam during this visit. I plan to return each summer to carry out volunteer work with GNTZ and attend Swahili language classes – to better my understanding of Tanzanian lifestyles, and to gain wisdom on how to approach this study of Tanzanian politics.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정도현 (공대 57)

Brief Timeline of Architecture Eras in the Western World

When the mankind found the renewable food sources through the farming, they settled instead of roaming and thus the Civilization began to emerge. Historians have categorized what is called "The Built Environment" into Architectural Eras. This brief Timeline traces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n the Western world, beginning with the first known structures made by Pre-Historic people up to the soaring skyscrapers and swirling design of the Modern Era.

- 1. Prehistoric Architecture (Before 3000 BC) --- Before recorded history, human constructed monumental structures, Earth Mound, Monolith or Megalith such as Stonehenge. Architecture is found in these Structures built by men in to a Geometric Forms.
- **2. Ancient Egypt** (3000~1000 BC) --- Powerful Rulers mobilized skilled workers to construct Pyramids, Temples, and Shrines. These were a marble of Engineering that could reach incredible heights, however the enclosed spaces were rather limited. Stone Columns were placed close together to support a heavy but brittle Stone Slab above.

3. Classical (Greece and Ancient Rome

- 900 BC~AD 500) This is the Golden Era of enlightened Architecture, from Ancient Greece to the fall of Roman Empire. Greek Idealism brought Balance, Perfect Proportion and Harmony to the construction of Great buildings including the Parthenon with decorative Column Orders (Doric, Ionic & Corinthian). Romans borrowed heavily from Greek & Hellenistic style, but they also applied the most significant 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Arches, Vaults & Domes with the invention of Concrete to create a large enclosed space for civic uses (Pantheon).
- 4. Romanesque (800~1200 AD) ---After adopting Christianity, Roman Empire spread across Europe. Churches and Castles of the early Medieval periods were constructed in a form of a heavy, stocky buildings with Rounded Arches, thick walls & massive Piers. It was the start of Middle ages which lasted a long
- **5. Gothic** (1100~1450 AD) ---During the height of Christian influences, a new and refined style of building with soaring height began to emerge. Gothic Architecture accentuating Vertical

Elements such as Pointed Arches, Flying Buttress (a counter balancing structural elements at the flanks of building against arches' Thrust), & Ribbed Vaulting seems like praying to Heaven (God). Many of the world's most sacred places are from this period that includes Paris' Notre Dame & Chartres Cathedral.

6. Renaissance (1400~1600 AD) ---"Age of Awakening" particularly in Italy was a movement returning to the Classical Ideals of the Ancient Greece & Rome. After a long period of religious dominance, Artists & Architects resort to the Humanism of the secular world and emphasized Horizontal Elements of the Buildings.

It became possible with the advent of Tensile materials such as Iron with its Tensile Ring or Rod eliminated heavy Buttress. St. Peter at Rome or Cathedral at Florence are example.

7. Baroque / Rococo (1600~1800 AD) --- Early 1600 an elaborate & lavish style of buildings with a highly opulent & extravagant ornamentation for the privileged class began to emerge. Rococo was the last phase of Baroque period with more eloquent decorative design

& more graceful touch.

8. Beaux Art / Art Deco (1900~1935 AD) --- Beaux Art architecture is characterized combinations of classical Greek & Roman architecture with Renaissance ideals. Art Deco architecture embraced both the Machine age and Ancient time. Art Deco buildings have many of these features: Cubic forms, Ziggurat or groupings of rectangles or Trapezoids. The Chrysler Building of NYC is a good example.

9. Modern Architecture (1930~) ---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advent of new materials such as Steel & Glass and advancement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y provided the Modern Architecture with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Against a long domina tion of classical architecture, a group of young talented architects in the Central Europe embarked on new architectural movement in 1930s - this was the birth of the celebrated "Bauehouse Movement" with the slogan of "Less Is More". Since then this simple repeatable, light but strong, structures have dominated urban area throughout the world.



불로장생(不老長生)이 가능한가?

전무식 (수의 61)

건강과 장수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 람의 관심사였다. 현재 우리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첨단의학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장수 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현대인을 백세시대 인(HomoHundred, Centenarian)이라고도 부른다. 인간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보통 초경 연령의 약 10배= (12-13세)x10 배=약 120세

2) 신체 성숙 연령의 약 5배=24세x5배=약

3) 인체 세포의 평균 수명은 2,5년이고 세포 는 약 50회 분열 후 사멸하니 2.5년 x 50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 조건에서는 대 략 120세까지를 우리의 기대 수명으로 상정 할 수있다. 참고로 각 인체 세포의 평균 수명 은 위장의 점막세포: 2-3일, 피부세포: 3주, 적 혈구: 4개월, 백혈구: 3-20일, 뼈와 근육 세포: 약 10-15년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춘 비결

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세 포와 조직 단위에서 일어나는 퇴화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보통 성장 과정이 끝난 후인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게 마련이다.

우리 몸에서는 세포의 노화와 파괴가 지속 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파괴를 일으키 는 가장 큰 원인이 활성산소(Free Radical)이 다. 활성산소가 몸 안에 이곳저곳을 파괴해 서 조직이 약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흔히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염증이 수많은 만 성 질환과 심지어는 암의 원인까지도 될 수 있다.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 손상을 빨 리 회복(복구)하기 때문에 파괴 효과가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디게 회복됨으로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고 몸의 항산화 능력은 점차로 떨어져 빠르게 노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키 려면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을 막아야 한다.

그 밖에도 노화의 원인으로 과도한 스트레 스, 과식, 흡연, 음주, 공해, 자외선, 가공식품, 탄음식, 튀긴 음식, 달거나 짜게 절인 음식, 동물성 지방, 탄산 음료 등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영양 불균형이나 운동부족 등 여러 가 지 요인으로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 의 생활 습관에 따라 10여년이 더 젊어 보일 수도, 더 늙어 보일 수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 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자.

1. 편안한 마음가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 다. 심성이 따뜻하고 너그러워서 분노나, 원

망, 시기,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면 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 람이다. 잠시 아래 성경(잠언) 구절을 음미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 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 (잠

"자기 몸의 질병을 치료하려 거든 먼저 그 마 음의 병을 치료하라(欲治己疾,先治己心) - 허

-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얼굴, 목 등 상체 근육에 긴장이 풀린다.

- 破顔大笑(파안대소)를 하면 그 자체가 훌 륭한 근육 운동이 된다. (우리 몸의 약 650개 근육 중 230개 근육이 큰소리로 웃을 때 함 께 움직인다.)

- 웃으면 일시적으로 동맥 혈관이 이완되고 호흡 수가 증가되어 혈액에 산소공급도 더 많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 안색이 좋아 진다. 평소에 유머를 즐기고 과거에 즐거웠 던 추억을 떠올리며 하루에 몇 번식 크게 웃 어보자. 웃을 일이 없을 때라도 거울을 처다 보며 자신의 웃는 표정이라도 지어보면 스 스로 웃게 될 것이다. 잠시 일천 이백 여년 전 한 시인의 對酎(대주)라는 칠언절구의 시 한 편을 음미해 보자.

蝸牛角上爭何事(와우각상쟁하사=올챙이 뿔처럼 좁은 세상에 사는사람들아 무슨 일 로 서로 다투는가?), 石火光中寄此身(석화광 중기차신=부싯돌 불빛처럼 잠시 반짝하고 꺼져가는 허망한 인생이거늘), 隨富隨貧且 歡樂수부수빈차환락=부유하거나 가난하거 나 함께 즐기며 살아야지), 不開口笑是痴人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됨으로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가짐 이 결국 노화를 늦추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 하는 비결이다. 물론 사람의 성격이 하루아 침에 쉽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보자. 마음이 맞는 친구와 시 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 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친구는 당신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노 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많 은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일을 할 때 좋은 친 구가 그냥 한방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 해지고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느려진다는 연 구 결과도 있다. 좋은 친구나 친지가 많은 사 람이 외로운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25%정도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학교 동창회나 교회 모임 기타 친교 모임 등 에 가능하면 열심히 참석할 것을 권장한다.

2. 웃음이 노화를 지연시킨다 (一笑一少 ,一怒一老)

- 웃으면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통 증도 사라지며 기분도 좋아진다.

(불개구소시치인=입 벌려 웃지 않으면 바보 천치라네), -白樂天(백낙천)

3. 화병을 막아라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게 된다. 화를 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노화도 촉진된다. 너 무 자주 화를 내거나 작은 일로 화를 내는 것 도 나쁘지만 너무 오래 참아도 생기는 병이 " 화병=Hwabyeong"이다. 화병은 한국 문화에 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신의학협회 에서도 1996년에 인정한 의학용어(medical

4. 물을 자주 많이 마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의 70%가 물인 것처럼 우리 몸도 약 70%도 물로 되어 있다. 어린 아이들은 거의 90%가 물이고, 노인들 은 약 6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수척하고 병 약한 노인은 심하면 50% 정도만의 물이 체 내를 돌고 있으며 이보다 더 탈수가 진행되 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표면의 원소 비율이 산소(O) 46%, 규소(Si) 27%, 알루미늄 (Al) 8%, 철분(Fe) 5%, 칼슘(Ca) 3.6%, 나트륨 (Na) 2.8%, 칼륨(K) 2.6%, 마그네슘(Mg) 2.1% 로 이루어 진 것처럼 사람 몸의 원소 비율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 람을 빚으셨다는 성경 말씀에 수긍이 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세포가 물을 저 장하는 능력이 떨어져 탈수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 그 대표적인 부위가 피부이다. 탈수 가 되면 피부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나이가 들어 가면서 장운동이 약해져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가 흔히 생기는데 물을 많이 마시 면 장운동이 활발해져 소화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자리끼물 한잔을 마 시면 변비 예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잠든 몸을 깨우는 효과도 있어서 아침에 흔히 마 시는 커피 대신에 미지근한 물 한잔이 몸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보약이라고도 불린다. 간혹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 물 한컵을 마시 면 허기가 가시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 경우는 목이 마른 것을 배가 고픈 것으 로 우리 몸이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중조절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바로 음식을 먹지 말고 일단 물을 한 컵 마신 뒤 10분쯤 기다렸다가 그래도 배가 고 프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성인은 보통 하 루 평균 7-8cup(약 1.5 리터) 정도의 물을 천 천히 조금씩 씹어 먹듯이 마시는 것이 좋다.

* 노화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

첫째: 활성 산소가 몸속에 많이 생겨나서 자 신의 세포를 공격해서 녹슬게 하기 때문이 라는 설. 활성 산소란 짝지어지지 아니한 전 자(Free Radical)를 가진 유해 산소를 말한다. 그 수명은 매우 짧지만 순식간에 세포막을 파괴하고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체계를 파괴 하거나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를 변화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만성질환과 암 유 발 등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물질 이다. 이처럼 무서운 활성산소를 몸에서 적 게 생성하려면: 1)과식, 과음, 과로하지 않는 다, 2)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분노하지 않는다, 3)금연하고 인스턴트 식품(햄, 소시지, 탄산 음료, 햄버거 등)과 탄 음식, 튀긴 음식 등을 피하고 자외선 방사선 배기가스 화학 물질(농약, 중금속, 의약품)을 조심한다, 4)감염병 을 조속히 치료한다.

둘째: 단백질의 당화 현상 때문이라는 설: 지 나친 당분 섭취로(하얀 설탕, 하얀 밀가루, 백 미 등)인해 혈당이 급증하면 피가 끈적끈적 해지고 피 속의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 붙어 제 기능을 못해 세포들은 점점 더 녹슬고 늙 어 간다는 이론.

셋째: 1)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을 때 다량 분비되는 코티솔은 우리 몸 속에 나트 륨 지수와 혈압 수치를 올린다. 2) 잘못된 식 습관으로 인해 분비되는 다량의 인슐린도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중 년이 지나면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오메가3 지방산(DHEA), 멜라토닌(melatonin) 등의 젊음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노 화가 촉진된다.

1)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려면 양질의 수면(Non-Rem수면)을 유지해야 한다. 노화 를 지연시키려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장애 등을 극복해야 한다.

2) DHEA(노화방지호르몬)가 부족하면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촉진된다. DHEA는 부신(Adrenal gland)에서도 생성되고 성호르 몬(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으로 전환되는



293호 | **2018년 9월 호**

이종호 (인문 81)

현대 국가는 대부분 다민족 국가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 중국, 인도 등 큰 나 라들이 모두 그렇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도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나 난민을 받아들인다.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활력의 원천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일본, 이스라엘 같은 단일 민족국 가는 예외적이다. 유달리 혈통에 대한 집착 이 강한 우리도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보면 민족 순혈주의가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알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민 족 개념은 없었다. 신라는 당나라와 더 가까 웠고 백제는 왜(倭)와 더 친밀했다. 고려 때 도 다양한 이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았다. 대 표적인 경우가 발해 유민 포용이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족 등을 규합해 세운 나라다. 한 때 '해동성 국'이라 불리며 통일신라와 함께 10세기 중 반까지 우리 역사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다. 조선 초기 편찬된 '고려사'에는 926년 거란 에 의해 발해가 멸망한 후 얼추 12만 명의 유민이 고려로 넘어왔다고 기록돼 있다. 고

스테로이드이다. 적극적인 성생활을 할 때는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까지 상승 한다고 한다. 등 푸른 생선이나 굴 혹은 견 과류에 많이 있고 건강 식품으로도 구입이

3). 멜라토닌(Melatonin)은 수면의 질을 높이 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젊음의 호르몬이 라고도 불리며 약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수면은 심장 박동과 호흡 수를 줄이고 근육 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 등을 더 많이 분비 한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속설이 있는가 보다.

넷째: 체내 독소의 축적 설: 우리가 섭취하는 각종 음식이나 그 음식의 대사 과정에서 생 기는 수많은 독소들을 체외로 속히 배설(대, 소변이나, 땀, 호흡 등으로 시키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세포의 파괴, 변 이, 암 발생 등을 유발하고 세포나 조직에 염 증을 일으켜 결국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 이 된다는 이론이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과 4월 등 세 차례 에 걸쳐 필자는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가해 서 건강상 많은 유익을 경험한 바 있다. "Back to Eden Healing Center와, 천연 치유 연구원"). *디톡스(Detoxification) 란 단순히 몸 속의 축 적된 독소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 소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도 함께 각 장기로 부터 체외로 배출시킴으로 그 장기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영양소와 산소

현재 한국에 둥지를 튼 외국인은 200만 명 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며 혈액의 산성화 를 방지하고 온몸에 혈액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육식위주의 고지방식, 고칼로리 음식과 야채는 더 부드 럽고 맛있게 먹기 위해 가열까지 하여 각종 영양소 파괴로 인한 영양 실조와 영양 불균 형 상태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디톡스를 할 때는 관장을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며, 관 장을 통하여 대, 소장 장벽의 주름과(Circular Folds)과, 게실(Diverticulum)과, 융모(Villi)속에 깊이 감추어진 숙변(宿便)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다량의 레몬즙 등 유기산을 마시면 강 력한 유기산이 우리 몸속에 쌓인 각종 독소

와 노폐물도 함께 녹여 배출할 뿐만아니라,

간, 콩팥, 폐 등의 각종 장기와 혈관, 임파선,

관절, 인대, 근육 등에 축적된 독소들과 노폐

물도 함께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체내

의 각종 염증 산물과 내장 지방도 체외로 배

출시킴으로 원활한 혈액 순환과 동시에 깨

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노화 유전자설 2003년에 유전자 지 도("Human Genome Project")를 미국 정부와 민간인 합작으로 완성시킨 후 계속되는 눈 부신 연구성과로 여러 가지 노화 촉진 유전 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Age-1, Daf-2, Sirtuin유전자 등) 이 중 특히 "Sirtuin" 유전자는 사 람과 동물의 노화와 수명에 관련된 대부분 의 반응 경로를 조절하는 장수 유전자로서 공복 상태에서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래 후성 유전학(Epigenetics)설에 의하면 우리가 식생활과 일반 생활방식(규 칙적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개선하면 노 만 내세울 처지는 아니라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크게 융성 했던 나라들은 거의가 이민족에 대해 관용 을 베풀었다는 점이다. 로마, 페르시아, 몽골 제국이 다 그랬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

이 넘는다. 전체 남한 인구의 4%다. 그들은

결혼이나 취업 등 여러 경로로 한국 사람이

되었거나 되고 있다. 그 자녀들은 한국군에

까지 입대한다. 언제까지 한국이 단일 민족

던 당나라도 다른 어떤 시대보다 개방적이 고 인종적, 종교적으로 관대했다. 반대로 아 무리 강성했던 제국도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외 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다. 중동의 오스만투르크, 중국 명나라, 인도의

"유달리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도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보면 민족 순혈주의가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알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민족 개념은 없었다."

리게 되는 북방민족이다. 이들이 대거 고려 인이 되었다는 말이다.

'예멘 난민' 시험지

받아든 한국

려 전기 인구 200만 명의 6%에 해당하는 많

은 숫자다. 발해 주민은 지배층 10~20%만

고구려 계통이고 나머지 80%는 말갈족이

었다. 말갈족은 훗날 여진족, 만주족으로 불

고려가 몽골의 간섭을 받은 기간은 100년 가까이 된다. 그 동안에도 이리 저리 피가 섞였다. 조선시대에도 난리 통에 귀순해 온 여진족이나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 은 더 하다.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2017년

무굴제국 등이 그 예다.

에이미 추아 예일대 법대 교수는 '제국의 미 래(원제:Day of Empire)'라는 책에서 로마제 국의 융성은 "여왕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으로 피정복민을 받아 안은 데서 나왔다"고 했다. 미국도 그랬다. 서부 개척부터 산업의 급성장, 2차 세계대전 승리, 초일류국가 위

상 확립으로 이어지는 번영의 원동력은 이 민자들의 우수한 노동력과 재능이었다. 하 지만 9·11 이후 이민자 문제, 환경 문제 등에 서 다른 국가와 담을 쌓고 강력한 불관용 정 책을 펼치면서 미국도 몰락한 과거 제국들 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게 추아 교수의 진단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주의' 역시 결과적으로 미국의 쇠락을 재촉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다. 이념 과 사상의 대립 갈등을 넘어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 사상의 공존이 21세기 시대정신 이 되었다. 거기에 더 이상 자민족 중심주의 는 설 자리가 없다. 순혈 민족주의에의 집착 이 얼마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적이 되 고 있는지는 히틀러 독일이나 지금의 이스 라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미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계속 남을 수 있 을 지의 여부는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이 아 니라 자유, 민주, 평화, 인권, 관용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얼마나 앞장서는가 가 결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선 작은 나라 한국도 희망이 있다. 분단과 냉전의 상처로 깊이 아파 본 만큼 인류 보편가치의 소중함 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온 예멘인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들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로 한국이 들끓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어떤 답안을 써 낼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지금 남북회담에 이 어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지를 받아 들었다.

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 젊음을 5-10년 정도 되 돌 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Dr. Sara Gottfried MD의 "Younger", 이문현의 "난 치병, 생즙").

이들은 현재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파킨슨병 등의 성인병과 각종 만성질병을 호전, 치료 예방을 할수도 있다 고 주장한다. 장수를 목표로 무조건 굶거나 먹는 양을 줄이기 보다는 몸이 필요하는 만 큼의 각종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되 가능하 면 저 열량식(채소 위주로 그것도 생 야채 상 태로)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열량식->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영양분의 소화 흡수율 의 증가-Sirtuin의 활성화-H장 지방의 감 소→대장증후군을 예방→건강 장수로 이어 질 수 있다. 저열량식을 하면 세포자신의 잉 여 단백질을 모두 분해, 제거함으로 세포 청 소와 몸이 더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뇌세포의 활성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와 파킨슨 병 등을 호전시키는 효과도 기대 할 수있다고 한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운동은지속 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에너지 생산 은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cycle 에서 생산되며 그때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ATP 싸이클의 에너지는 채 일 분도 버티지 못 할만큼 지속력이 부족해서 계속 생산되어야 함으로 AMPK 라는 효소가 센서처럼 작동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 내 도록 지시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당이 지방으 로 변해서 이미 축적된 내장지방을 소모하 여 에너지로 쓰게 된다. 참고로 체중을 줄이 기 위해서는 걷기나 조깅을 최소 한 30분이 상 지속해야만 뱃살(내장지방)을 빼는데 도

5. 인체에 활력을 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들:

토마토, 시금치, 브록콜리, 등푸른 생선, 해 조류, 마늘, 양파, 고구마, 버섯 등이 노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다. 모든 채 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을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야채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미네랄 과 비타민과 효소들과 식이 섬유를 섭취하 려고 야채를 먹는데 채소에 열을 가해서 익 히면 Ca+O2=CaO(산화칼슘=흰석회)가 되 고 이것이 몸에 흡수되면 체액과 결합해서 CaO+H2O+CO2=CaCO3(Calcium Carbonate=탄산칼슘=하얀 석회석)이 될 수

이처럼 칼슘(Ca)+O2(가열하면)=CaO(산화 칼슘=흰색의 석회), 2) 마그네슘(Mg)+O2(가열하면)=MgO(산화 마그네슘=흑색의 결석. 3) 철(Fe)+O2(가열)=FeO(산화철= 적색의 녹) 등으로 변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야채를 익혀 먹으면 각종 미네 랄과 비타민이 불능화 되고 효소들이 파괴 (섭씨 50도 이상에서)되며 섬유질은 장벽에 붙어 숙변(宿便)으로쌓여 각종 독소를 만들 어 냄으로 장세포를 파괴,변이 시켜 장염과 심하면 대장암까지 생길수 있다.



한수웅 (의대 55)

지난 15년 동안 중국은 국사수정공정國史 修正工程을 가동하여 자기조상의 역사를 바로 잡느라고 많은 석학들을 동원하여 자 기들의 뿌리찾기운동을 전개한 결과를 최 근에 발표하였다. 즉 중국은 동북공정東北 工程을 2002년 초부터 시작하고, 중화문명 탐원공정中華文明探原工程을 2003년 6월 부터 발동하였고, 2007년부터 동북변강역 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輿 現 狀系列硏究工程을 단행하여 그 후속 정책 으로 중화中華역사를 수정하여 황하문명보 다 2000년 앞선 요하문명을 중화문명의 뿌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시선은 대단히 날카 롭다. 특히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고려의 연 원성을 끊고, 또한 고구려와 한국의 연원적 관계성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으로서 남북통일 이후에 북한지역에 영향권을 행 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이 한국으로 통합하 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전술이라는 시 각이 우세하다.

리라고 규정하였다.

얼마전까지 중원의 한족문화를 중심으로 동이東夷,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 있었다는 역사관을 고창하며 한족이 가운 데 있고 나머지 동서남북에 오랑캐, 야만민 족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화이관華夷觀을 자랑하고 있던 중국이 갑자기 중원의 한족 문명 및 양자강 문명을 뒤로 제치고 그보 다 2000년 이상 앞선 홍산문화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요하문명에 한족문명漢族文明을 접목시키는 일에 전국의 유명한 사학자, 고 고학자들을 내몽골 영역에 있는 적봉시赤 峰市에 집결시켜 기원전 몇세기에 거친 유 적 및 유물을 발굴하기에 분주하였다. 이 지 역이 만리장성 밖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 국이 몹시 당황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홍산문화의 탐험은 1906년 일본의 고고학 자 도리이류조우鳥居龍欌가 적봉赤峰일대 지표조사를 하던 중 우연찮게 많은 신석기 유적과 적석묘積石墓(돌로 쌓은 묘) 등을 발 견한 것을 위시하여 프랑스 예수회 신부 에 밀 리쌍(Emile Licent)이 22곳의 신석기 유적 을 발견하여 간단히 기록에 남겼는데 이를 본 중국 고고학도 양사영梁思永이 미국유 학에서 돌아가서1930년부터 내몽골 일대 와 흑룡강 등에 본격적인 발굴사업을 시작 하여 "열하고고 보고熱河考古報告"를 학계 에 보고하여 이것이 오늘날의 동북공정東 北工程의 모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실제적 발굴은 1935년 일 본고고학자 하마다 고사우濱田耕作에 의 하여 진행되었는데 그는 만주족과 몽골족 이 내몽골 동부에서 발원하여 중국의 한족 과 역사적으로 독립했음을 밝히려 대규모 의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때 발굴한 채도 와 세석기의 특징을 가진 이 문화를 1954년 홍산후紅山後를 기념하여 홍산문화라고 명

홍산문화(紅山文化)와 요하문명(遼河文明)

> 명하였다. (홍산 뒷쪽에서 옥기玉器가 많이 발견되어 중국어로 홍산호우라고 부른다.) 이에 중국은 2002년에 실시한 통일적다민 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에 입각한 연 구공정의 일환으로 중화문명탐원공정을 통 하여 황하문명보다 빠른 요하문명을 중국 문명의 시발점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이 를 중화민족과 중국사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 피력하였다. 더욱이 2012년 7월 초 내몽고 적봉시 오한 고조선의 강영과 도움이 入 表表替查 O 圣

기敖漢旗의 흥륭구興隆溝유적지에서 5300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소남신상陶塑 男神像을 발굴하여 인민일보에서 "5300년 전의 조상 발견, 중화조신中華祖神찾았다"

대단히 높은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1983년 요령성 건평현建平縣에 걸 친 넓은 지역의 우하량 유적牛河梁遺跡에 서는 기존의 홍산문화와 다른 거대한 제

사祭祀시설이 발견되었다. 돌로 쌓아 만든 분모墳墓나 제단祭壇이 5 km2 나 되는 넓 은 구역에 정연하게 분포되어 있다. 동시에 돌마루와 채색한 벽이 있는 신전神殿이 발 견되었고, 눈을 미취로 만든 여성 두상女性 頭像 도기陶器가 발견되어 "여신묘"라고 불 리게 되었다. 이 발굴과정에서 지하 1 m에 서 제단, 벽화, 돌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이 여신묘단에서 사람 크기의 세배나 되는 도 제陶製의 상像이 줄지어 있어서 이는 신 상神像으로 추정되며, 현재 중국문화에서 는 유례없는 사적이다.

이 여신묘에서 채도, 다량의 옥기 부장품副 葬品이 출토되고 그 부근에서 60개 이상의 석총고분石塚古墳이 발굴되었고 근처의 언 덕위에서 돌무덤이 발견되고, 이런 고분에 곰, 용 및 거북의 조각이 발견되어 이때 이 미 제물을 바쳤다는 지적이 생기고 있다. 선 문대의 사학과의 이형구 교수는 다음과 같

홍산문화의 주된 유적은 서요하 상류西遼 河上流의 지류인 황수黃水 및 토하土河유 역에 퍼져있는 타제석기, 마제석기, 세석기 등으로 그 대부분이 농기구이며 돌보습, 돌 재기, 돌호미 등의 종류가 많다. 홍산문화에 서는 농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축을 사육 한 축산도 발달하고 있어 돼지나 양을 길렀 다.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동물이나 야생초

이들은 비취 등의 구슬로 용 등을 본떠 만든 것으로 현대 중국문화에 연결된다. 저룡猪 龍 또는 옥저룡玉猪龍, 혹은 옥웅룡玉熊龍 등의 옥용의 조형은 단순하며 이들 용이 원 형으로 시작하다가 후기로 가면서 반용盤 龍, 문용紋龍 등이 출현한 것으로 보아 홍산 문화가 이후 중원에서 시작한 용의 숭배의 근원이라는 견해가 중국측의 주장이다. 용 외에도 비취 및 다른 석재로 돼지, 호랑이, 새 등도 조각하였는데 이런 공예의 수준이





옥으로 만든 용, 홍산 문화 출토품 (출처: 위키피디아)

"이런 석관을 쓰는 묘제는 한반도나 요동 반도, 시베리아 북방벨트를 따라서 많이 분 포되고 있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인 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에 서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이 런 석관묘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보다 2000년 정도 앞선 시기에 만들어 졌 습니다."

이 구역에서 중국의 옥기 전문가들이 옥을 자를때 쓴 도구를 발견하였는데, 옛날과 같 은 조건으로 옥자르기를 추시해 보았는데 대단히 시간 걸리는 정교한 작업임을 증명 하였다. 또한 홍산문화의 가장 놀라운 유 물은 흥륭와문화시대興隆窪時代(BC 6200-5200)에 치아수술齒牙手術흔적이다. 치아 에 뚫린 구멍의 직경이 모두 일치하고 도구 를 이용한 연마흔적도 발견되었다. 옥에 구 멍뚫는 기술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293호 | **2018년 9월 호**

이 우하량 유적의 발견이후 청동기를 거치 지않고도 국가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어 '옥기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 으며, 이것이 홍산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옥기를 만드는 장인집 단이 따로 존재했고, 신분이 분화되어 있 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소한 7등급의 신 분이 있었다고 중국학자들은 주장하고 있 다. 여신묘와 함께 저변이 20-30m의 3층 피 라미드식 적석총積石塚, 심지어는 저변이 60m 되는 7층 피라미드의 적석총를 쌓는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 단계 에서 이미 홍산문화가 국가단계 즉 초기문 명단계라고 보고 있다. 이 선사시대에 수장 국인 왕국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홍산학술문화원 박문원 원장의 또 다른 설명을 들어보자.

"요하문명은 초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인류사적으로 가장 큰 변혁기를 이 루어냈던 거대한 문명이었다. 유적이 발견 된 시점으로부터 본다면 B.C.7000년 전 소 하서문화小河西文化를 필두로 한다. 그렇 다면 소화서문화 이전에는 요하지역에 사 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전에 특별한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요하지역 에서는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들이 발견된 다. 사람이 살던 정확한 시점은 고고학적으 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

요하문명의 중기문화인 홍산문화 시기는 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제정일 치祭政一致시대였다. 여신상 등의 유적과 유물은 당시 모계사회였음을 입증한다. 이 시기는 묘에 옥기를 부장副葬하는 것이 특 징이었다. 옥기는 최고의 권력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도구류, 상징류, 장식류, 의 식류, 제기류로도 씌였다

홍산문화 이후에는 옥기를 부장하지 않았 으며, 사용목적도 주로 부족의 상징이나 의 식용품, 장식품 등의 용도로만 사용했다. 이 는 문명이 청동기시대로 진입했다는 증거

홍산인들의 옥기에서 인간의 예술적 본능 을 엿볼 수 있다. 풍부한 감성과 창조적 능 력, 예술적 욕구를 옥기로 표현했다. 옥기는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다. 옥기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하는 패용佩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기유물을 통해 요하지역에서는 아주 오 래 전부터 이런 문명이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로만 보아도 한민족의 역사는 절 대 5천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하문명과 우리 한민족과의 밀접한 관계성 역시 앞으 로 연구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제5의 문명이 이 지역에 서 발상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홍 산문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요하문명으로 불리우는데 이 문명을 중국 한족의 문명이 라고 독점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 하고 요원하다. 지역상으로 이는 중국의 만 리장성 밖에 위치하고 한족이 오랑캐라고 부르던 몽고족, 청족이 처음부터 살고 있던 곳이고, 고조선 및 고구려가 1400년 동안 실

효지배한 한민족韓民族의 영토이다. 더우 기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의 영토가 만 주일대와 지금의 러시아 땅까지 이르렀다 는 사실, 또한 고려가 끊임없이 북방고토수 복北方古土收復을 노렸다는 사실 등을 감 안하면 한민족이 사실상 이 지역을 지배했 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곳 이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곳이다. 사실상 만주 일대의 역사가 한민족 의 역사라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최근까지 도 중국은 만주의 동북 3성을 한족漢族의 관심밖에 두었으며 청제국 및 청족을 이단 시異端視하고 괄세하였다

이런지역에 황하문명보다 2000년이나 앞 선 문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충격 적인 사실, 즉 인류4대문명 외에 5대 문명 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그것도 한반도 전역 이 그 영향권에 있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 서 일본까지 한 몫 끼우려는 움직임은 과히 예상한 일이다.

이런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중국은 중국영토 에 사는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이고 그 지역 의 역사도 중국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족과 55개 약속민족을 하나의 단일한 중국 민족으로 둔갑하려는 소위 '통일적다민족 국가론'을 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민 족 자치구에 한족漢族을 이주시켜 한족의 세력을 부식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경 제적으로 한거름 더 발전하면서 정치적으 로 좀 더 자유로워지면 소수민족들이 제각 기 분할 독립을 원하여 지금의 러시아의 전 철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존 흥륭와 문화 옥결과 똑같은 모양의 옥결이 발굴되 었는데 기원전 6천년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흥륭와문화와 같은 모양의 옥 귀결이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유 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이 옥귀걸이도 기원 전 6000년 이상을 호가하는 유물이라고 한

한반도에는 흥륭와 형성기와 비슷한 시기 에 옥결이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옥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직선거리 로 400 km 떨어진 요령성의 수암에서 생산 된 옥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흥륭와일대 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토기도 문암리 유 적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기원전 6천년 에 흥륭와문화단계에서는 한반도 북부지역 과 요서, 요동지역이 하나의 단일 문화권이 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요하문명에 속하는 신락문화新樂文 化는 모계씨족의 정주취락定住聚落의 신석 기시대에 속하면서 기원전 8000-7000년으 로 소급된다. 신락문화는 요령성의 선양瀋 陽시 북부에 그 유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니 까 우리 요하문명이 지금부터 1만년 상고 대로 소급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성계의 위 화도회군만 없었더라면 이 요하지역은 우 리 영토로 남아 있을 번 했다. 애당초 라당 연합羅唐聯合만 없었더라면 우리민족이 요 하 문명의 발상지를 오느날까지 실효 통치 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고조선은 한반도 북 부를 포함한 만주땅을 호령하였고 일부 학 자들은 내몽고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 민족이 만주일대를 장악한 역사는 거의 기 원전 3000년 가까이로 까지 소급된다. 고구 려와 발해까지 포함하면 우리 한민족이 거 의 4000년 동안 지배한 셈이다. 그럼으로 고 조선, 고구려,부여, 말갈, 여진, 거란족, 몽골 족 등과 이 요하문명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사려되며 지금 중국의 한족까지 이 문화의 일부를 공유하였던 흔적이 여러가지로 나 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관계로 중국은 황하문명을 우리 요하문명에 접목시키려고 갖인 애를 쓰고 있다. 이는 마치 기독교를 유태교에 접목시키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처사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홍산문화로 대표되는 요하문명 의 종주국은 몽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및 청국이었고, 따라서 몽골, 만주족 및 배달민 족이 그 직계이고, 중국의 한족은 그 방계 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현재 진행 하고 있는 국사수정사업은 여러 당사국의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면밀히 연 구하고 토의한 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자 칫하면 수정이 아니라 날조의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구석기시 대 유물들이 90여 군데에서나 출토되고 있 는 형국이다. 한반도의 구석기 유물의 발굴 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함북 웅기군 굴포리 와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시작하였는데 시 간이 흐르면서 금강 유역, 한강 유역, 수원, 경주, 순천 등지에서도 출토되었다. 특히 단 양 금굴에서 약 70만 년 전의 한반도 최고最 古의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고, 평남 상원 동 굴에서 60만년 내지 40만년 전의 것으로 추 산되는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므 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 로 우리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대륙을 호 령하던 기상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져야 겠다.

그런데 한번도의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모양이 포탄모양을 하고 있 는 밑이 뾰족한 것과 화분모양을 하고 있는 밑이 납작한 항아리의 표면을 장식하고 무 늬모양이나 그릇의 형태가 북방 유라시아 의 캄케라믹(Kammkeramik)이나, 바이칼 지 방,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토기들과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된 유적은 한반 도안에 약 130개소나 되며, 주로 큰 강가, 해 안, 호숫가, 섬 등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 유 적에서 낚시바늘이나 어망추가 많이 발견 되는 점으로 보아 어업이 주업인 동시에 석 창, 돌설촉같은 수렵구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수렵의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 지만 지역 분포상태로 보아 농경문화를 배 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강원도 문암리에 서 발견된 이랑밭은 기원전 3000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로 및 수렵 및 채집으로 전개 되던 신석기 말기에 들어서면서, 해안의 일 부지역에서는 원시농경이 시작되었던 것으 로 보이며 이는 아마도 중국화북지방의 농 경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 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문화의 전파가 단선적으로 이루어 졌기 보다는 복선적으로 혹은 파상형으로 이 루어졌다는 견해가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흥륭와 일대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토기도 문암리 유적에서 충토되었 다는 점에서 기원전 6천년에 한반도와 요서, 요동지역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단일문화권 이 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돌아갈 수 없는 50년 전을 돌아본다. 나는 그때 20대였었지. 아 그리운 시절이여! 너 무나 멀리 떠나와 버렸군.

조동준 (의대 57)

아득한 그때가 그리워진다. 지금의 이런 시간이 올 줄 그리지도 못하면서 살아왔 었다. 볼티모어 어느 거리에서 청운의 꿈 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었지. 조금 은 부푼 꿈을 가지고서 말일세. 그런데 세 월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서, 50년을 그 냥 살아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처지에서 지나온 세월만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 니 말이다. 이런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 젠 남은 시간은 꼭꼭 씹어가면서 살아야 겠다. 실은 그동안 이 나라 50개 주에서 동 서남북을 헤쳐 다니며 살아온 셈이다. 동 서를 잇는 대륙 간 자동차 여행도 하면서 말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 해군에 들어가서 군의관으로 3년 복무하고 바로 한국을 떠나 1967년에 미국에 왔다. 가난 한 한국 정부에서 허락하는 100달러를 손 에 들고서, 비행기 표는 취직한 병원에서 선불해 주던 혜택을 받으면서 말이다. 생 각하면 그 당시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 라였었다. 그때 우리는 가능하면 미국으 로 떠나는 것이 대세였었다. 의대 동기 동 창 130명 중 84명이 미국으로 입국했으니

독일의 광부, 간호사와 같은 처지로 우리 는 이 나라에서 모자라는 의사 보충을 위 해서 이 나라의 정책으로 수입된 셈이다. 물론 이곳의 의사 자격시험을 치고 들어 왔다. 그 당시 한국 이외에도 인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 후 5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의사들 거의 모두가 은퇴해 현역에서 떠 나 있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 들어 온 외 국 의사의 친척들도 이민을 많이 와서 살 고 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이민자가 여기저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 이 민자는 여러 면으로 해서 이 나라에 찾아 들어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나온 50년을 뒤돌아보면 번개같이 지나 가 버린 세월, 이 나라에서의 세월을 후회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살지 못한 그동안 의 세월이 아쉽고, 도둑맞은 것 같다. 그 동안 물질적인 면에서는 별 부족함이 없 이 살아왔지만,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것 도 많이 있었다. 우선 7080 음악 이야기를 한다면, 그 노래들은 모두 생소한 것들뿐 이다. 한국에 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다. 그 당시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곳 생활을 몽땅 빼먹은 셈이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부모님을 두고 떠나 왔으니 부모님 과 함께 살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다시 돌 아오지 않을 부모님을 그냥 떠나보낸 것 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애통한 일이다. 얼 마나 자식들을 그리면서 기다리며 살아왔 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목이 메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함께 살아온 많은 친구와 정 을 끊고 온 셈이니, 돌이켜 보면 그 또한 엄 청난 것을 잃고 살아온 셈이다. 이제는 한 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영원히 바뀌 었다.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나 의 후손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 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동안 언어의 장 벽, 이곳 문화와의 갈등 없이 내 고향의 자 연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왔다면 지금쯤 나 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지만, 아쉬워서 한 번 생각해 보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조몬문화條文文化가 기원전 1만 3천년에서 기원전 3백년까지 일 본 전역에 산재해 있다가, 기원전 3세기에 한반도에서 쌀농사가 전래되어 야요이 시 대가 개막되여 금속시기가 출현하였다. 일 본인의 조상은 한반도를 거쳐간 몽골계 인 종, 시베리아를 통해 건너갔다고 추리되는 아이누족 및 남태평양 열도에서 온 민족들 이 되는 셈이다. 지정학적 여건으로 보아, 요하문명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래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요하문명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 가운데 한족의 중원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빗살무늬토기, 피라미드식 적석총, 비파형동검, 치를 갖춘 석성 등이다. 요하문명은 신석기시대를 대 표하는 4대 문화인 빗살무늬토기문화, 거석 문화, 채도문화, 세석기문화를 모두 수용하 고 거기에 옥문화까지 융합하였다는 점으 로 보아 이를 주도한 세력들이 당시 일고있 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개발했기 때문 에 가능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 4대 문화권이 중첩되고 융합된 곳은 지구촌에서 이 지역이 유일하다.

자랑스러운 우리 겨례의 슬기가 어데서 진 원하였는지 능히 추리할 수 있고, 또한 동시 에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오천년보다 훨신 유구하다는 사실을 터득할 수 있는 시점에 드디어 이른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동 아세 아의 모든 민족이 요하문명의 분신이며 그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어느 민족이 그 주류이며 또 누가 그 아류에 속하는지가 가려지는 찰라에 이른 것이다.

1. 1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

14세기 이후 약 200년 동안 안정을 유지하던 동아시아는 16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의 인접국가 인 중국 여진 일본 모두 자체적인 변동과 혼 란을 수반하는 가운데 대전란의 조짐이 배 태되고 있었다. 14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는 대륙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파 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16세기는 도리어 일본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거쳐 명나라에 미치는 흐름으로 반전되고 있었다. 임진왜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여기에 만주에 자리잡은 여진족이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정세는 더욱 긴박 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 명나라의 쇠퇴

15세기 명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황제와 사적 인 관계에 있는 유력한 인물 또는 집단이 황 제권을 대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양상 은 16세기까지 그대로 답습되어 왕의 측근 또는 환관이 권력의 주체로 부상하기에 이 른다. 정덕제(正德帝 : 1505~21), 가정제(嘉靖 帝: 1522~66)는 '환관 정치'를 조장한 대표 적인 황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환관은 중앙 권력을 잠식하는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융경제(隆慶帝: 1567~72)와 그의 아 들 만력제(萬曆帝: 1572~1620)의 초기 10년 은 수석대학사 장거정(張居正)이 정치적인 실권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한동안 환관정치를 저지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장 거정의 전권에 대한 반발로 생긴 동림당(東 林黨)과 환관의 대립은 후일 명나라 멸망의 근원이 되었다.

한편 16세기는 달단(韃靼)과의 대립이 격화 된 시기였다. 특히 가정제의 치세는 달단의 약탈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로서 1550년에는 수도 북경이 수일간 포위된 일도 있었다. 이 와 때를 같이하여 동남해안에는 이른바 '북 로남왜(北虜南倭)'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명나라는 1546년 급기야 해금령을 단 행하여 왜구의 약탈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제어력을 상실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북로남왜에 따른 재정 궁핍은 장거정의 개 혁정치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기 도 했다. 그러나 몽고의 항장 보바이의 반 란을 필두로 하여 만력제의 재위기간 중반 이후에는 각종 반란 사건이 속출하게 되었 다. 이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를 의미했 다. 설상가상으로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조선 에 원병을 파견하는 상황에 이르자 명나라 의 국력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2) 여진족의 성장

1424년 만주경략에 눈부신 성과를 올린 영 락제(1403~24)가 사망하자 만주에 대한 명 의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명나라 세 력의 약화는 곧바로 여진족의 성장으로 이 어졌다. 이에 16세기 후반에는 후일 여진족 을 통합하여 후금(청)을 건국하는 누르하치 가 만주의 실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그는 본 래 건주우위(建州右衛)의 장군으로서 소자 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탑주라는 인물의 아 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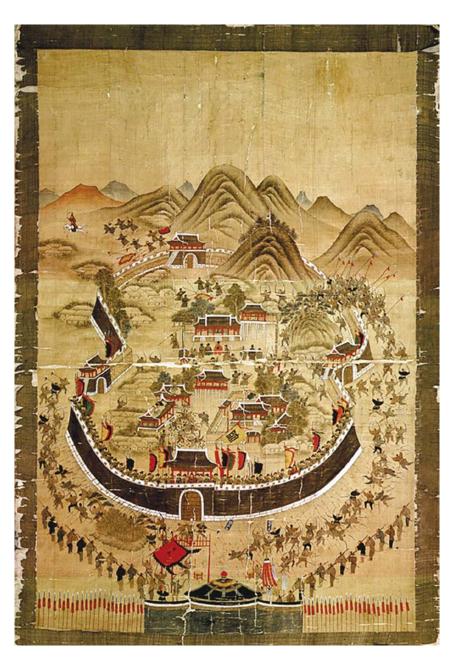
누르하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사 요약

이성무 (문리 56) 원저 제장명 수정 보완 제공: 이내원 (사대 58)

1583년(선조16)이후였다. 그는 명에 대해서 는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주위의 여 러 부족들을 차례차례 합병하며 강력한 세 력을 구축해 나갔다. 이런 선상에서 임진왜 란이 한창이던 1593년에는 해서여진과 몽 고의 연합군을 혼하 일대에서 대파함으로써 제국건설의 발판을 다졌다. 이때 그는 때마

일정권을 이룩하려는 조짐이 일었다. 이러힌 격동의 결과는 낡은 권위의 청산과 새로운 세력의 부상이었다. 한편 이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은 유럽인과의 접촉을 통해 각종의 서 양문물을 흡수하고 있었다. 특히 포르투갈을 통해 총이 유입되어 무력이 증강됨으로써 전술상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오다노



동래성 전투를 그린 동래부순절도, 출처: 위키피디아

침 의주로 피난 온 선조에게 사신을 보내 파 병의 의향을 보이는 등 여유를 과시하기도 했다. 명나라의 쇠퇴와 여진족의 흥기는 시 대적인 대세처럼 보였다. 이후 만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건국한 다음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게 된다.

3) 일본의 통일과 조선출병

16세기의 일본은 한마디로 '전국시대'였다.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권위가 실추되자 각 지의 호족들이 상호 치열한 투쟁을 계속했 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주도하에 서서히 통

부나가는 이 신식무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 여 통일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 결 과로 일본정치의 중심지인 쿄오토를 수중에 넣음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런 선상에서 오다노부나가는 1560년 반 | 대파를 물리친 다음 도쿠가와 이에야스(德 川家康)를 포섭하는데 성공하여 통일사업을 한층 더 앞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582 년 암살당함으로써 통일 사업을 완수하지는

오다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통일사업을 종료 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 吉)이었다. 그는 오다노부나가의 후계자라는 지위와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오사카 는 통일사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대두되었다.

293호 | **2018년 9월 호**

이후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평화를 맺 은 다음 1587년 구주정벌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사업을 완수하기에 이른다. 바 로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출병(朝 鮮出兵)'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1591년부터는 출병준비에 더 욱 박차를 가하여 대전란을 예고했다. 1592 년 4월의 임진왜란은 바로 그 결과였다.

2. 임진왜란의 경과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침략하여 부산 동 래를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북상을 계속했다. 왜군의 분탕 속에 연로의 백성들은 생목숨 을 강요당했고 강산은 피로 물들어갔다. 그 리고 무수한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선조는 백성들의 원망과 호곡을 외면한 채 서울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분노한 백 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지르고 노비문서를 소각했다. 왕과 조정에 대한 불만은 민심의 이반으로 표출되었다. 외침보다 무서운 내

1592년은 왕조 건국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였다. 경축하고 기념해야 할 그 해에 가장 참 혹한 병란을 당한 것이다. 그것도 미개한 야 만국가로 멸시하던 일본에게 덜미를 잡힌

표면적인 평화는 지배층의 문약을 조장하는 한편 현실감각을 무디게 했다. 사화와 당쟁 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이 심화되면서 국 방체계는 더욱 약화되어 갔다. 더욱이 1575 년(선조8) 사림이 동인 서인으로 분열함으로 써 내부적 단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남으로 는 왜, 북으로는 호족과 대치하는 이른바 남 왜북호(南倭北胡)의 상황에서 일각으로부터 국방강화책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성 없는 구 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란 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다.

1)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과 통신사의 파

16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라는 한 야심가가 출현하여 전국시대의 혼 란을 수습하고 일본 열도를 통일했다. 이에 '태양의 아들'을 자처한 도요토미는 점차 과 대망상에 빠져들고 있었다. "나의 이름을 동 양 3국에 떨치는 것이 소원이다"는 연설을 주저없이 내뱉었다. 이러한 도요토미의 성향 은 곧바로 대륙출병의 야욕으로 표출되었다. 공명심과 정복욕에 더하여 도요토미를 자극 한 것은 제후들에게 분배할 영지의 필요성 이었다. 이는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시 킴으로써 국내의 통일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신흥세력의 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 었던 도요토미의 본심과도 부합되는 일이

1586년 구주지방까지 제패한 도요토미는 더 욱 기고만장하여 주변국가의 국왕들에게 입 조를 독촉했다. 여기에는 명나라와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력을 앞세운 도요토미의 오만 앞에 국제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589년 11월 조선에서는 통 신사의 파견을 결정했다. 일본의 상황과 도 요토미의 본심을 탐지하기 위해서였다. 정사 는 서인 황윤길, 부사는 동인 김성일, 서장관 은 동인 허성이었다. 1590년 6월 대마도에 도 착한 통신사 일행은 대마도주가 말을 탄 채 로 조선의 사신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전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대마도는 조 선국왕의 조서를 받는 경제적인 속방이었기 때문이다.

7월경 일본의 수도 교오토에 도착한 통신사 일행은 무려 4개월을 기다렸다. 동북지방의 경략에 나섰던 도요토미가 돌아온 것은 그 해 11월이었다. 이때 도요토미는 통신사 일 행을 자신의 일본 통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 견된 복속 사절로 오인하고 있었다.

통신사의 눈에 비친 도요토미는 한 마디로 무례한 권력가였다. 그는 통신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본심을 감추는 데 부심했다. 국빈을 영접하 는 엄숙한 자리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침략의 야욕을 은 폐하기 위해서는 예의와 위엄을 상실할 필 요가 있었던 것이다. 도요토미의 이 모든 위 장술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일행은 그의 침 략의도를 나름대로 간파하고 돌아왔다.

1591년 3월에 귀국한 통신사는 곧바로 사 행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사 황윤 길이 침략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자 부 사 김성일은 그것을 부정했다. 서장 관 허성 과 김성일의 수행원 황진이 황윤길의 의견 에 동의했지만 김성일은 완강하게 반대했 던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보고로 조정에는 혼선이 빚어졌다. 요행을 바라던 조정은 반 신반의하는 가운데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했 다. 김성일이 소속되어 있던 동인이 집권하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나마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추진되고 있던 축성사업과 제반 방비책을 중지시켰다.

사실 조선은 김성일의 보고내용과 무관하게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도 요토미의 망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쪽 에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일이 황 윤길의 주장을 일축한 것은 민심의 동요를 우련한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즈음 도요토미는 '정명가도(征明假道)'의 구호로서 조선을 더욱 압박했다. 입공을 거 절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조선에 길을 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일각으로부 터 "조선이 나서서 명나라에 알선하여 일본 의 공로(貢路)를 열어주면 무사할 것이다"는 조언이 있었지만 조선은 이를 무시했다. 바 로 이 무렵 왜관(倭館)의 일인들이 일제히 본 국으로 소환되었다. 그것은 곧 전쟁을 알리 는 적신호였다.

2) 왜군의 침입과 북상

1592년 4월 13일 오전 8시에 출정을 명령했 다. 고니시(小西行長)가 거느린 제1번대가 부 산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였다. 임진왜란 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불시에 침입을 받은 부산진첨사 정발은 목숨을 걸고 항전했지만 왜군의 예봉을 막지 못하고 전사했다. 임진 왜란 최초의 패전이었다. 부산을 함락한 왜 군의 다음 공격 목표는 동래부였다. 동래부 사 송상현 역시 관민과 합세하여 왜군에 맞 서 고군분투했다. 참으로 치열한 전투였다. 그러나 그 역시 왜군을 방어하지 못하고 장 | 했다. 이에 우승지 신집이 민심을 진정하는 |

나고야에 20만 대군을 집결시킨 도요토미는

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이후 왜군의 북상로는 크케 중로-좌로-우로 의 3로(三路)로 구분된다.

중로는 동래-양산-밀양-청도-대구-인동-선 산-상주-조령-충주-여강-양근-용진나루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경로로서 주장은 고니 시였다. 좌로는 동래-장기-기장-울산-경주-영천-신녕-의흥-군위-용궁-문경-조령-충주-죽산-용인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경로로서 주장은 가토(加藤淸正)였다. 우로는 동래-김 해-성주-무계-지례-금산-추풍령-영동-청주 를 거쳐 경기도에 이르는 경로로서 주장은 구로다(黑田長政)였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 이 되는 공격로는 고니시의 1번대가 주축이 된 중로였다.

왜군의 침략을 보고받은 조정은 경악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좌의정 유성 룡을 총사령관인 도체찰사에 임명하는 한편 신립을 도순변사에 임명하였다. 그밖에 이 일성응길조경유극량변기변응성 등을 야 전 지휘관에 임명하여 전장에 투입시켰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취 해진 임시변통적인 조처에 지나지 않았다.

200년 평화의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 었다. 백성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군인이 무 엇인지도 몰랐다. 따라서 장수는 홀몸으로 전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한심하기는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수령들이 목 숨을 부지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런 상황에서 군병이 모여들 리 없었고, 가까 스로 소집한 병사들도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순변사 이일의 상주전투 패전에 이어 도순 변사 신립이 탄금대에서 패전함으로써 왜군 의 북상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완전히 수포 로 돌아갔다. 신립은 비장한 심정으로 배수 의 진을 치고 일대 결전을 벌였지만 끝내 달 래강의 혼이 되고 말았다. 선조와 조정 신료 들은 신립을 철석 같이 믿었다. 그가 반드시 왜군의 북상을 저지할 것으로 확신했던 것 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 이었다.

4월 29일 신립의 패보를 접한 선조는 피난 을 결심했다. 이산해 김귀영 등의 '도성 사수 론'이 한동안 선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지 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간이 반대하 고 종실이 애원했지만 선조의 마음을 돌리 지는 못했다. 더욱이 유생들의 궐기에도 불 구하고 선조는 그날로 피난을 강행했다. 이 에 선조는 유도대장 이양원과 도원수 김명 원을 남겨둔 채 세자와 조신들을 거느리고 몽진길에 올랐다.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임해군과 순화군이 함경도와 강원도로 파견 된 것도 이때였다.

임금이 도성을 버리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백 성의 분노는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의 방화와 형조장례원에 보관 중이던 노비 문서의 소 각으로 표출되었다.

3) 광해군의 세자책봉과 분조활동

신립의 패전과 선조의 피난으로 이어지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비상타개책으로 제시된 것이 광해군의 세자책봉과 분조 활동이었다. 당시 서울은 민심이 극도로 흉흉한 가운데 '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는 요언이 난무

방도로서 세자책봉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평 소 광해군을 신임하고 있던 선조는 영의정 이산해좌의정 유성룡등의 대신을 소집하여 그를 세자에 책봉했다. 신립의 패보가 전해 지던 4월 29일의 일이었다. 4월 30일 서울을 떠난 선조의 통치권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왕궁은 불타고 관리와 선비들은 죄다 도망 하였다. 심지어 도성 사수를 주장한 인사 중 에 단 한 사람도 서울을 지키다 전사한 사람 이 없었다.

선조는 한양·개성에 이어 평양이 함락되고

함경도까지 왜군이 침략하자 요동으로 망명 할 채비를 갖추었다. 이에 의주로 향하기 직 전 평안도 박천에서 세자 광해군으로 하여 금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본국에 머물도록 했다. 이때 조정을 양분하여 선조의 행재소 를 원조정,세자가 있는 곳을 소조정, 즉 분조 라 했다. 광해군의 분조는 공식적으로 1592 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16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분조에 배속된 관리는 영의정 최흥원 이하 이덕형 이항복 한준 정창연 김우 옹심충겸황신유몽인이정구 등 학식과 외 교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

광해군의 본질적인 임무는 분조를 통솔하여 국사를 권섭(權攝)하는 한편 실지수복과 국 가부흥을 위해 군국기무를 수행하는 일이었 다. 이외 종묘사직을 주관하는 것도 빼<mark>놓</mark>을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였다. 광해군에게 관 리에 대한 인사권과 포폄권이 주어지는 것 은 당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급선무는 민 심을 수습하고 군민을 격려하는 일이었다. 이에 광해군은 평안도황해도 강원도 등지 를 돌며 민관군을 위로하는 가운데 의병활 동을 독려하였다. 이런 와중에도 그는 분조 에 소속된 관리들의 보필을 받아 학문과 경 륜을 쌓을 수 있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 如松)은 "조선의 부흥은 세자에게 달려 있다" 고 말할 정도로 광해군을 높이 평가했다.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도 광 해군과 이여송의 신뢰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년 4월 위험을 무릅쓰고 호남지방 에 이르러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을 격려한 사실에서도 국란타개에 쏟은 광해군의 노력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광해군은 한동안 선조를 대신하여 전시 상황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성의 탈환은 뚜렷한 업적 가 운데 하나였다. 광해군은 1593년 분조가 해 체된 뒤에도 무군사로 활동하며 국란 극복 의 선봉에 섰다.

4) 의병의 봉기

5월 2일 서울을 함락시킨 왜군은 북상을 계 속하여 6월에는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이 과 정에서 관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이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한 왜군들은 각 처에서 분탕질을 자행했다. 바로 이때 8도에 서 의병이 봉기하기 시작했다. 관군의 무능 은 의병 봉기의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에 일 본에 대한 전통적인 우월감, 향토의식, 유교 적인 근왕정신이 발동하여 의병활동으로 분 출되었다. 의병은 양반에서 천인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 나 의병장의 경우는 양반유생과 전직관료 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의병의 총수는 2만 2,6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치는 관군 의 25%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곽재우-고경명-조 헌-김천일-김면-정인홍-정문부-이정암-우성

| 진-권응수-정세아-정대임-변사정-양산숙-최 경회-김덕령-유팽로-유종개-이대기-홍계남 손인갑-조종도-곽준-임계영-고종후-박춘무-김해-최문병을 들 수 있다.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경상우도였다. 이곳은 바로 의를 중시한 조식의 학문적인 본거지 이며 남명학파의 발상지였다. 홍의장군으로 유명한 곽재우 정인홍 조종도 곽준 이로 등은 모두 이 지역 출신의 의병장들이다. 특히 곽 재우는 왜군의 호남 진출을 차단하는 데 혁 혁한 공이 있었다. 조식의 수제자인 정인홍 은 의병활동이 기반이 되어 정치적인 거물 로 성장한 경우였다. 권응수 정세아 정대임은 영천성을 수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김해는 안동예안을 중심으로 경상도 북부 지역의 의병을 주도하였다.

고경명 김천일은 호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이 었다. 고경명과 고종후는 부자 모두 순국하 는 절의를 보였다.

충청도 의병의 대표적인 존재는 역시 조헌 이었다. 그는 일찍이 죽음을 각오하고 통신 사의 파견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정통 유 학자였다. 옥천에서 거병한 조헌은 청주성을 탈환한 다음 금산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다 7 백의사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

의병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적의 후방을 교 란시키는 게릴라 전술이었다. 따라서 그들 은 지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당초 조정에서는 의병을 사 병으로 간주하여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점차 관직과 특전을 부여하여 사기를 고양 시켰다. 의병은 이른바 오합지졸이 대부분이 었고, 향토 방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면 이 있었다. 심지어 사이비 의병이 등장하여 의병의 이미지를 변질시키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의병은 전란의 와중에서 근왕정신과 애 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호남의 곡창지대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승병도 의병활동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승병의 주축을 이룬 것 은 휴정(休靜: 서산대사)의 문도 들이었다. 승 려라고 해서 국난을 외면할 수 는 없었던 것 이다. 영규처영유정의엄은 대표적인 승병 장들로서 왜군의 격퇴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

5) 조명연합군의 반격과 화의론(和議論)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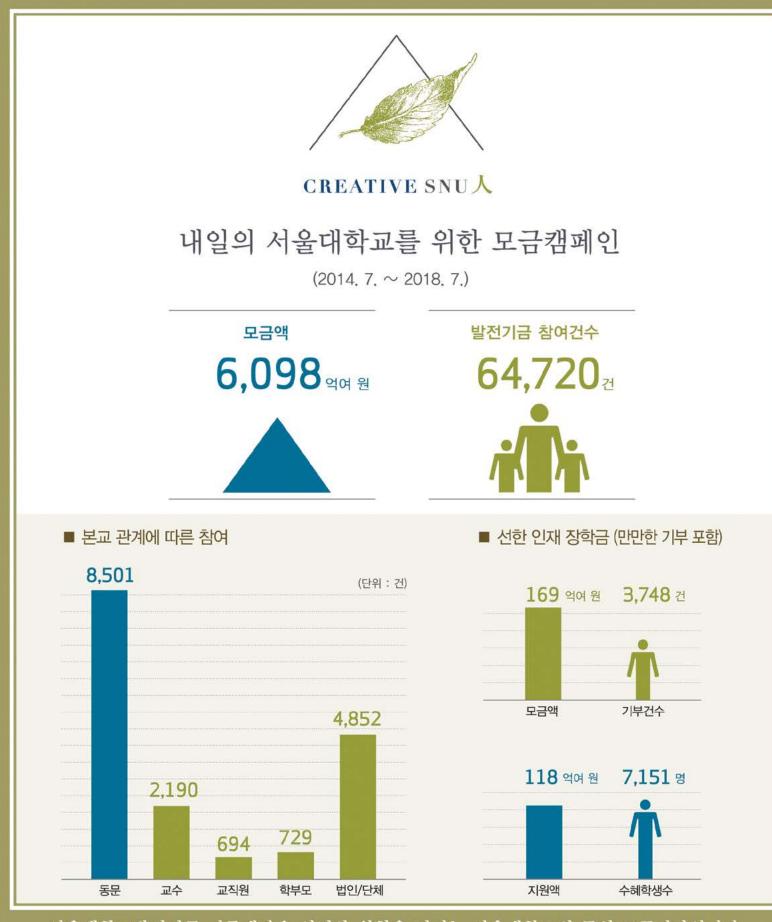
육지에서는 의병이 봉기하고, 남해안에서는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전세는 서 서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명나라의 원병이 참전함으로써 반전의 기미는 더욱 분명해졌다. 물론 조승훈의 1차 원군은 평양 전투에서 패전했지만 명나라의 개입 자체가 왜군에게는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상 황에서 1592년 12월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4 만 3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 다. 바로 2차 원군이 도착한 것이다. 전열을 정비한 이여송은 1593년 1월 8일 순변사 이 일휴정이 지휘하는 승병과 합세하여 평양성 을 공격했다. 연합군의 맹공을 견디지 못한 왜군은 성안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였다. 혈 전의 결과로 평양성을 탈환한 것이다. 이는 실로 반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www.snuaa.org (나눔의 에세이로 계속)

24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93호 | **2018년 9월 호** 293호

지난 4년간 동문님들과 함께 만든 서울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에 기부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서울대학교의 공식 모금기관입니다. 조성된 기부금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주재단을 통해 기부하시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212-768-9144 Fax: 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293호 | **2018년 9월 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참여 협력 영광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 978-835-0100 | F 978-353-1882

www.snuaa.org email: general@snuaa.org

제16대 (임기 2021. 7 ~ 2023. 6)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6대 동창회장 (임기 2021. 7 ~ 2023. 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손재옥 (제13대 회장)

제16대 회장 (임기 2021. 7 ~ 2023. 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a. 2018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2019년 6월 혹은 7월: 전국평의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 차차기회장 확정

2.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36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575 (2018. 7 ~ 2019. 6) 50 (2017. 7 ~ 2019. 6)	□ \$240 (2018. 7 ~ 2019. 6) □ \$480 (2017. 7 ~ 2019. 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 Charity Fund (나눔) \$
000 (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aa.org	□ Brain Network 후원금 \$ □ 모교발전기금 \$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mail:		Cell Phone:			
F 소:					

26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93호 | **2018년 9**월 호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등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발전기금 (12/6) 700	이건일 (의대 62) 125	임창회 (공대 73) 100	정태영 (문리 71) 600	<mark>워싱턴 주</mark>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이원섭 (농대 77) 100	전경철 (공대 55) 400	정혜숙 (간호 66) 65	
47,347.11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임필순 (의대 54) 100	전희택 (의대 58) 200	최선희 (문리 69) 200	하주홍 (경영 77) 25
(11/29) 6,511.97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전방남 (상대 73) 200	정동구 (공대 57) 500	최홍균 (공대 69) 1,000	T.T.O.
초도차히 비ㅈ그	서울메디칼 (3/15) 1,000 손재옥 (가정 77) 500	전상옥 (사대 52) 500 전영자 (미대 58) 350	정재훈 (공대 64) 270 정희영 (치대 58) 100	근이기에나	<u>조지아</u>
총동창회 보조금	신응남 (농대 70) 1,200	조형원 (약대 50) 500	조한원 (의대 57) 100	<u>루이지애나</u>	백성식 (약대 58) 75
3,000	심완섭 (의대 67) 1,800	최수강 (의대) 100	최은관 (상대 64) 300	강영빈 (문리 58) 2,000	주중광 (약대 60) 2,000
5,000	한남체인(3/15) 1,000	<u> </u>	하기환 (공대 66) 200		허지영 (문리 66) 2,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지부 분담금	하선호 (치대 81) 200	북텍사스	
	<u>나눔</u>				필라델피아
3,000		남가주 3,000	<u>북가주</u>	이석호 (공대 78) 200	
	김창화 (미대 65) 25	뉴욕 3,000		최종권 (문리 59) 200	김영남 (의대 61) 200
<u>업소록 광고비</u>	윤상래 (수의 62) 500	뉴잉글랜드 1,000	강정수 (문리 62) 125		김태환 (법대 48) 200
가능서 사내에 여자 240	황선희 (공대 74) 100	미네소타 300	김윤범 (의대 54) 200	<u>샌디에고</u>	김현영 (수의 58) 100
강호석 (상대 81) 240 김원탁 (공대 65) 240		북가주 500 북텍사스 550	김정희 (음대 56) 200 이성형 (공대 57) 150	김군빈 (법대 56) 75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김일영 (의대 65) 240	<u>모교발전기금</u>	생디아고 550	한상봉 (수의 67) 240	박우선 (공대 57) 200	서중민 (공대 64) 350
김창수 (약대 64) 240	권기현 (사대 53) 1,000	시카고 2,400	200 (1 4 07)	임춘수 (의대 57) 200	손재옥 (가정 77) 500
남욱현 (경영 84) 480	권철수 (의대 68) 100	알라스카 1, 2 400	뉴욕		송영두 (의대 56) 700
독고원 (공대 65) 240	심상은 (상대 54) 25	오레곤 300	<u></u>	시카고	신성식 (공대 56) 200
박종효 (의대 79) 240	유재환 (상대 67) 125	워싱턴 DC 2,000	강에드 (사대 60) 400		이만택 (의대 52) 200
서동영 (사대 60) 480	윤상래 (수의 62) 2,100	워싱턴주 600	김명철 (공대 60) 200	구행서 (공대 69) 100	이성숙 (가정 74) 250
석창호 (의대 66) 240	윤우용 (공대 63) 500	조지아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연화 (음대 68) 150	제갈은 (문리 59) 150
신동국 (수의 76) 240	오인환 (문리 63) 200	커네티컷 200	김재경 (농대 58) 200	오봉완 (법대 52) 260	전무식 (수의 61) 200
신응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240	임종식 (의대 51) 1,000 정동구 (공대 57) 500	캐롤라이나200테네시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두선 (공대 68) 100	이용락 (공대 48) 1,000 임근식 (문리 56) 500	주기목 (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500
업데된 (자대 61)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정태광 (공대 74) 100	플로리다 200	박상원 (문리 54) 40	조형원 (약대 50) 500	조화연 (음대 64) 150
염동해 (농대 74) 240		필라 1,500	방준재 (의대 63) 200	최희수 (문리 67) 75	지흥민 (수의 61) 400
윤세웅 (의대) 240	브레인 네트웍 후원금	하와이 300	배명애 (간호 47) 225	홍혜례 (사대 72) 225	
이경림 (상대 64) 720		하트랜드 300	배정희 (사대 54) 200		<u>플로리다</u>
이병준 (상대 55) 480	서동영 (사대 60) 200	휴스턴 300	신응남 (농대 70) 2,000	<u> 아리조나</u>	
이종묘 (간호 69) 240	신응남 (농대 70) 200		양거명 (약대 49) 25	HIOLIII (OLEII 10)	전영자 (미대 58) 50
이준영 (치대 74) 240 정정우 (수의 74) 240	오인환 (문리 63) 200 윤상래 (수의 62) 6,000	<u>후원금</u>	이경림 (상대 64) 185 이운순 (의대 52) 525	박양세 (약대 48) 200 지영환 (의대 59) 200	-1.11-1-1
정정우 (수의 74) 240 정재훈 (공대 64) 480	윤상래 (수의 62) 6,000 이병준 (상대 55) 1,000	SNUAA(KOREA) 6,000	이운순 (의대 52) 525 이전구 (농대 60) 1,100	진명규 (공대 70) 100	<u>커네티컷</u>
주기목 (수의 68) 240	정창동 (간호 45) 100	<u>3NOAA(KOKLA)</u> 0,000	이재원 (법대 60) 350	2811 (8-1170) 100	김기훈 (상대 52) 200
지흥민 (수의 61) 240	한재은 (의대 59) 500	<u>남가주</u>	이준행 (공대 48) 3,000	오레곤	유시영 (문리 68) 50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전재우 (공대 61) 200		200
	수재민 돕기 후원금	김 영 (수의 63) 500	정인식 (상대 58) 200	김상순 (상대 68) 500	
<u>광고비</u>	0.11711.4.47	김영순 (음대 59) 400	정창동 (간호 45) 75	송재용 (의대 69) 200	<u>케롤라이나</u>
DUO Info. 1,200	윤상래 (NE) 300 정정욱 (NE) 200	김원탁 (공대 65) 200 김인종 (농대 74) 2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0400	한광수 (의대 57) 400
DUO Info. 1,200 DUO Info. 400	정정욱 (NE) 200 고일석 (NE) 200	김일영 (의대 65) 200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u>오하이오</u>	
DUO Info. (10) 400	김문소 (NE) 100	김재영 (농대 62) 240	허선행 (의대 58) 400	김동광 (공대 62) 50	하와이
DUO Info. (11/6) 400	김연화 (음대 68) 200	김종표 (법대 58) 500	허유선 (가정 83) 100	성홍완 (수의 75) 200	<u> </u>
DUO Info. (12/8) 400	신응남 (NY) 200	김진형 (문리 55) 1,500		송용재 (의대 63) 200	김승태 (의대 57) 600
DUO Info. (1/9) 400	손재옥 (PA) 1,000	김창신 (사회 75) 100	<u>뉴잉글랜드</u>		
DUO Info. (2/8) 400	황선희 (PA) 200	노명호 (공대 61) 3,000	= 0111	<u>워싱턴 DC</u>	<u>하트랜드</u>
DUO Info. web (2/23) 500	합계: 2,400	문석면 (의대 52) 200	고일석 (보건 69) 1,000	가기조 (OFFIL CO) 200	이면소 (기점 60) - 500
DUO Info. (4/2) 400 DUO Info. (4/30) 400	エレキレコ	민수봉 (상대 55) 25 박인창 (농대 65) 100	김문소 (수의 61) 80 김병국 (공대 71) 65	강길종 (약대 69) 200 권철수 (의대 68) 200	오명순 (가정 69) 500 이상강 (의대 70) 10,000
DUO Info. (6/11) 400	<u>장학금</u>	박종수 (수의 58) 2,100	김선혁 (약대 59) 100	박용걸 (약대 56) 200	최은관 (상대 64) 300
DUO Info. (9/5) 400	김기형 (경영 75) 125	방석훈 (농대 55) 200	김은한 (의대 60) 1,250	박평일 (농대 69) 600	기는 년 (8 대 아) 500
JayoneFood (1/22) 1,800	김동훈 (법대 56) 100	백옥자 (음대 71) 400	김정환 (공대 52) 200	백 순(법대 58) 200	<u> 휴스턴</u>
KCCnews.net (8/15/18) 200	김은섭 (의대 53) 100	위종민 (공대 64) 200	김제호 (공대 56) 100	서윤석 (의대 62) 300	
KISS (1/17) 3,000	김현학 (의대 57) 100	유재환 (상대 67) 200	송미자 (농대 62) 65	신상균 (의대 52) 500	김옥균 (공대 54) 200
NY Golf (6/18) 1,000	박용걸 (약대 56) 150	이건일 (의대 62) 300	윤상래 (수의 62) 40,100	오인환 (문리 63) 200	진기주 (상대 60) 500
NY Golf (8/9/18) 1,000	백원일 (농대 70) 500 시그영 (상대 64) 100	이명선 (상대 58) 500 이범모 (치대 74) 2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문항 (공대 46) 100 이영무 (공대 50) 200	최영기 (공대 63) 200
SeAh 이병준 1,500 SNUAA, Inc (남가주) 500	신규영 (상대 64) 100 신응남 (농대 70) 300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4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영묵 (공대 59) 200 이인옥 (68) 25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 은 모
SNUAA, Inc (남가주) 700	심상은 (상대 54) 1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이희규 (공대 69) 200	장효열() 100	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
T. H. & Asso. 1,000	오인환 (문리 63) 650	이영송 (치대 63) 400	전신의 25	최준호 (공대 60) 25	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하
김승호 (공대 71) 400	유재환 (상대 67) 100	이영일 (문리 53)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한의생 (수의 60) 200	드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ㄴ명층 (고대 61) 1 000	이사레 (스이 62) - E600	이성차 (치대 75) 200	저저은 (이대 60) 1 40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노명호 (공대 61) 1,000 요상래 (수의 62) 5,600 이현찬 (치대 75) 200 정정욱 (의대 60) 1,400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293호 | **2018년 9월 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27

전실실 19	남가주	오양숙 (간호 60)	강재호 (상대 57)	박순영 (법대 56)	박종건 (의대 56)	안창현 (의대 55)	안선미 (농대 65)	박준섭 (약대 63)	l .
변경수 변경 50 전 1 20 전 1 2					배지선 (수의 94)	오봉완 (법대 52)			
*** *** ***	3.G VI V								
22년 10년 48	강경수 (번대 58)								
경용 (마디 56) 신원 (마디 51 이 건설 (마디 51) 변경 (마디 51) 전원 (마디 51) 이원보 (마디 51) 전원 (마디 51) 변경 (마디 51) 전원 (마디 51) 전경									CI
고등에 대한 명 : 1								LAYDALLAS	
정점에 (대한 19) 이전에 (대한 18) 성질을 (대한 19) 성질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9)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성질을 (대한 18) 이전을 (대한 18) 성질을 (이하/노데 (()	
2 전쟁 (전쟁 2 이 이외에 (제대 2 2 이 변속 준비 5 이 변속 준비 5 이 이외에 (전쟁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전문 (대 15 이 이행을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행을 (대 15 이)) 의 (대 15 이)) 의 (대 15 이)									
전용한 (대명 19) 이 이유한 (대명 15) 이									홍성휘 (공대 56)
- 전용은 (변대 50) 이스플 (인터 50) 부분									• • • • • •
전용한 전문 10 10 10 10 10 10 10 10									캐롤라이나
응용한 (전대 5) 이용없 (인대 5)					LV/NV				SC/NC/KY
전상선 (12 H2 5) 이 기업을 (12 H2 57 70)								PA/DE/S.N ^J	
전상자 (대전 19) 이용에 (관한 20) 는 스카인 (대전 18) 문제 (대		이영일 (문리 53)			\ , ,				
2년속 (1 전 5) 이용 (근임 73)	김선기 (법대 59)	이영현 (간호 70)*	신규영 (공대 64)	우상영 (상대 55)	김택수 (의대 57)	조의열 (의대 60)		강영배 (수의 59)	
	김순자 (치대 57)	이원익 (문리 73)	윤성희 (사대 58)	유재섭 (공대 65)		조형원 (약대 50)	이진호 (공대 46)*	김규화 (상대 63)	
전용 (대 5) 이용한 (지대 5) 이용한 (대 6) 이용한									
20일 (이 10점 (이 10점 (전 10점) 이성성 (전 10) 이익성 (전 10)									
24억 (17% 60)									
20년 (20대 60 0 의중는 (14 60 16 20대 50 16 20대 60대 50 16 20대 60대 50 16 20대 60대 50 16 20대 60대 50 17 20대 60대 50 17 20대 60대 50 18									
전쟁 (대표 5) 전쟁									
- 전심형 (은리 5) 이 지원 (는데 15) 경우 (는데 15) 기업 (는데					MINNESOIA				TENNESSEE
전점은 (대표 53) 이전로 (대표 54) 경우에 (대표 54) 이상은 (대표 55) 이경우 (71711 = /	ARIZONA			
점취						기어도 (난테 40)			김경덕 (공대 75)
임원 (전대 53) 이런는 (지대 75) 학원수 (군리 54) 이 자원 (대대 66) 영화수 (대대 56) 이 자원 (대대 67) 이 자원 (대대 68) 이 자원 (대대 68) 이 지원 (대대 68) 이 자원 (대대 68) 이 지원 (대대 68) 이		이재선 (농대 58)							• • • • • •
28학 (14 6) 등로 (14 5) 한당 (14 5) 이 전쟁 (14 6) 이 전쟁 (14 6) 등로 (14 6) 등로 (14 5) 이 전쟁 (14 6) 이		이창무 (공대 54)				, ,	워싱턴주		하와이
실하여 (사다 66) 18등군 (이대 57) 18등차 (의대 66) 19평균 (에대 58) 19평균 (상대 57) 19ም균 (사대 57) 19ም균					주한수 (수의 62)		WASHINGTON		HAWAII
나는 없는 (2대 6) 나는 아무 (2대 6) 나는 아무 (2대 6) 나는 아무 (2대 5) 전경철 (2대 5) (2대 6) 나는 아무 (2대 5) 전경철 (2대 5) (2대 6) 나는 아무 (2대 5) 전경철 (2대 5) (2대 6) (2대 6) (2에 6) (2	김희재 (사대 66)	임동규 (미대 57)	황동하 (의대 65)	이재원 (법대 60)		오하이오		신의석 (공대 53)	
나면우 (금마 6) 입원성 (지대 59) 유용 (공원 (2) 15 (2) 보험호 (금비 50) 원칙선 (경비 50) 의용호 (의대 53) 상용호 (의대 53) (의원인 (구의 73) 상용호 (의대 53) 이문호 (의대 54) (의원인 (구의 73) 상용호 (의대 53) 이문호 (의대 54) (의리 54) (의원인 (구의 73) 상용호 (의대 53) 이문호 (의대 54) (의리 54) (의원인 (구의 73) 상용호 (의대 53) (의원인 (구의 73) (의원인 (구의 73) 상용호 (의대 53) (의원인 (구의 73) 상용호 (의대 53) (의원인 (구의 73) (의원인 (의리 73) (의원인 (의원인 (의리 73) (의원인 (의리 73) (의원인 (의리 73) (의원인 (의리 73) (의원인	김희창 (공대 64)	임동호 (약대 55)	황만익 (사대 59)	이정은 (의대 58)	샌디에고	OHIO	김인배 (수의 59)	심영석 (공대 76)	김승태 (의대 57)
나는 등은 (Ref 5) 전쟁을 (Ref 55) 전쟁을 (Ref 55) 전쟁을 (Ref 48) 이출조 (Ref 63) 전쟁을 (Ref 57) 전쟁을 (Ref 58) 이원을 (Ref 57) 이원을	나두섭 (의대 66)	임문빈 (상대 58)		이종석 (상대 57)	SAN DIEGO		김재훈 (공대 72)	심완섭 (의대 67)	
나용호 (문리 59) 전경점 (문대 57) 경로 (인대 57) 전경점 (문대 57) 전경조 (전대 54)* 전경조 (연대 57)* 전경조 (연대 58)* 인구 (연대 58)*					0	김동광 (공대 62)*			
보험호 (문라 5)) 전상우 (사대 52) 전상으로 (사대 52) 전성으로 (사대 53) 인수의 (상대 54) 인수의 (상대					강영호 (의대 57)				
문병하 (대 51)** 정동주 (공대 57) 경고숙 (건호 73) 전성진 (사대 54)** 박경호 (사대 53)** 박경호 (사대 53)** 박경호 (사대 53)** 박경호 (사대 57)**			145/141						
문항상 (엄대 51)* 정동주 (구청 72) 간에도 (사대 60) 정동성 (안대 55) 정제훈 (공대 64) 제동회 (지대 67) 정원운 (안대 55) 정원훈 (안대 56) 청원훈 (안대 56) 원청운 (안대 56) 원청운 (안대 56) 원청운 (안대 56) 임청수 (간조 64) 안방난 (안대 77) 전문식 (수의 61) 전망난 (안대 77) 전문식 (수의 61) 전망난 (안대 78) 전원호 (안대 77) 전문식 (수의 61) 전망난 (안대 78) 전원호 (안대 79) 안보건 (장대 64) 보충건 (안대 55) 김광현 (안대 57) 감원후 (안대 55) 경원훈 (안대 56) 임청수 (안대 56) 김광현 (안대 57) 조원연 (안대 57) 감원후 (안대 56) 임청수 (안대 58) 원청선 (장대 57) 감원후 (안대 56) 임청수 (안대 58) 원청선 (장대 57) 감원후 (안대 56) 임청수 (안대 58) 원청선 (장대 57) 감원후 (안대 56) 임청수 (안대 58) 원청선 (장대 58) 전원호 (안대 58) 원청선 (장대 58) 원청연 (양대 52) 원청연 (양대 58) 원청			가교수 <i>(</i> 가ㅎ 73)						
문인일 (공대 51) 정책훈 (공대 64) 세동취 (지대 67) 정인용 (임대 55) 전원용 (임대 55) 전원일 (임대 77) 인소로 (공대 56) 이술숙 (건전 57) 이상로 (공대 56) 이성숙 (건전 77) 전원일 (임대 77) 원건수 (공대 64) 액수준 (안대 55) 전청후 (안대 55) 전청후 (안대 77) 박간수 (동대 64) 약구수 (사회 77) 모양은 (상대 63) 건관후 (임대 57) 건원수 (상대 63) 박간수 (동대 64) 약구수 (사회 61) 건관후 (악대 59) 학주수 (임대 55) 학주후 (의대 57) 전성후 (관대 64) 약후수 (사회 61) 건문주 (악대 59) 약후수 (의대 57) 전성후 (관대 64) 약후수 (사회 65) 전성후 (관대 64) 약후수 (사회 65) 전성후 (관대 64) 약후수 (사회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약후수 (사회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성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관대 65) 전상후 (관대 64) 전상후 (
박명근 (상대 63) 병 경 행 (공대 64) 생강 (유대 65) 전원 (의대 65) 전경향 (의대 65) 전경향 (의대 70) 전성후 (유대 64) 학원형 (지대 58) 학원형 (의대 57) 전경향 (의대 67) 전성후 (유대 64) 학원형 (지대 58) 학원형 (의대 57) 김명형 (상대 67) 건명한 (의대 57) 김명형 (상대 67) 건명한 (의대 57) 김명형 (상대 67) 건명한 (의대 57) 김명형 (의대 59) 학원현 (의대 57) 김병형 (의대 58) 학원현 (의대 57) 김병형 (의대 58) 김경향 (의대 58) 의원형 (의대 58) 의원형 (의대 58) 김병형 (의대 58) 김경양 (의대 58) 의원형 (의대 59) 의원형 (의대 59) 의원형 (의대 59) 의원형 (의대 59) 의원형 (의대 58) 의원형 (의대 58) 의원형 (의대 59) 의원형 (
박무성 (사회 77) 전망성 (상대 58) 과선션 (공대 57) 고당성 (지대 58) 과선션 (공대 57) 고당성 (지대 58) 가능성 (지대 57) 고당성 (지대 58) 고당성 (지대 57) 고당성 (지대 58) 고당성 (지대 57) 고당성 (지대 57) 고당성 (지대 58) 고당성 (지대 57) 고당성 (ALASKA			AR/OK
박구성 (사회 77)						O케즈 4 테 = 0			
박원수 (농대 57)									
박인수 (농대 64)* 박상규 (악대 59)* 조재질 (사대 61) 김윤경 (악대 61) 김윤경 (악대 61) 김윤경 (악대 62) 각함수 (오대 59) 학태호 (지대 66) 조한원 (의대 57) 전병수 (오대 59) 학태호 (지대 66) 조한원 (의대 57) 전병수 (오대 68) 기원 (양대 58) 기원 (양대									
박창규 (약대 59)* 조재길 (사대 61) 김문경 (약대 61) 김병숙 (약대 56) 조종수 (공대 64) 조종수 (공대 64) 기병숙 (약대 52) 기원숙 (양대 52) 기원숙						오레곤			이상강 (의대 70)
박창선 (공대 55)					시카고	OR/ID	UTAH/NV		차봉희 (의대 51)
박당선 (공대 55) 조태준 (윤리 59) 김병숙 (보건 65) 조종수 (공대 64) 조현원 (의대 57) 김병호 (악대 52) 조종원 (62) 고병철 (범대 55) 보호현 (의대 52) 자라만 (방대 53) 김상만 (법대 52) 자라만 (방대 54) 김성한 (악대 54) 김성한 (악대 55) 김성한 (악대 55) 김성한 (악대 56) 김성한 (악대 56) 김성한 (악대 56) 김성한 (악대 55) 김성한 (악대 55) 김성한 (악대 58) 청경자 (악대 63) 김성한 (악대 55) 방향용 (문리 71) 김영철 (식대 55) 방향용 (문리 71) 김성희 (간호 53) 한병용 (문리 71) 김성희 (안대 58) 삼청한 (악대 56) 학원형 (유리 71) 김상한 (악대 56) 학원형 (유리 71) 김상한 (의대 58) 상청한 (의대 57) 김성희 (의대 58) 상청한 (의대 58) 상청한 (의대 57) 김성희 (관리 58) 상천형 (의대 58) 상청한 (의대 57) 김성희 (관리 58) 상천형 (의대 58) 상청한 (의대 57) 김성희 (관리 58) 상천형 (의대 58) 상청한 (의대 57) 김성희 (관리 58) 상천형 (의대 58) 상천형 (상대 54) 용천 (의대 53) 왕천수 (기급 54) 상천형 (의대 58) 상천형 (상대 54) 왕천수 (기급 58) 상천형 (공대 56) 김원후 (의대 58) 상천형 (공대 56) 임원후 (의대 58) 상천형 (공대 56) 임원후 (의대 58) 상천형 (공대 56) 임원후 (의대 58) 상천형 (의대 58) 상천형 (상대 54) 왕천수 (기급 54) 왕천수 (의대 58) 왕천수 (기급 54) 왕천수 (기급	박창규 (약대 59)*		김문경 (약대 61)		IL/IN/WI/MI				
박호현 (의대 57) 심형술 (악대 52) 전송원 (62) 고병철 (업대 55) 부호현 (의대 59) 박호현 (의대 59) 보호현 (의대 59) 보충현 (의대 59) 대통완 (공대 65) 지인수 (상대 69) 건성현 (악대 56) 최주진 (의대 55) 최종진 (의대 55) 기원 (상대 65) 보형원 (의대 57) 보험용 (공대 57) 기원 (상대 68) 보험용 (공대 57) 건성현 (악대 56) 보험용 (공대 57) 기원 (상대 69) 보험용 (공대 57) 건성현 (악대 56) 보험용 (공대 57) 기원 (상대 58) 보험용 (공대 57) 기원 (공대 66) 보험용 (공대 57) 기원 (공대 68) 보험용 (공대 57) 기원 (공대 68) 보험원 (공대 57) 기원 (공대 68) 보험의 (공대 68) 보험원 (공대 57) 기원 (공대 69) 보험원 (의대 58) 보험원 (공대 57) 기원 (공대 68) 보험원 (공대 58) 보험원 (공	박창선 (공대 55)	조태준 (문리 59)	김병숙 (보건 65)	조종수 (공대 64)		김상순 (상대 68)	김인기 (문리 58)	조영호 (음대 56)	
박호현 (의대 52)	박태호 (치대 66)	조한원 (의대 57)	김병술 (약대 52)	조종원 (62)	고병철 (법대 55)	• • • • • •	이 관 (공대 55)	조정현 (수의 58)	
변영근 (수의 52) 지인수 (상대 69) 김성현 (약대 56) 최구진 (약대 54) 시청존간 (역대 55) 시청존간 (역대 55) 시청존간 (역대 55) 시청존간 (역대 56) 시청존간 (역대 56) 시청존간 (역대 56) 시청존간 (역대 57) 시청존간 (역대 58) 시청온 (역대 57) 시청온 (연대 57) 김영후 (공대 57) 김영후 (원대 58) 사동영 (사대 50) 시청후간 (유대 56) 김유준 (산대 50) 시청후간 (유대 56) 김윤주 (상대 50) 시청후간 (유대 56) 김윤주 (상대 50) 사상후 (공대 57) 김향후 (역대 64) 김장후 (역대 64) 김장후 (역대 64) 김장후 (역대 64) 원형수 (유대 61) 김경후 (영대 58) 상상후 (공대 59) 시상후 (공대 59) 시청후간 (공대 59) 김용후 (유대 50) 신상후 (공대 59) 김현후 (유대 50) 김원후 (유대 50) 신청후 (상대 58) 홍선원 (유대 70) 김현후 (의대 50) 원형수 (임대 53) 김후수 (의대 50) 원형수 (임대 53) 임원후 (유대 50) 신청후 (상대 54) 공후수 (의대 50) 김현후 (유대 63) 임원후 (유대 63) 임원후 (유대 64) 임원후 (유대 64) 임원후 (유대 65) 임원후 (임대 53) 임원후 (임대 53) 임원후 (임대 53) 김후수 (임대 50) 임원후 (임대 53) 임원후 (임대 58)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8) 임원후 (임대 58)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8)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8)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8) 임원후 (임대 58) 임원후 (임대 59) 임원후 (임대 58) 김원후 (박호현 (의대 52)		김상만 (법대 52)	차국만 (상대 56)	구경회 (의대 59)		• • • • • •	조화연 (음대 64)	110031014
배동완 (공대 65) 차민영 (의대 76) 김영무 (공대 75) 최조진 (의대 75) 최진영 (공대 75) 기한영 (공대 75) 최진영 (공대 75) 최진영 (공대 75) 기한영 (공대 77) 최진영 (공대 75) 기한영 (공대 77) 최진영 (공대 75) 기한영 (공대 77) 기한영 (의대 75) 기안영 (김기준 (공대 61)
##병옥 (음대 58) 최경자 (약대 63) 김영애 (사범 56) 최진영 (문리 55) 김길중 (의대 59) 강연식 (사대 58) 전형학 (의대 57) 최정웅 (공대 57) 최정웅 (공대 57) 학병용 (문리 71) 한병용 (문리 71) 김로사 (의대) 공순옥 (간호 66) 강창석 (의대 73) 최정웅 (공대 64) 최준희 (의대 53) 박석규 (간호 56) 박유미 (약대 62) 김영희 (간호 53) 감연학 (의대 58) 강영수 (의대 61) 김영희 (간호 53) 김유순 (간호 64) 김유순 (간호 64) 김유순 (간호 64) 김유수 (안대 65) 김연희 (공대 68) 김영희 (강대 58) 청주경 (상대 68) 강동수 (의대 60) 강당수 (의대 61) 한당용 (문리 71) 김창수 (악대 68) 김영희 (공대 56) 김창수 (악대 68) 김영희 (공대 56) 기간 (공대 68) 김정희 (공대 56) 김장수 (악대 68) 김정수 (공대 59) 한당용 (문리 71) 김창수 (악대 64) 청연형 (의대 58) 청유수 (의대 58) 강원형 (공대 54) 김창수 (의대 58) 강원형 (의대						,, , ,			
백원일 (농대 70) 최용완 (공대 57) 김영철 (의대 55) 한병용 (문리 71) 한영우 (의대 61) 한영수 (의대 63) 참권원 (문리 59)* 심장은 (공대 64) 전영한 (의대 58) 한당우 (의대 50) 의환수 (의대 50) 한당우 (의대 50) 의환수 (의대 50) 의한 (의						강연식 (사대 58)	G/ (/ 1L/ 1113		
백혜란 (미대 70) 성종권 (문리 59)* 시동영 (사대 60) 시청형 (문리 59)* 시청한 (공대 66) 기환 (공대 66) 기환 (공대 66) 기환 (공대 66) 기환 (공대 68) 기환	백원일 (농대 70)						강창석 <i>(</i> 이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명희 (농대 67) 하기환 (공대 66) 기환 (공대 68) 기후 (공대 69) 기후 (공대							· · · · · · · · · · · · · · · · · · ·		
서명희 (농대 67) 성주경 (상대 68) 한동수 (의대 60) 한병용 (문리 71) 전형 (우대 64) 전형 (의대 58) 한병용 (문리 71) 전형 (의대 58) 한병용 (의대 51) 전형 (의대 58) 한병용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2) 건흥선 (의대 51) 건흥선 (의대 52) 건흥									
성주경 (상대 68) 한동수 (의대 60) 한병용 (문리 71) 김용연 (문리 63)*						, ,			
*** 송성균 (공대 50) 한병용 (문리 71) 김창수 (약대 64) 현영수 (음대 61) 흥선경 (의대 58) 김원호 (약대 69)* 김희주 (의대 60) 김희주 (의대 65) 수종수 (의대 55) 수종수 (의대 50) 의한병을 (문리 71) 김한종 (의대 58) 후선경 (의대 58) 의한성은 (상대 54) 용선의 (공대 71) 김한종 (의대 56) 의한성은 (의대 59) 김현중 (공대 63) 의한선수 (간호 69) 김희수 (민대 63) 양산후 (인대 58) 후 진 (간호 56) 김희가 (미대 66) 양찬효 (상대 54) 영동해 (농대 74) 무선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김정한 (공대 52) 의단용 (의대 53) 의원수 (의대 58) 학장후 (의대 59) 의원수 (의대 50) 의원수 (의대 52) 의학상 (의대 52) 의학상 (의대 53) 의원수 (의대 58) 학장후 (의대 59) 의원수 (의대 58) 학장후 (의대 59) 의원수 (의대 58) 학장후 (의대 59) 의원수 (의대 58) 학장후 (의대 58) 의원수 (의대 58) 학장후 (의대 53) 의원수 (의대 58) 학장후 (의대 58) 학장후 (의대 55) 사원석 (의대 52) 사원석 (의대 55) 사원석 (의대 55) 사원역 (의대 55) 사원역 (의대 55) 사원의 (의대 54) 흥순호 (수의 74) 기업환 (의대 54) 흥순호 (수의 74) 기업환 (의대 55) 사위열 (의대 55) 에비고-TEXAS									
신상화 (공대 58) 홍선례 (음대 70) 김태일 (공대 68) 홍선경 (의대 58) 기한종 (의대 58) 김일훈 (의대 51) 김희주 (의대 62) 남욱현 (경영 84) 소종수 (의대 55) 소종수 (의대 55) 가영을 (의대 53) 환선주 (간호 69) 김후일 (공대 60) 가영은 (문리 67)* 반영은 (문리 67)* 반정을 (의대 54) 문석면 (의대 52) 무선면 (의대 52) 임당한 (의대 63) 영상대 (공대 74) 무선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임당한 (의대 63) 임당한 (의대 63) 임당한 (의대 63) 임당한 (의대 63) 임당한 (의대 54) 보정을 (의대 61) 바장을 (의대 61) 바장을 (의대 61) 바장을 (의대 51) 보장을 (의대 52) 바장을 (의대 53) 사윤석 (의대 52) 한성수 (의대 58) 한성수 (의대 58) 한성수 (의대 58) 한성수 (의대 58) 원수 (의대 58) 가영은 (무리 67)* 바장을 (의대 61) 바장을 (의대 61) 바장을 (의대 61) 바장을 (의대 62) 사윤석 (의대 62) 가장은 (의대 58) 한성수 (의대 54) 한성수 (의대 54) 한성수 (의대 54) 한성수 (의대 54) 함치 한성수 (의대 54) 함치 함께 수 (의대 58) 한성수 (의대 54) 함치 함께 수 (의대 58) 함치 함께 수 (의대 58) 함치 함께 수 (의대 58) 함치 함께 수 (의대 54) 함치 함께 수 (의대 58) 함치 함께 수 (의대 54) 함께 수 (죄성호 (문리 58)
심상은 (상대 54) 홍선일 (공대 71) 김한종 (의대 56)									
신영찬 (의대 63) 홍수웅 (의대 59) 김현중 (공대 63)								FLORIDA	지역 불명
신영찬 (의대 63) 홍수웅 (의대 59) 김현중 (공대 63) 누잉글랜드									김현주 (문리 61)
양운택 (의대 58) 홍 진 (간호 56) 김희자 (미대 66) 보영준 (문리 67)* 박형순 (의대 54) 정선휘 (공대 65) 전영자 (미대 58)* 양찬효 (상대 54) 모선면 (의대 52) 김문소 (수의 61) 박정일 (의대 61) 박 순 (법대 58) 최준희 (의대 58) 역동해 (농대 74) 북가주 민발식 (의대 60) 김 영 (의 변환 연의대 55) 사윤석 (의대 62) 중부텍사스 한성수 (의대 54) 환상우 (의대 54) 한성수 (의대 54) 향상수 (의대 54) 후상수 (의대 5				뉴잉글랜드					
양운택 (의대 58) 홍 진 (간호 56) 김희자 (미대 66) 박영준 (문리 67)* 박형순 (의대 54) 정선휘 (공대 65) 전영자 (미대 58)* 양찬효 (상대 54) 문석면 (의대 52) 김문소 (수의 61) 박정일 (의대 61) 백 순 (법대 58) 최준희 (의대 58) 염동해 (농대 74) 북가주 민발식 (의대 60) 김 영 () 박준환 (의대 55) 서윤석 (의대 62) 중부텍사스 한성수 (의대 54) 오선웅 (의대 63) SAN FRANCISCO 박건이 (공대 60) 김정환 (공대 52) 박창욱 (공대 50) 서휘열 (의대 55) MID-TEXAS 홍순호 (수의 74)		황선주 (간호 69)	김훈일 (공대 60)	MA/RI/NH/ME/VT	노영일 (의대 62)	박용걸 (약대 56)	유우영 (의대 61)	임필순 (의대 54)	
양찬효 (상대 54)	양운택 (의대 58)					박형순 (의대 54)			
염동해 (농대 74) 북가주 민발식 (의대 60) 김 영 () 박준환 (의대 55) 서윤석 (의대 62) 중부텍사스 한성수 (의대 54) 홍소호 (수의 74)				김문소 (수의 61)					
오선웅 (의대 63) SAN FRANCISCO 박건이 (공대 60) 김정환 (공대 52) 박창욱 (공대 50) 서휘열 (의대 55) MID-TEXAS 홍순호 (수의 74)									
		S/ II V II					IVIID ILAAS		
			(1 11 33)	(0 11 . 0)	(_ 10.)	((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0명)

남가주	이청광 (상대 61)	윤정옥 (약대 50)	미네소타	오인환 (문리 63)	하트랜드
강신용 (사대 73)	이홍표 (의대 58)	이기영 (농대 70)	남세현 (공대 67)		김경숙 (가정 70)
김재영 (농대 62)	임낙균 (약대 64)	이전구 (농대 60)	조형준 (문리 62)	중부텍사스	김명자 (문리 62)
노명호 (공대 61)	임용오 (의대 57)	이재덕 (법대 60)		이광연 (공대 60)	이교락 (의대 53)
박명근 (상대 63)	전희택 (의대 60)	이준행 (공대 48)	시카고		이상강 (의대 70)
박윤수 (문리 48)	제영혜 (가정 71)		남상용 (공대 52)	조지아	
박종수 (수의 58)	조용원 (문리 66)	뉴잉글랜드	이용락 (공대 48)	주중광 (약대 60)	휴스턴
방명진 (공대 73)	차종완 (사대 54)	고일석 (보건 69)	정 태 (의대 57)	허지영 (문리 66)	박태우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한귀희 (미대 68)	김문소 (수의 61)	한재은 (의대 59)		조시호 (문리 59)
서영석 (의대 55)	한홍택 (공대 60)	박경민 (의대 53)		필라델피아	
서치원 (공대 69)	한효동 (공대 58)	박영철 (농대 64)	오하이오	서중민 (공대 64)	- 종신이사 (고인)
심상은 (상대 54)		오세경 (약대 61)	김용헌 (경원 66)	손재옥 (가정 77)	- * 표: 한번이상 내신 :
심화섭 (약대 61)	북가주	윤상래 (수의 62)		이만택 (의대 52)	
오재인 (치대 33)	김정희 (음대 56)	윤선홍 (치대 64)	워싱턴 DC	주기목 (수의 68)	
오흥조 (치대 56)		정선주 (간호 68)	강연식 (사대 58)		
이병준 (상대 55)	뉴욕		권기현 (사대 53)	플로리다	
이세열 (사대 57)	김광호 (문리 62)	루이지애나	류재풍 (법대 60)	김중권 (의대 63)	
이종도 (공대 66)	오인석 (법대 58)*	강영빈 (문리 58)*	방은호 (약대 43)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9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n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신동국 (수의대 76)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볍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카나다 한인교회

293호 | **2018년 9월 호**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P.O. Box 189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ASSI Plaza)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편집부>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v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Drivetech, Inc Hyok Yup Lee, MD. F.A. 엄달용 (공대 69)

이혁엽 (의대 73)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어느곳이든 5스타급 전문성과 노하우 너비스와 가이드 15 OFF 213-388-4000

문의: D.C. 상품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kccnews.net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제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8개국 선교지 11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강수상 (의)·이병준 (상)·오인석 (법)·이용락 (공) 오흥조 (치)·이영묵 (공)·이전구 (농)·송순영 (문)·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옥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헌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헌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의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lan De
SANFRANCISCO	차기회장				- Jan-Dec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제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
	차기회장			January State of Stat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 Jan-Dec
	차기회장	강에네 (자대 72)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애리조나 ARIZONA		•		seungjoochang@gmail.com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OT 7 / 51	007.000.000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ALMORA					
오레곤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 Jan-Dec
OR/ID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OHIO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헌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Jan-Dec
	차기회장	121 (8 11 99)	751 561 5672	Transcap@ccc.atam.caa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Jan-Dec
		007 (AN 13)	770-000-3010	youngskong@yan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カル	HELL (A.O. a.)	267.242.522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 Jan-Ded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1, .1 1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Jul-Jun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캐나다 밴쿠버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i>J. J. L. Z.J. L. L. L. L. L. L. L. L</i>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пуспикенеешуппан.соп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Mar-Feb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부회장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홈커밍데이 참가 안내

Let's go HOMECOMING DAY together

제14대 미주 동창회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모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다음과 같은 제39차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5일 (월): 모교 개교 기념식

자율적 참여

■ 10월 16일 (화) -18일 (목): 제주도 관광

16일 (화) ___ 김포공항 개별 출발, 오전 9시~10시 사이 출발 제주공항 도착 시, "US 아주투어" 가이드와 만나야 함.

협재 해수욕장, 금능 식물원, 테마 파크

17일 (수) ___ 주상절리, 마라도, 용머리 해안, 수목원 테마 파크, 특산품점

18일 (목) ___ 성읍 민속마을, 해녀촌 탑승수속 후 출발 (PM 1:30 이후 비행기 탑승)

문의: 백옥자 (Jace Lee) T: 213-388-4000, C: 818-395-1967 한국 문의 : 고봉관 차장 Tel: 02-522-8686

■ 10월 21일 (일): 홈커밍데이 행사

9 am ___ 접수: 모교 보조운동장 9 am ~ 12:30 pm ___ 환영 행사 (관악산 등반) 12:30 ~ 15:30 pm ___ 축하 행사 (본 행사) 17 pm ~ ___ 행복기부 콘서트 (대운동장)

모든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미주 동문님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신 시간에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홈커밍데이 참가 관련 문의:

백옥자 (Jace Lee), 조직국장 T: 213-388-4000, C: 818-395-1967



건강한 당신의 가족 곁에 항상 **한남체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표 하기환 (공대 66)

가장 신선하고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들이지 않고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한남체인은 매일매일 달리겠습니다





Los Angeles LAM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539-8899 (714)736-5800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Buena Park, CA 90621

Fullerton 풀러튼점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562)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New Jersey** 뉴저지점

(201)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S-Mart 에스 마트

(424)731-7447 2515 Torrance Blvd. Torrance, CA 90503